

고진광 대표(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도덕성 회복의 길이
바로 전법의 길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3월 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36호 2013년 4월 17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법구경〉

욕망에서 근심이 생기고,
욕망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욕망에서 벗어난 이에겐 근심이 없다.

선학원, 조계종과 결별 수순 밟나

4월 11일 개최한 선학원 이사회서 '종지종통 봉대' 등 정관 삭제 결의

4월 1일 공포된 법인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이 조계종과의 선긋기에 들어갔다.

(재)선학원은 4월 11일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02년 합의 이전 정관으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학원 정관에 있었던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 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한 간월암, 정혜사 등 수덕사와의 문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이후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인법을 전제로 하는 조계종 선학원 대책위원회와의 회동에는 일체 응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조계종과의 관계를 정리하냐' 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무이사 송운스님과 재무이사 현진 스님은 "오늘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 것" 이라고 밝혔으며, '대화의 여지는 없냐' 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번 (재)선학원 이사회 결정은 지난 3월 열린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확인한 것이지만, 종단과의 대화 거부와 법률 쟁송 부분은 종정 진제 스님이 시중을 발표하면서까지 만류한 것이어서 교계 안팎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4월 2일 '선학원 관련 시중(示衆)' 에서 "선학원이 종단 사찰과 큰스님들의 재산 출연을 통해 설립된 법인임을 모든 종도들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조계종도로서의 정체성을 해하는 언행이 있을 때는 모든 종도들의 강한 지탄이 있을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장들의 이 같은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종단 집행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승가는 화합이 제일이다. 종단 집행부와 선학원 이사회는 사회법에 의한 쟁송 등 파승가적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조계종 선학원 대책위원회(위원장 성직)도 4월 9일 2차 회의에서 오는 25일 선학원 이사 스님들과 만나 법인법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결의하고 11일자로 선학원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선학원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책위와 이사진의 회동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간월암 등 문제 법적 조치
선학원 "대책위 회동 불응"
대책위, "차분히 대응할 것"
교계 안팎 파장 커질 듯

이 같은 (재)선학원 이사회의 결정에 조계종 총무원과 선학원 대책위원회는 수위를 보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학원 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회의가 예정돼 있고, 총무원은 16일 법인법 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다. **〈차주 상보〉**

조계종 선학원 대책위원장 성직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대책위 회의를 조속히 열겠다.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간사 정범 스님은 "법인법은 종도를 증명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대화에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화 거부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3, 31면



국사의 비문으로 매화 향기 날아들고…

고려 때, 월출산 남쪽엔 큰 가람이 있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람은 사라졌다. 전남 강진군 월남사지. 4월 8일, 다시 짓지 못한 법당 위엔 그 때 그 매화가 다시 피었다. 절을 지었던 진각 국사의 비문 앞으로 매화 향기 날아든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조계사 주변 고도제한 통해 난개발 막는다

서울시, 최고 20m 이하… 6m 미만 도로변도 동일

서울시가 조계사와 운현궁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최고 높이(20m 미만)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월 10일 제6차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계사 ·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계사 지구는 수송동 · 견지동 일대 6만6698㎡, 운현궁 지구는 경운동 · 운니동 · 낙원동 일대 14만7809㎡ 다.

주요 결정 내용은 소유가 다른 필지의 무리한 공동개발과 과도한 건축한계선을 조정해 개별 건축을 하도록 하고, 구역 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최고높이를 조정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150㎡ 미만의 소규모 필지 또는 6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m(5층) 이하 또는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두 지역 건물에 유흥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카지노 영업소, 골프 연습장, 정신병원, 실내낚시터, 교정 및 군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 도심관광지역으로서 공간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1층은 고시원, 공동주택, 숙박시설(모텔 등) 등 폐쇄적인 시설은 들어설 수 없게 했다.

대신 전통문화 및 한옥을 활용한 업종을 적극 권장한다. 특히 서울시는 조계사 지구엔 전통문화업종과 불교용품 판매점, 전통문화 전시공간 및 교육관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운현궁 주변 1 · 2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였던 두 지역을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조계사 지구)' 과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운현궁 지구)' 으로 변경했다.

신중일 기자

936호 INDEX

종합 2·3
한국 최초 호스피스 병원 건립
2014 인천AG 성공기원 수륙재
올해 연등축제는 'CLEAN'
거리기부도 신용카드로
봄맞이 트래킹 템플스테이

시방세계 5
도심사찰 쉼터 공간 뜬다

강의실- 불교와 자본주의 8

불국토 경주 남산을 오르다 12
신라 탄생과 유상곡수의 흔적들

문화 20
한암 · 탄허 선필 한자리에



"한반도 위기 대화로 해결"

한반도평화대회운영위, 4월 11일 성명 발표

불교계가 나날이 경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남북한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운영위원회(상임운영위원장 수불)는 4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한반도 정세를 대화로 해결할 것을 남북한 정부에 촉구했다.

평화대회운영위는 "현재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과 불안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남북화해와 협력의 산물인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했고, 미사일로 위협하며 최소한의 대화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념과 체제를 떠나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독자적 존립은 불가능하며 결코 바람직한 체제도 아니다"며 "북한은 남북한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지속되는 군사적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대회운영위는 한반도 긴장 해소와 평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가 정상들과 회합을 갖거나 대북특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으며, 미국과 중국 지도자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과 북한정권의 대화와 교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 어릴 때 읽은 책 한 권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맑고 깨끗한 동심에 봄날 씨앗을 뿌리듯 부처님 가르침을 심는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큰 숲이 될 것입니다.

- 본지와 조계종 포교원은 공동으로 전국의 사찰, 사부대중과 함께 새학기와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까지 어린이 불서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전법은 불자의 임무이며 사명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원장 스님, 사찰, 본지 독자들 캠페인 동참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이 포교원과 본지의 공동 캠페인에 동참하는 금일봉을 희사했습니다. 또한 일선 사찰들과 불자, 단체들의 보시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일면 스님
호계원장/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혜자 스님 도선사 주지



성행 스님 청계사 주지



성일 스님 신흥사 주지



이란 보살 여여원장

■ **캠페인에 동참한 사찰 불자와 단체**
서울 성북구 적조사, 한국 씨티에스, 김한솔 불자, 인근창 불자, 위미희 불자

■ 문 의 : 02)2011-1903 (조계종 포교원)
02)2004-8258 (현대불교)

■ 동참계좌 : 국민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어린이 불서를 법공양 받고 싶은 독자와 사찰에서는 문의 전화나 이메일(motp79@hyunbul.com)로 신청해 주십시오.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제1회 통도연등축제

봄 향기 그윽하고 산하대지 생명력으로 충만한 이 좋은 시절에 **제1회 통도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그 예전 부처님께 올린 연등 공양이 오늘에 이르러 나와 이웃을 위하는 등을 밝히는 시민축제로 거듭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비의 등불이 온 누리에 펴지기를 기원하면서 시민 ·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제등행렬 2013년 4월 27일 오후 7시 통도사 산문 앞
이동경로 : 통도사 산문 → 신평 삼거리 → 신평 터미널 → 통도사 산문

나눔의 장 대형전통등 및 장엄등 전시 (4월 26일 ~ 28일) 3일간 _ 통도사 산문 일대
코끼리등 · 연꽃등 · 동자승등 외 다수의 대형등 전시
전통문화무료체험 (4월 26일 ~ 28일) 3일간 _ 통도사 산문 일대
탁본체험 · 연등 만들기 · 제기 만들기 · 페이스페인팅 · 소원지 적기 등
지역특산물 장터 (4월 26일 ~ 28일) 3일간 _ 통도사 산문 일대

통도연등축제 기념음악회 2013년 4월 28일 오후 7시 _ 통도사 산문 앞 특설무대
출연진 : 현철 · 김양 · 박구윤 · 한영주 · 김국환 · 시나브로 · 신경만통도사 합창단 · 양산시립합창단 등

통도연등축제조직위원회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055)382-7182, 381-1442 / 전송 055)382-7196

통도연등축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원산 도명 이 성 휘 합장



60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및 남북통일기원 대법회

2013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멈춘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대회 및 남북통일 기원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남과 북이 대치하며 항상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절망의 현실을 온 국민과 사부대중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을 발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회를 계기로 전쟁의 절망이 통일의 희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행 사 내 용 |

1부 호국선열과 평화를 위한 기도
2부 한반도 평화대회 및 남북통일 기원 대법회

일 시 2013년 4월 30일 오전 10시
장 소 양산종합실내체육관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주 관 영축총림 통도사 본·말사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운영위원회
후 원 경상남도 · 양산시 · 양산시 사암연합회 · 통도사 신도회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055)382-7182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변함없는 자성의 땅

가장 숭고 이 지역을 굳게 지켜라.

이곳은 변함이 없는 영토이니라.

땅 한 조각을 사서 깨끗하게 정돈하고, 집을 짓고, 경작을 하는 등의 행위가 미래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치가 있는 땅은 모든 사물의 궁극적이고 불변하는 본성, 원시청정이라는 요새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방법은 은둔 명상을 하며 '대원만'에서 끝나는 각기 다른 수행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단계를 완전히 성취하고나면, 나머지 인생에서, 사후에, 혹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에서 그 상태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용감하게 나아가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편안한 죽음' 원력, 호스피스 병원으로

정토관자재회, 자재병원 건립… 한국 최초 완화의료 병원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 모습. 능행 스님의 원력으로 한국 최초 호스피스 병원이 탄생하게 됐다.

1997년 가톨릭의 한 호스피스 시설. 평생 선방에서 정진한 수좌 스님 한 분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었다. 호스피스로 활동하는 한 비구니 스님만이 그 쓸쓸한 임종을 지켰다. 수좌 스님은 가쁜 숨을 쉬며 비구니 스님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능행 스님, 편히 죽을 수 있는 병원 하나 지어주세요."

비구 스님의 부탁은 능행 스님의 마음에 비수가 돼 꽂혔고, 곧 원력이 됐다. 그 후 능행 스님은 탁발을 시작했고, 1999년 충북 청원에 정토마을이라는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이 불교계 최초로 들어섰다. 이후 10여년, 능행 스님은 한국 최초의 호스피스 전문병원 자재병원을 건립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울산에 들어서는 자재병원은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둔 난치병 중증 환자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현재 일부 대학병원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두고 있고, 관련 전문 의원들은 있지만 병원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자재병원은 1층에 완화의료 및 희귀난치성 불치병 병동과 약국, 중환자실 등을 운영한다. 2층에는 각종 암 질환 등 성인병중증환자 재활병동이, 3층은 승가요양 전문병동과 통합의학센터가, 지하 1층에는 임상병리실과 교육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증축할 예정인 4층은 법당과 요가명상실이 들어선다.

난치환자 죽음 맞을 병동부터
외래 · 재활 진료공간 등 들어서
스님들 치료위한 전용 병동도

마무리 공사비 20억원 소요
사부대중 동참 · 후원 '절실'

특히 승가요양 전문병동은 스님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해 승가공동체의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토마을 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은 "죽음이란 모든 존재들에게 가장 평등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난치병을 앓다가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었다"고 건립 취지를 설명했다.

병원의 완공률은 90%로 개원은 9월이지만 다음달 초부터 환자를 받는다. 정토마을과 달리 자재병원은 환자들이 치료비를 내야 하지만, 차상위계층의 환자에게는 무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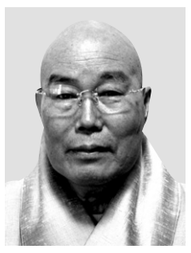
자재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재정 문제다. 당장 마무리 공사와 의료 기자재를 들여오기 위한 20억 원의 기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토마을 자재병원은 1인 1만원 3만 후원자 가족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능행 스님은 "자재병원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리가 돼주고 싶다"며 "첫 호스피스 전문 병원에 사부대중의 깊은 관심과 후원을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총화종 수진사 복지문화교육전승관 낙성

4월 23일 기념법회… 2300평에 2개동 불사



총화종(총무원장 남정 · 사진) 총본산 수진사가 4년 동안 불사한 복지문화교육전승관이 완공돼 4월 23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서 낙성법회' 를 연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복지문화교육전승관은 총건평 2300평 위에 2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대웅전이 있는 주 건물은 300평의 대지에 문화 · 교리 강좌, 외국인 쉼터 등으로 활용된다. 이곳 맨 위층인 지상 4층에는 대웅전이 들어섰다. 또 다른 건물은 120평의 대지에 유치원 및 요양시설이 있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2000년 초부터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서 동남아 불교 국가를 두루 답사하며 템플스테이 체험공간, 유치원, 노인요양원 등 복지문화 종합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온게 이번 불사를 시작한 계기였다"며 "특히 이번 불사 중 108평 규모의 대웅전은 내부 공간에 기둥 없이 건축됐을 만큼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전 뒤편에 만들어진 연화세계는 600평 대지에 11미터 길이의 와불(열반상), 원통문과 108계단, 10대 제자와 33관음보살을 모셨고, 뒤편에는 팔상성도, 16나한, 산수화를 배열한 돌병풍과 21미터 높이의 9층탑도 세우는 등 공원 형식의 메머드급 불교 타운을 조성했다.

김주일 기자



2014 인천AG 성공기원 수륙재 봉행

4월 12일 화엄종 약사사서

인천수륙재보존회와 인천시는 4월 12일 인천 만월산 약사사에서 제9회 인천수륙재(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5호)를 거행했다.

대한불교 화엄종 약사사, 대한불교 삼계종,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불교회가 공동후원한 인천수륙재에는 예년보다 많은 700여명이 참석해 2014년 인천아시안 게임의 성공을 기원했다. 수륙재에서는 인천수륙재 보유자이자 인천불교총연합회 회장인 일초 스님이 보존회 스님들과 수륙재를 직접 시연했다.

일초 스님은 "수륙재는 민심화합과 국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열렸다"며 "수륙재를 통해 2014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방송사장 대기발령 무효
12일 이사회 무산…19일 재개
조계종이사 "이사장 비위 無"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이 이사회 동의없이 이채원 사장을 대기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12일 이채원 사장이 제기한 '인사발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회 동의 없이 사장을 대기발령한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4월 4일자로 사장직 무대행 발령을 받았던 상무 선문 스님이 내린 인사발령은 원안무효로 돌아갔다.

4월 12일 예정된 불교방송 이사회도 21명 이사 중 10명만이 참석, 재적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날 참석 이사들은 이사회가 성원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 19일 이사회는 모두 참석해 불교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불교방송 이사회는 이사장 영담 스님이 소집한 4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소속 불교방송 이사 스님 6명은 4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에 회자되는영담 스님의 비위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뮤지컬 원효는 불교를 알리려고 시도하다가 일으킨 행정적 실수"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2013 양주 회암사 삼대화상문화제

지공·나옹·무학 삼대화상 수행성지

일시 2013. 4. 27(土) 10:00~20:30

장소 회암사지박물관 특설무대, 회암사 일원



삼대화상의 수행성지, 양주 회암사지에서 올리는 장엄한 삼대화상 다례재,
다양한 문화체험, 감동적인 음악예술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삼대화상다례재 (10:00~13:00)



회암사를 중건하고 중흥한 조계종의 증명법사로 임제종의 법맥을 이은 삼대화상의 얼을 기리는 다례재(茶禮齋)입니다. 앞으로 매년 열릴 다례재는 '삼대화상문화제'의 중요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부대행사 (10:30~20:30)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는 열린마당으로 꾸몄습니다.





- 다도(茶道) 시연과 시음회(試飮會)
- '회암사 문화재를 찾아라'(걷기대회)
- 사찰음식 시식, 바루공양 체험
- 연등과 단청소품 만들기
- 기와무늬 탁본과 나옹선사 선시 인출 체험
- 토우(흙인형) 만들기
-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삼백석' 쌓기
- 지역 어른과 이주 근로자, 다문화가정 무료 진료
- 회암장터(지역특산물, 먹거리, 도서, 용품 등) 운영

삼대화상음악예술제 (18:00~20:30)

상생과 소통의 길을 여는 음악예술제. 클래식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고품격 화합의 한마당.

- **공식 행사** : 삼대화상 장학금과 '자비의 쌀 삼백석' 전달
- **여는 마당** : 법고(法鼓) 시연
- **어울림 한마당** : 양주시립합창단, 회암사연합합창단, '락음국악단(퓨전 국악그룹)' 공연
- **초청 공연** : 범능스님, 안치환, 웅산, 송대관

행운권 추첨과 두레패의 신명나는 한마당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천년고찰 전보산 회암사 ·주 관 : 2013 양주 회암사 삼대화상문화제 | 조직위원회 T. 031-866-0356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세계속의 경기도 Global Inspiration, Yangju 양주시,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BTN 불교TV, BBS 불교방송, 불교신문

미등록 사암·교육 수계 제한 우려

선학원 '조계종 종지종통' 조항 삭제, 파장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이 조계종이 제정한 법인법에 '종지종통 봉대' 조항 삭제라는 강수를 뒀다.

1921년 석왕사 안국동 포교당 보살계단에서 만공 스님이 주창한 "조선사람끼리 운영하는 선방을 세우자"는 기치 아래 설립된 선학원은 근대불교의 산실로서 조계종의 모체이기도 하다. 결국 조계종과 선학원은 둘이 아닌 한 뿌리라는 의미다.

하지만, 1970년대 말부터 조계종과 선학원은 거리가 생기기 시작한다. 선학원 정관 부칙에 창립이사 명단이 삭제되고 이사 등 임원은 선학원 분원장에서 선출한다는 조항이 생긴 것도 이 시기부터다.

2002년 3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과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이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후 조계종은 선학원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선학원은 '조계종 종지 종통 봉대'와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복원시켜 조계종 소속임을 분명히 했다. 법인법에 반발한 선학원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조계종과 선학원은 사실상 갈등 양상에 다시 접어들었다.

이번 갈등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종지 종통을 부정한 만큼 조계종이 강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종단 사찰법에 의한 제재다. 대부분의 선학원 분원들이 사찰법에 따라 미등록 사설사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분원장 스님들은 최대 제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분원들 미등록 사암 분류되면
승적 및 도제 양성 차질 예상
관계 악화 시 파장 적지 않아
대화로 해결…출가정신 실천



(재)선학원은 4월 11일 이사회를 열고 법인법 제정에 따라 2002년 합의 이전으로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종지종통 봉대',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의 정관이 삭제됐다. 사진은 이사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무 이사 송운 스님과 재무 이사 현진 스님이 결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또한 현재는 합의 사항으로 풀려 있는 선학원 스님들에 대한 교육·승적 및 수계 권리 제한 역시 다시 복원될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선학원 소속 조계종 스님들의 제자 스님들은 중앙승가대, 강원 등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으며, 스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 역시 받지 못하게 된다.

본래 한 뿌리인 종단과 법인이 갈등보다는 대화와 화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대불교사 전문가인 김광식 동국대 연구 교수는 "한국불교 정화의 산실인 선학원의 역사성과 이로인한 특수성을 종단에서 감안해야 하고, 선학원은 종도로서의 정체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것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법 제정을 주도한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법인법 제정으로 분원장 스님들의 제한됐던 권리가 많이 해소됐다"며 "그럼에도 문제 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감정적 대응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선학원도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2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공모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제22회 행원문화상'을 공모한다. 모집분야는 역경과 예술로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역경분야는 대장경을 비롯해 중요한 불교문헌과 각종 저술 등 중요한 불교 관련 자료를 현대어로 번역한 인물로 성과물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예술분야는 불교사상을 토대로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및 방송·연예 등의 분야에서 포교에 이바지한 인물이어야 한다.

후보 추천은 본인 신청서 및 추천서(소정양식), 이력서(명함판 사진 2매), 공적서 및 증빙자료를 6월 30일까지 서울 서초구 재단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runner333kr@naver.com) 접수도 가능하다. 수상자는 8월 중순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열린다.

한편, 행원문화재단은 문화상을 통해 500여 명에게 총 6억7000여 만 원의 장학금과 시상금을 지급했다. **노덕현 기자**

불기 2557년 연등 축제는 'CLEAN'

지난해 봉축 쓰레기만 15t…축구장 하나 채워

2012 연등회 연등축제기간 발생한 쓰레기의 양이 15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불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 조사결과 종로구청에 집계된 지난해 연등회 연등축제와 봉축법요식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15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성인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마대 900개 분량으로 축구장 하나를 채우고 남는 양이다.

현재 연등회 연등축제에는 해마다 참가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행사참가 5만명, 관람시민 13만 5000명 등 총 20여 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늘어나는 인파만큼 쓰레기도 늘고 있는 것으로 관계기관은 추산하고 있다.

다행인 점은 서울 불꽃축제와 같이 비슷한 규모의 축제 보다는 상대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불꽃축제의 경우 쓰레기 발생량이 30t에 달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봉축위원회 측은 자체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축위 관계자는 "연등의 경우 참가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가거나 참가 단체들이 수거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들에게는 축제 이후 인근 주민과 담당부처 직원들이 새벽까지 쓰레기 치우는 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등회 연등축제 또한 30여명의 청소인력이 투입돼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진행한다. 교통통제

분리수거 되지 않아 전량 소각해
불자들의 성숙한 의식 필요할 때

준비모임을 통해 부스 설치 등에 앞서 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수거한 쓰레기를 전량 소각된다는 점이다. 고동섭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주무관은 "30여 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데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이 문제"라며 "먹다 남은 음식물과 종이, 페트병 등이 뒤섞여 소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두환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자연환경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 재활용 등을 모색해야 하는 만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쓰레기 처리방법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생명존중과 화합, 평화 등 불교정신을 펼치는 축제이니 만큼, 불자들이 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축제로 거듭난다면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걸으며 봄을 만끽하세요

전국 사찰, 트레킹 템플스테이 풍성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트레킹 템플스테이'가 시작된다.

불교전통 수행무술인 '선무도'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경주 골굴사는 4월 한 달간 봄 향기 물씬 풍기는 생태체험형 프로그램을 함께 선보인다.논두렁에서 달래, 쑥, 냉이를 캐고, 진달래 화전을 나누어 먹으며 풍류를 즐기는 시간과 함께, 토함산과 함월산, 야부천 트래킹 및 한지마을을 찾아 경주의 문화유산을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강원도 속초 신흥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달라짐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연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잠시 휴식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설악산 비룡폭포와 육담폭포를 찾아 물소리 듣기 참선을, 또 봄눈이 녹아 흐르는 소리를 통해 '정음체험'을 한다.

강원도 강릉의 현덕사 역시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소금강 꽃길 트레킹'을 선보인다. **신중일 기자**



봄맞이 트레킹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자연 풍광을 감상하고 있다.

거리기부도 이제 신용카드로

날마다좋은날·신용카드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4월 5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날마다좋은날이 봉축기간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모금캠페인의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마련됐다.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2011년 4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 KB국민카드 등 주요 신용카드회사들이 나눔문화 확산과 균형있는 사회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발족한 단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날마다좋은날과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모금함을 전국에 배포하게 된다.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두 단체의 만남을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 확산이 기대된다"며 "5월 가정의달과 부처님 오신날 주간에 나눔과 희망의 씨앗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두형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장(여신금융협회장)은 "신용카드를 통해 일반 국민이 쉽고 부담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신용카드 업계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봉 행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수연암 대법당 낙성식 및 부처님 점안 대법회



귀의삼보 하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사년 봄날에 제방의 대덕큰스님들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수연암 대법당 낙성 및 부처님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에 즈음하여 공사가 다망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아름다운 수연암 불사를 증명하시고 법석을 빛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 일시 : 불기2557(2013)년 4월 28일 (음, 3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전남교구 수연암
■ 문의 : 수연암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64-2)
☎ 061)762-0472. 011-606-0473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 041)566-2277~8

주관 :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 무 원
주최 :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전남교구 원장 지현

수 연 암 주지 수연 합장

일 주 문



제 2회 정조 효행백일장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4월 27일 오전 10시 용주사 내에서 제 2회 정조대왕 효행 백일장을 개최한다. (031)239-9391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4월 12일 문수청년회, 강원도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NO, 유해환경ZERO'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반도 평화기원 보살계 수계산림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4월 23일 한반도 평화기원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051)508-3636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

합천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은 4월 18일 제53회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를 거행한다. (055)934-3034



제1회 통도연등축제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4월 26일 통도사 산문일대에서 제1회 통도연등축제를 개최한다.



제10회 가톨릭독서콘서트

BBS불교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은 4월 25일 서울 불광동성당에서 제10회 가톨릭독서콘서트를 진행한다.



제10회 하루헌 무아전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은 4월 15~21일 대구문화체육관에서 제10회 하루헌 무아전을 개최한다.



운암 김성숙 선생 44주기 추모재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4월 12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의 44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찻집

나운하 대한불자가수회장은 4월 20일 마포 BBS불교방송 지하 다보커피숍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찻집을 연다.



자비의전화 장학금 전달식

고경순 자비의전화 회장은 4월 9일 능인중학교 씨름부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불교 세계화, 불서 번역 해야"

獨 비교종교학자 후터 교수

"원효 · 지눌 스님과 한국 불교를 책으로만 접하다 직접 눈으로 보니 경이롭습니다. 특히 한국 불자들이 법당에서 예불 올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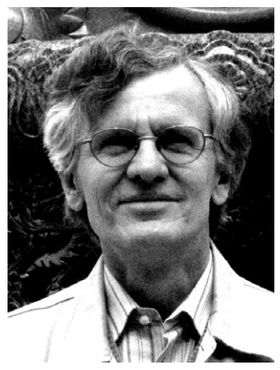
지난 4월 6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만난 독일 본대학교(University of Bonn) 오리엔트-아시아연구소장이자 비교종교학자인 만프레드 후터(Manfred Hutter · 55 · 사진) 교수는 처음 한국을 방문한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후터 교수는 4월 1일 부산 동명대(총장 설동근)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독일에서의 불교와 종교다원주의'로 특강을 열고 동명대와 독일 본대학교 교류에 대해 논의 했다.

동명대 국제문화학부 불교문화학과는 본대학교와 교류는 물론 한국어학당 및 기타 학문분야의 포괄적 교류협력을 추진해 국제교류를 유럽권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독일 본 대학교는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국립대학으로 의대, 상대, 이과대학, 신학대학 등 7개 단과대학 120개 학과에 3만 1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최근 25년 사이 노벨상 수상자를 2명(물리학, 경제학)이나 배출한 독일 내 유일한 대학이다.

가톨릭 신자인 후터 교수는 1984년 오스트리아 그라쯔 대학교 신학대학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부터 오리엔트 아시아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96년 오스트리아 종교학회 창립회원으로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종교학' 시리즈 발행인이며, 지난해 6월 '독일 속의 아시아 종교-타 환경에서의 다원주의' 학술연구를 발표한 저명한 학자다.



동명대 초청, 본대학과 교류

"한국의 불교의식 경이로워"

비교종교학에서도 남방불교를 위주로 공부한 후터 교수에게 한국의 불교의식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스님만 불단에 예불을 올리게 돼 있어 신도들은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한다"며 "하지만 대승불교인 한국은 스님과 신도 모두 함께 예불의식에 참여해 서로 연결돼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후터 교수는 한마음선원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본대학교 비교종교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혜유 스님(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의 지도교수를 맡게 되면서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한마음선원을 접하게 된 것.

후터 교수는 "대행 스님의 법문을 풀어 독일어로 번역한 〈흐르는 물처럼(Wie fliessendes Wasser)〉과 영문 법어집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No river to cross)〉을 읽었는데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돼 있었다"며 "일상생활에서 현대적인 용어로 풀이한 불교적 가르침이와 닿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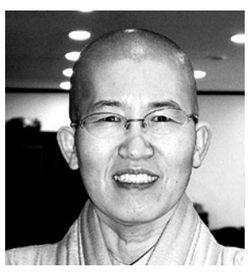
동명대 특강에서 후터 교수는 한마음선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1996년 뒤셀도르프 근교 카스트 시에 세워진 한마음선원은 독일에서 독보적인 차별을 보이고 있다. 새해 촛불재, 초파일, 칠월칠석, 칠월백중 등의 행사와 일요일 정기법회, 수요 참선법회, 템플스테이를 통해 독일사회에 한국선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매년 가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에 한국불교서적을 독일어로 출간하고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후터 교수는 "영어와 다양한 외국어로 불서를 번역해 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서구에서는 지식인층이 불교에 관심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책을 통한 포교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방문 기간 불국사, 해인사 일대를 탐방한 후터 교수는 "전통사찰을 돌아다녀 보니 한국의 우수한 정신문화는 예전부터 저변에 형성돼 있었음을 알았다. 현대인들이 이를 놓친 거 같아 아쉽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불교를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청소년 포교, 지금 씨앗 뿌릴 때"

인천불교계 최초 청소년문화원 개원한 일지 스님



"청소년들은 불교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인천불교의 미래를 밝힐 청소년 도량이 마련됐다. 조계종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은 4월 7일 인천불교계 최초로 청소년문화원을 개원했다.

인천불교회관 인근에 자리한 청소년문화원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한 포교 전문 도량이다.

"평소 청소년 법회 공간이 마땅치 않아 학생들이 옮겨다니며 법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공양간에서 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따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불교세가 약한 인천에서 일지 스님은 어려운 사중 살림에도 어린이 · 청소년법회를 꾸준히 운영해 왔다. 일지 스님은 청소년문화원에서 각 공간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오카리나 등 음악강좌와 불교무용과 난타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층에는 3월 문을 연 '나란다 불교대학'이 들어서 교양강좌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硏 이영자 신임원장

4월 7일 이취임식 개최 39주년 기념식도 열어



이영자 동국대 명예교수가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4월 7일 서울 연구원 법당에서 이영자 신임 원장 취임법회를 개최했다.

이영자 원장은 1974년 한국불교연구원 창립 당시 연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연구원 부설 원효학당에서 불교강좌를 이끌어 왔다. 현재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서울구도회에서 정기적으로 '법화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자 원장은 천태불교학의 권위자로 2001년까지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불교대학장 및 불교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또 한국여성학회장 및 불교여성개발원 고문직을 맡는 등 여성학의 토대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이영자 원장의 주요저서는 〈한국 천태사상의 전개〉 〈천태불교학〉 〈불교와 여성〉 〈일본불교사〉 〈선종사상사〉 등이 있다.

한편 한국불교연구원은 원장 이취임식 후 창립 39주년 법회도 개최했다. (02)762-5624 노덕현 기자

화엄사 주지에 영관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영관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문중 화합하고 어른 잘 모시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자승 스님은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관심을 표하고 종단 차원의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진오 스님, 독일 700km 대장정 완주



달리는 스님으로 잘 알려진 진오 스님이 이번에는 독일 700km 대장정에 성공했다.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은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독일 옛 수도 본의 한국대사관을 시작으로 통일 독일의 상징인 브란덴브르크 문까지 700km 대장정을 완주했다. 이번 대장정은 독일과 수교 130주년이자 파독광부 50주년을 맞아 한국과 독일의 새로운 미래 발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대학야구 춘계리그 휩쓸어



동국대가 4월 9일 목동구장에서 2013 회장기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에서 홍익대를 4대 0으로 꺾고 우승했다.

대회MVP는 결승 타점을 올린 강민국(체육교육4) 선수가 선정됐다. 강민국 선수는 대회 타격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회에 3루타로 1점을 낸 안상민(체육교육4) 선수는 우수선수상을, 대회 내내 안정된 투구로 팀의 승리를 이끈 고영표(체육교육4) 선수가 우수투수상을 수상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공로상, 이건열 동국대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다.

노덕현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세계적 여성 명상 지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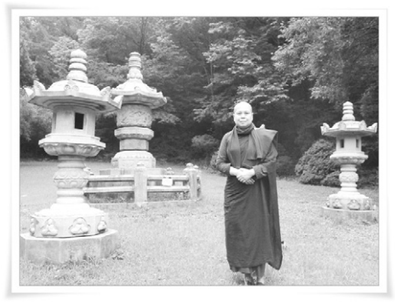
디빵까라 세얄레이 초청10일 명상수행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가르침을 그대로

사마타(선정)와 위빠사나(통찰)수행을 단계별로 지도합니다.

수행의 시작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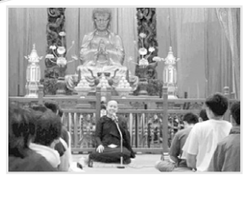
개인 면담 지도를 받으며 수행 할 수 있는
매우 귀하고 의미있는 기회입니다.
초심자에게는 명상의 주된 주제인
아나빠나 사띠(호흡관)와, 사대(지,수,화,풍) 요소관이 주어지며
이후 집중과 지혜의 계발에 따라서 개별적인 가르침을 받습니다.



◆ 수행일정안내 ◆

- 일 시 : 2013년 5월 6일 ~ 5월 15일 (9박 10일)
- 장 소 : 봉인사 한길정진원 (www.bonginsa.net / bonginsa@hanmail.net)
- 참 가 비 : 45만원 (스님 : 1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355-0000-5973-03 (예금주 : 봉인사)
- 준 비 물 : 개인세면도구, 개인컵
- 접수문의 : 031)574-5585, 070-7766-6547





***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배우는 뜻깊은 이자리에 모인 모든 존재들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두손모아 기다립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4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금륜사 1층에 있는 '다륜북카페'는 관상용 보리수나무, 고무나무, 떡갈나무 등으로 꾸며져 아담한 온실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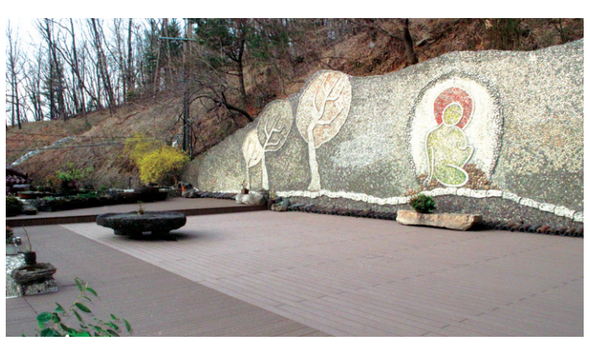
길상사 문화공간 '지대방'에서는 전시회와 소규모 공연이 종종 열린다.



매일 평균 100~200명의 불자와 지역주민들이 수다원을 방문한다.



무각사 로터스 북카페에는 불교서적 뿐 아니라 500여 권과 인문학 서적 등을 갖추고 있다.



길상사 계단으로 오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자기 모자이크로 꾸며진 미륵불 벽화다.

사진=박재완 기자

국내외 다양한 명상서적 〈사진제공=무각사〉

茶·문화·쉼터… 그 안에 삶의 여유와 포교 있다

도심사찰, 쉼터 공간으로 뜬다

도심에서 생활하다보면 빽빽한 빌딩숲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마음의 안정을 느끼기 위해 들어간 인근 사찰이나 법당은 그 분위기가 엄숙해 편안히 쉬기보다는 절이라든가 참선 등 수행정진을 해야만 할 것 같다.

또 일주문을 들어선 뒤 위치한 사천왕문에는 엄한 표정을 짓는 사천왕상이, 법당에 그려진 알록달록한 탱화는 어린이들과 타종교인, 비불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서울 관악구 길상사,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경기도 고양시 금륜사, 광주 무각사는 기존의 사찰에 대한 관념을 깨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어 불자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편안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로 공간을 꾸미고 읽을거리와 마실거리 등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사찰을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이른바 도심 속 쉼터형 사찰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예술가와 관광객이 알아보는 곳

길상사(길송사) 문화공간 '지대방'

길상사(주지 묘행)는 서울 관악산 자락 인헌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입구에서부터 길상사는 사찰인지 일반주택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사찰하면 연상되는 기와와 목조로 건축된 법당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주문도 불탑도 보이지 않는데다 건물의 외형조차 장방형의 다가구주택을 연상시킨다.

1982년에 창건된 길상사는 원래 판잣집 형태의 작은 사찰이었다. 1996년에 이를 허물고 3층짜리 건물을 올려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길상사 정위 스님은 오랜 기간 고심하면서 도예가 변승훈, 불화가 정병국, 공예가 최태훈 씨 등 여러 예술가와 신도들의 도움으로 길상사를 예술과 전통, 그리고 불교가 공존하는 사찰로 탈바꿈 시켰다.

길상사 계단으로 오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자기 모자이크로 꾸며진 미륵불 벽화다. 한 손을 턱에 괴고 앉아 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마치 옛 시절 고향의 어머니를 보는듯 하다.

입소문으로 알려져 일반인들과 외국 관광객들도 방문한다는 길상사에는 '지대방'이라는 카페가 있다. 정위 스님은 소박하게나마 공간을 열어두고 손님을 맞는다. 크고 거창한 행사보다는 바자회나 자수교실처럼 소규모 모임이 주를 이룬다. 누구나 찾아와 책을 읽고 차를 마실 수 있으며 매월 '생활자기전' '장신구전' '자수전'을 비롯해 시와 음악을 곁들인 공연과 판소리공연, 가족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 들을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인테리어, 메뉴, 오픈 초대장까지 기획을 맡은 정위 스님은 "지하실에 안 쓰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김장을 할 때 잠시 쓰던 공간을 놀리는 것이 아까워 지대방이라는 문화카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감각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은 길상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당을 오르는 계단과 바닥에 새겨진 물고기들이 그렇고, 층 곳곳에는 촛대와 매화를 꽂은 항아리 등 여백과 조화의 미를 강조한 독특한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3층 법당을 들어서는 문과 창에는 만(卍)자가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법륜이 새겨져 있고, 사찰 내부바닥은 천년고찰의 마룻바닥처럼 두툼한 나무들이 빈틈없이 깔려 있다.

미술평론가인 최태만은 길상사에 대해 "길상사를 방문하고 나는 이 절이 현대불교미술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출발점이자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고 평했다.

정위 스님은 "주변 경관과의 전체적인 조화를 가장 중요시 하면서 오랜 노력 끝에 만든 곳이다. 이런저런 분들이 오셔서 잠깐 쉬어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 180-2 길송사
오전 9시~오후 6시 (02)883-7354

직접 만든 전통차가 일품인 도심 지대방

국제선센터 북카페 '수다원(修茶園)'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 1층 로비에 자리하고 있는 북카페 수다원(修茶園)은 사찰의 지대방이자 지역의 응접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매일 평균 100~200명의 불자와 지역주민들이 수다원에 차를 마시기 위해 다녀간다. 인근 성당 수녀님들도 찾을 정도다. 학교 앞에 위치해 가끔 학생들이 몰려와 차를 마시거나 조용히 앉아 문제집을 풀다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격도 1~2천원 수준으로 저렴한 것도 인기의 요인이다. 가격이 적혀있기는 하지만 돈을 받고 영수증을 내주는 카운터 대신 나무 보시함이 놓여 있다. 마음 내키는대로 보시함에 찻값을 넣으면 된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맛과 품질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대추, 유자차 등 전통차를 담가 내놓고 있어, 저렴한 가격의 더치(Dutch) 커피와 깊고 신선한 차 맛은 입소문을 타고 있다.

카페 벽면에 비치된 책들은 불교 서적뿐아니라 국내외 소설책, 〈다빈치코드〉 〈로마인 이야기〉 등 스테디셀러도 있다.

한 방문객은 "시설이 아주 전문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이 정성스럽게 장식해놓은 화초와 직접 만든 차와 커피가 맛이 좋다. 천연염색손수건 등 환경을 생각한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하나 구입했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양천구 신정6동 319-11 국제선센터 1층
오전 9시~오후 6시 (02)2650-2200

편안히 쉬면서 교리를 배우는 곳

금륜사 '다륜북카페(茶輪Book Cafe)'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금륜사(주지 본각)는 민족문화유산 서오릉과 연계돼 종교와 문화, 예술, 그리고 만남과 휴식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용두초등학교 앞 비탈진 길을 돌아서면 목재를 가미한 현대식 느낌의 2층 건물이 있다. 외관상으로는 사찰의 느낌이 나지 않지만 건물 1층 벽면에는 그려진 탱화를 보고 사찰인지 알 수 있다.

금륜사 1층에는 차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다륜북카페(茶輪Book Cafe)'가, 2층에는 법당이 있다.

다륜북카페는 관상용 보리수나무, 고무나무, 떡갈나무 등으로 꾸며져 아담한 온실 같다. 이곳에 신도들이 보시한 책들과 예술가들이 기증한 도예작품들이 곳곳에 놓여있다. 금륜사의 공간 절반은 1층과 2층이 뚫려 천장이 높은 형태로 설계됐다. 한쪽 벽면에는 이호신 화백이 그린 '천불만다라'가 1·2층 벽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의 부처를 그린 50여 점의 불화가 봉안돼 있다. 이곳에 '천불전'이라는 자그마한 무대를 꾸며놓고 불교영산제와 청각·시각장애인 음악회와 어린이 교리수업 등을 열고 있다.

카페에서는 신도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차를 판매하고 있다. 찻값이 적힌 메뉴판은 있지만 계산대와 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없다. 카페 한쪽에 놓인 보시함에 넣을 만큼 넣으면 된다.

금륜사 총무 담당 효석 스님은 "법회 후 점심공양을 한 불자들이 법당에 앉아 쉴 곳이 없어서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카페를 마련하게 됐다"며 "차만 마시러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수녀님도 종종 오신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은 단체로 오기도 한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불교 포교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10
오전 10시~오후 5시 (02)357-9031

광주 직장인들의 휴식처

무각사 '문화공간 로터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무각사(주지 청학)는 인근 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휴식처다.

옛 상무대 군법당이었던 무각사는 1997년 택지개발로 민간 사찰로 전환된 뒤 지역사회와 호흡을 맞추는 노력 끝에 2010년 5월 문화공간 로터스를 개설했다.

무각사 문화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로터스 북카페는 문화관의 꽃이다. 이곳에서는 불교서적 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명상서적 500여 권과 인문학 서적과 타 종교의 서적을 비롯한 명상음악을 갖췄으며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도 전통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가 마련돼 있다.

뿐만 아니라 무각사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도강좌, 꽃꽂이, 요가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으며 사찰음식 교실도 열리고 있다. 로터스 갤러리에는 유명 작가들의 초대전과 역량 있는 작가 등에게 무료로 전시공간도 마련해주고 있다.

문화관의 북카페가 현대적이라면 사랑채는 전통적인 느낌의 찻집이다. 이곳의 인테리어는 옛정취가 묻어나는 전통적인 소재들로 이루어져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번지 무각사
오전 10시~오후 5시 (062)383-0107

로더월드
www.loader.co.kr

사찰 불사의 최고 도우미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가능

산악 전용 다목적 차량 어게이트 (뜻 : 일개미)

사찰의 모든 불사는 어게이트에 맡겨주세요. 제설, 분무, 과수재배, 운송, 비료살포, 방제, 트레일러 기능 등



어게이트 사양 : 길이 3,022㎜ | 폭 1,613㎜ | 높이 1,820㎜



어게이트 작업 범위
- 분무기(물주기, 나무 / 과실수 방제)
- 제설 블레이드 (평지 및 산악지형 눈치우기)
- 염화칼슘 / 비료 살포기
- 리프트(적재함 상하동작 최대 180~200㎝) 연등작업 등 상단작업 가능
- 에어 블로워(적설량 0~15㎝ 제설가능) 특허출원중
- 트레일러 운반 작업기(600㎏ 적재) 기본적재함(500㎏)
- 덤프 기능

어게이트의 특징
- KOHLER(콜러) AEGIS EFI 가솔린엔진
- 얀마 디젤엔진
- H일체형 프레임
- 8"서스펜션
- 변속레버
- 방향지시등
- 3" 초강력 스틸 프레임
- 전방 디퍼런스
- 라디에에터
- 후방 디퍼런스
- 유압브레이크
- 4WD 스위치

EVENT!!
특전 : 선착순 50대 특별할인판매



- 본 어게이트는 국방부 납품 제품으로 품질을 보증합니다
- 서울우유 B/S 지정업체
  · 미국 완제품 수입 품질인증 제품
  · 국내 최초 수입품 한국 안정검정 제품
  · 각 지역 서비스 지정점 운용
  · 본사 순회점검 운용 시스템

로더월드 www.loader.co.kr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 사 :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073(소정리 19-5) | 대표전화 031)637-7020 | 팩스 031)367-7030
서비스공장 : 경기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512번길 233-10(도봉리 546-1)

호주 불교 산실, 시드니 정법사 창건 20년 맞아



시드니 정법사는 창건 20주년으 맞이해 3월 30~31일 경내에서 봉화 축서사 문수원장 무여 스님 초청 법회 등 특별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제공=월간 맑은소리 맑은나라 발행인 김윤희

불교 불모지였던 호주에서 부처님법을 펼쳐 온 시드니 정법사가 창건 20주년을 맞았다.

시드니 정법사(회주 기후)는 3월 31일 봉화 축서사 문수선원장 무여 스님 초청 창건20주년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특별법회에는 前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구미 남화사 주지 성화 스님, 문경 운암사 주지 범초 스님, 前정법사 주지 혜산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여했다.

무여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수행이 지극하면 화장세계가 열린다. 불교 수행은 웰빙과 웰다잉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기후 스님은 "어렵고 힘든 시절 마음을 모아 준 신실한 신도님들이 있어 이 길을 여여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숙된 수행자의 모습으로 교민사회의 불자님들과 함께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는 기념 식수 행사와 3층 사리탑 봉안식과 미륵반가사유상 봉안식, 불사 공덕비 제막식도 함께 거행됐다.

이에 앞선 30일에는 호주 한인회관에서 前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초청 법회이 진행됐다. 이날 정우 스님은 '어떻게 살면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정우 스님은 "긍정적인 삶을 살면 행복을 꽃 피우고 부정적인 삶을 살면 불행의 씨앗이 발아된다"며 "관심과 배려, 친절한 어울림의 삶을 살고 계신 기후 스님의 수행자로서의 '행' 이 정법사를 세우게 된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드니 정법사는 1991년부터 호주 포교에 나섰던 기후 스님이 운영이 어려웠던 불광사와 달마사를 1993년 3월 통합하면서 탄생했다. 창건 초 한 동에 불과했던 법당은 현재 네 동으로 확대됐으며 200세대 이상의 신도들이 찾고 있다.

노덕현 기자

맑고향기롭게 독거노인 돕는 캠페인

11월까지 진행, 19일에는 장학금 전달식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가 독거노인의 경제적 빈곤 해소를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을 펼친다. 이에 맑고 향기롭게는 4월 13일 한성대입구 지하철역 입구 및 서울 도심 · 성북동 길상사 등에서 홍보활동을 시작한다.

11월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 대해 맑고향기롭게는 "사회복지기금을 조성으로 노인자살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법정 스님의 청빈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또한 맑고 향기롭게는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에 후원을 기다리는 독거노인의 사연을 소개하고, 월 2회 거리 홍보를 전개한다. 조성된 기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결연 후원, 의료비 및 난방비 지원에 사용된다.

한편 맑고 향기롭게는 4월 19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2013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을 선정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맑고 향기롭게는 길상사를 무주상보시한 故 김영한(길상화 보살)님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1994년부터 20년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총 483명의 학생에게 약 6억 6천만원을 지원해왔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33명이 선정돼 1년간 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02)741-469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신명나는 연등회가 기다려집니다

불교계, 부처님오신날 맞이 준비 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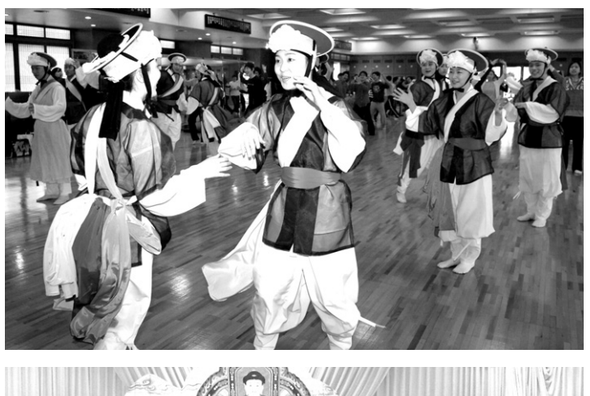
4월이 되며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과 불교단체마다 다양한 봉축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연등회를 앞두고 각종 문화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최근 연등회 참가단체들과 3차례 준비모임을 갖고 전통 등 문화 계승, 사찰방문 외국인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올해부터 대한불교청년회와 협약을 맺고 한국거주 외국인 청년과 한국 청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구성했다. 또 4월 28일 동국대에서 국제포교사회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레크리에이션 등 봉축연희단체들이 참가하는 최종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등회에서는 젊은 세대 취향에 맞춘 찬불가와 율동이 대중에 공개된다. 좋은벗풍경소리(총재 지현)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댄서 팝핀현준 등 젊은 예술인들이 참여한 찬불가 음반 풍경소리 7집을 발표했다. 2012년 9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풍경소리 7집에는 가수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 등이 참여해 아이 러브 붓다, 연등 들고 춤을 등 찬불가 8곡을 담았다.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실장은 "올해 음반은 현대화된 국악 등 종교를 넘어 국민적 축제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성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사 준비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27일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를 전국사찰에서 진행한다. 장애아동 보호시설인 승가원은 장애아동 돕기 위한 자비연등 모연하고









봉축준비가 한창인 불교계 곳곳의 모습.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조계사 연등 다는 모습, 안양한마음선원 풍물패 연습 장면, 한마음선원 청년회 율동연습 장면, 봉은사 연희단 연희한마당 모습

풍경소리… 팝핀현준 참여한 음반내

조계종복지재단… 3000배 정진 활동

보리수아래… 장애불자 음악회

도선사… 인사동서 거리 탁발

불교문화 마당에서 장애체험 부스를 마련해 장애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장애인불자모임인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도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니르바나오케스트라와 함께 장애불자들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장애인 불자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시낭송 등 의미 깊은 행사도 진행된다.

도선사(주지 혜자)는 5월 8일 독거어르신 돕기 노인잔치를 여는 한편 5월 중으로 인사동 일대에서 거리탁발을 진행해 모연금으로 독거어르신 및 난치병 어린이를 도울 예정이다.

연등축제 준비의 꽃은 바로 연희단과 화려한 연등. 매년 등경연대회서 입상하고 있는 한마음선원은 제등행렬을 앞두고 5월 5일 안양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에서 화합재 및 장엄등 점등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원 학생회들의 연희 무용 공연 등도 진행된다.

매년 대규모 연희단을 구성하고 있는 봉은사(주지 진화)도 봉축 율동 등 연습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봉은사에는 연희단, 율동단과 함께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북장엄단이 있다. 북율동단 단원은 70여 명으로 매주 주말마다 2시간 씩 맹훈련 중이다. 봉은사는 5월 5일 봉은 연희한마당을 열고 봉축연희단을 최종 점검한다.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사찰들과 동국대 불교학과 등은 연등공방을 사내에 설치하고 연등제작에 한창이다. 특히 조계사는 4월 17일 연등 등에 색을 칠하는 염색축제 '물듦' 과 20일 신도축제 '와학' 을 열고 부처님오신날 참여열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역대 최대인원 참가 동국인 등산대회

4월 12일 서울 북한산에서 열려

매년 열리고 있는 4 · 19혁명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에 역대 최대인원이 참가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4월 12일 서울 북한산에서 교수 · 직원 · 학생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 · 19혁명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를 개최했다.

44회째를 맞는 '4 · 19혁명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는 1960년 4 · 19 혁명에 참가한 동국대 학생들을 기리기 위해 1970년부터 시작됐다.

등산대회는 서울 수유동 4 · 19혁명 기념탑에서 추모식을 마친 후 학과와 단체별로 등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동국대 학생과 임직원 300여명은 4 · 19혁명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크레파스로 부처님 그리고 신심 키우자

목아박물관, 부처님 그리기 대회 개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처님 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은 '제19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를 개최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맑은 마음, 밝은 세상, 향기로운 어린이' 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만5세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그림은 크레파스화, 수채화, 판화 중 자유롭게 선택해 4월 25일까지 목아박물관으로 우편접수하거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 내 방문해 그리는 것도 가능하다.

목아박물관은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과 기념품을 증정하고 장관상인 '우뚝 으뜸상' 에는 300만원 상당의 부상을 제공하는 등 입선작에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 100점을 선정해 한 · 중 · 일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에 출품한다. (031)885-9952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SOCIALWELFARE CORPORATION W.F.B W.F

전국지부 및 회원 모집 안내

설립취지서



이사장 윤기순

· 이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다. 이 법인은 고령화사회 마스터플랜을 통해 건강한 노후 활기찬 안전생활 생산적 노년 편리한 환경에서 능동적인 고령 친화 사회구현을 위해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초한 생활 밀착형 안전망을 실체적으로 구축해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하고 환희심에서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 특히 시방법계 제방 불교인들이 일불제자로서 조화와 대통합을 통해 세계일화로 범종단의 화합을 성취하여 원력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는 신행을 창조하 는 정토세계를 구현 예토세계의 고통중생에게 무량공덕과 자비봉사의 대원력과 행원을 사회 속에 회향시켜 진정한 불교적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가치를 제공하는 불교 복지문화 마케팅 패러다임을 구축 우리모두가 따뜻한 마음과 어루만지는 손길을 다함께 보태 노인 적합형 사회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 이와 함께 이 법인은 예비 노인들의 노후대비 정신함양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고령화 사회 마스터플랜의 효율적인 단계별 성과관리 방식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다양 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관리 시스템을 강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인 사회복지의 서비스 향상과 노인의 고소득 고용 지원 등을 통해 노인 행복추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며 노인들이 의식주에서 충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 노인무료급식 및 목욕서비스 지원사업, 노인의 날 효행잔치 지원사업 저소득층노인 긴급구호, 난방비, 김장김치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실현가능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 불교종단은 복지문화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또한 불교종단은 복지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무소득, 무소임 승려를 대상으로 의료비, 요양비, 수행연금, 수행거주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불교 종단들도 복지문화에 대한 관심과 후원이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부합하여 포교 및 전법활동에도 효과적이라는 인식 확산과 복지문화에 적극 동참하면 사회인과 소통하고 불교의 사회국제 성과를 높일뿐만 아니라 불교문화 발전과 복지 나눔에도 기여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이 사 장 윤기순 회 장 각운 무산 총 재 경담 각성 대외협력위원장 성대 무공

모 집 부 분		
구 분	내 용	비 고
종 단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종단, 단체는 회원지부 종단으로 등록가능	등록비 무 료
사 암	각 사암에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사찰은 회원사찰로 입회하여 사회복지관련 정보 제공	사찰가입비 무 료
회 원	일반불자로서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분에게 사회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봉사체험시설안내	회원가입비 무 료



본 복지재단은 미얀마 현지를 방문하여 한국을 넘어 해외까지 승려를 대상으로 의료비, 요양비, 수행연금, 수행거주를 지원하고 무소임 승려를 대상으로 복지혜택문화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본 복지재단은 승려복지문화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종교적 사회적 책임과 불교문화 발전과 복지 나눔에 기여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412호. 317호. 338호) 전화 : 02)2198-5022~4 / 팩스 : 02)2198-5025 / H.P 010-4167-3666

“우리도 예비장애인, 장애 편견 없애야”

4월 20일 장애인의날, 불교계 다양한 사업 진행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추정수는 268만여 명으로 이 중 질병과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가 90.5%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까지도 멀쩡했던 나의 가족이,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나 자신이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장애인’인 셈이다.

하지만 몸이 다소 불편한 이유로 우리는 편견을 갖고 그들을 다른 사람과 구분 지어 또 다른 고통을 준다. 올해로 제33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 슬로건이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와, 편견을 버리고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바로알리기 교육부터 마라톤대회, 락페스티벌 등 다양하다.

승가원(이사장 태원)은 2010년부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장애바로알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 사회복지사가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61곳을 방문해 270여 회를 실시했다.

오주현 승가원 사회복지사는 “장애 바로알기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장애·장애인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라고 물어보면 ‘불쌍해요, 도와줘야해요, 무서워요, 이상해요’ 등 부정적인 대답을 듣게 된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면 자신도 모르게 장애인들을 차별하게 된다”고 말했다. 승가원은 이런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설장애인의 정의·유형, 장애 에티켓 등의 내용이 담긴 이론교육 뿐 아니라, 영상을 통해 승가원 장애아동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보여준다. 또한 휠체어를 타거나 자신의 이름을 점자로 찍어보는 활동, 거울을 통해 글씨를 반대로 써보는 시지각협응체험 등을 통해 장애를 직접 해본다.



승가원은 2010년부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장애바로알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9일 승가원 사회복지사가 서울 배명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승가원…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 준비

강북장복…연극으로 인식 개선노력

속초·금강장복…마라톤 개최

이 밖에 승가원은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baro.sgwon.or.kr)’를 만들고 ‘장애바로알기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다. 기존의 승가원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장애바로알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다.

승가원은 “올 상반기에 홈페이지가 완성되며 교육소개와 일정, 교육신청을 비롯해 장애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들을 담을 예정”이라며 “장애바로알기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추후 활성화되면 장애 관련 상담코너도 만들 계획이다.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자료, 법률 기사 등 장애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애전문 홈페이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은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연극을 배우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청소년들은 ‘마음 담벼락 허물기-내가 꿈꾸는 우리’라는 주말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해 오감을 활용한 연극을 배우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창작해 공연하고 발표한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감정표현과 그림자를 통한 표현과 이야기·대본 만들기 등 연극의 기본을 배우며 장애·비장애인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연)과 금강장애인복지센터(센터장 서창모)는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속초시 영랑호 내 범바위 구간에서 ‘제2회 속초 오뚝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파트너가 돼 마라톤 완주를 하는 행사로 지역 내 장애인과 지역주민자원봉사자 5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마라톤은 하프코스 3㎞와 풀코스 6㎞ 두 개의 코스로 실시된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용철)은 4월 16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장애인밴드 축제 ‘2013 사람사랑 樂 페스티벌’을 연다. ‘장애인문화예술 육성과 발전, 장애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장애인밴드 5개 팀과 게스트 4개 팀이 참가해 신나는 한마당 잔치를 펼친다.

지난해 500명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시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장애인들로 구성돼 전국 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블루스카이’, ‘소리울림’ 등 5개 팀이 출연한다. **이나은 기자**

장애바로알기 이것부터 실천해보세요

1. 장애인으로 부르지 않고 그들의 소중한 이름을 불러준다.
2. 휠체어를 밀어주기보다 스스로 이용하도록 기다려준다.
3. 눈은 마음의 창. 대화를 할 땐 상대방의 눈을 본다.
4. 장애는 나이와 관련이 없다. 연령에 맞는 존칭을 사용한다.
5. 언어장애가족과 대화할 때는 경청하고 적당한 속도로 말한다.
6. 종교를 묻는 것이 실례가 되듯 장애를 묻는 것도 실례가 될 수 있다.
7. 글을 모른다면 간단한 그림으로 장애가족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8. 유심히 바라보지 말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선으로 장애가족을 대한다.
9. 장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10. 장애가족도 공부하고 사랑하고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정보제공=승가원〉

“직접 빚은 도자기 구경오세요”

성북장복, 화분전시회 4월 22일까지 개최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자원 봉사자들이 만든 화분과 전시 포스터.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봉사자가 함께 흙으로 빚은 화분을 전시하는 자리가 열린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4월 16~22일까지 이마트 하월곡점 지하 1층에서 ‘흙으로 빚는 아름다운 세상-행복을 담은 화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성북장애인복지관 도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의 작품으로 구성돼 화분과 소품 등 약 30여점의 도예 작품을 전시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일 예정이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도예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세밀한 손 기능을 강화하고 표현력을 다양화 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복지관은 지난 2년 간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도예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또한 도예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의 사회성 함양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마트 하월곡점,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연구소 등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작품 이외에 기성 도예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화분 만들기 체험 활동을 진행해 대중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현관 스님은 “이번 전시회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성취감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돕는 한편, 대중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도예 작품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또 한 번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915-9200 **이나은 기자**

“우리는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일산노인, 가족연계 프로그램 실시

지역 내 가족과 저소득 독거노인이 결연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족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은 4월 6일 복지관내 교육실에서 ‘가족애(愛)탄생’ 사업설명회 및 결연식을 실시했다.

가족애(愛)탄생 프로그램은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가족구성원에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이 가족봉사단을 이뤄 지역 내 재가 노인과 일대일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결연식에서는 가족봉사단 10가구와 독거어르신 9명이 참석해 프로그램 일정 및 활동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아, 가족봉사단과 어르신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애(愛)탄생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간 천연염색 체험, 꽃박람회 나들이 등 관내 외에서 정기적으로 문화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가족봉사단과 독거노인가족 단위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 내 소외계층인 노인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도록 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지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세대 간의 교류를 도모하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31)919-8677 **이나은 기자**



‘가족애탄생’ 결연식에 참석한 저소득 어르신과 지역 내 가족구성원

“축구선수가 꿈인 아들 위해 일어나야죠”

4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 이정화 (여·44세·뇌출혈)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4월의 환우로 이정화(44·여·사진) 씨를 선정했다.

이 씨는 중학교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 남편을 만나 분식집을 운영했다. 그러다 2012년 1월, 이 씨는 지인의 일을 도와주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재활을 기대하던 이 씨는 뇌출혈까지 발생했고, 매월 100만 원이 넘는 재활 치료비가 발생했다. 치료비는 밀리기 시작했고 600만원이 된 빚은 점점 불어나고 있다.

남편 역시 C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몸을 챙길 겨를이 없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은 엄마의 투병이 길어지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 해 권고전학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해야”

1366 경북센터,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교육 실시

국제결혼으로 인한 인권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 중개 문화를 조성하는 교육이 실시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센터장 진원)는 4월 11일 김천시 파크호텔에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있는 50여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진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결혼중개업법규를 이해해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상담실무로 종사자들의 건강한 결혼중개문화 역할 부여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결혼중개업 종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후 기념사진을 촬영한 경북 23개 시·군에 있는 50여 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들과 진원 스님(앞줄 가운데)

이날 교육은 경북지방경찰청 외사계 이영규 경위의 ‘결혼중개업법 이해 및 국제결혼 피해·단속사례’ 등이 진행됐다. **이나은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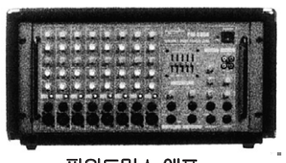
제 기 동 02-966-0020 | 창 원 055-243-6333 | 호 남 063-288-5623 |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 울 산 052-260-1037 | 충청북부 043-263-9966 |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 강원서부 033-252-3682 |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硏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시장자본주의 대안 불교 안에 다 있다

우리는 선우 법석 '공정과 중도의 미래사회'

윤성식 교수 (고려대)

불교에서 돈은 어떤 존재인가? 기독교가 자본주의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과는 반대로 무소유로 대표되는 불교는 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려대 행정학과 윤성식 교수는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아함경〉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으며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교자본주의를 통해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정의내리고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4월 6일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열린 우리는선우 주최 윤성식 교수의 '공정과 중도의 미래사회-불교자본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아가 보자.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윤성식 교수는 … 고려대 행정학과와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일리노이대 회계학석사, 동국대 불교학석사, 버클리대 경영학박사, 동국대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텍사스대 경영대학원 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불교자본주의〉가 있다.

먼저 제가 어떻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부터 얘기드리겠습니다. 지독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기독교와는 잘 안맞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에 골치 아픈 일도 있고 출근하는 길에 보리수선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고보니 그곳이 남방불교 위빠사나 선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이후 교리에 관심을 갖고 조계사불교대학 야간과정 2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서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불교가 무소유만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아함경〉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부처님에게서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처님 당시 열렬한 신자들은 상공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그들을 위해 돈에 대해 언급을 하셨을 겁니다.

막스베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성공에 기독교가 기여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잘못되면 천민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기독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토인비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을 불교가 서양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21세기의 많은 문제를 불교가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심취하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워싱턴, 맨하탄 지성인들 모임의 대화 주제로 불교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불교자본주의를 연기자본주의라고 봅니다. 이렇게 연기적 세계관을 갖는다면 아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손실을 메워주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기업이 국가에 도움 받고 이익은 기업 혼자 가져가냐는 거죠. 기업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 올라가면 수출도 잘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환율 정책을 쓸 것인지 저환율을 쓸 것인지 국가는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이익이라는 것은 많은 요인이 결합돼서 발생하는 것이지 완전히 기업 혼자만의 것은 없습니다. 손실도 자기 잘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내가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불교적기업이란 뭘까요? 스티브잡스는 대표적인 불교적 기업인이라고 봅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한 적 없다. 내 가족이 사용할 제품이라 생각하고 만들었다' 라고 말했죠. 그의 삶 자체가 무척 검소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사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티브잡스는 젠스타일의 열렬한 신봉자였죠. 아이폰은 군더더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 립스틱으로 유리창에 '고마워 스티브' 라고 썼습니다. 자기가 돈 주고 물건을 샀는데도 소비자들이 그렇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스티브잡스가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무소유를 매우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무소유의 개념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번뇌를 주니 단순소박하게 사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소유, 또다른 하나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 무소유가 됩니다.

〈아함경〉에 돈 관련 법문 많아
부처님은 위대한 경영학자
형편 따라 소비하는 것이 '중도 경제'
불교경제공동체로 대안의 삶 찾아야

결국 불교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위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이 불어나면 그냥 불어나는구나 알아차리고 너무 신나하지 말라는 것이죠. 줄어들면 낙심하지 말고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알라는 거죠. 옷 쌓아두고 재물 쌓아두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선법을 권장하면 좋은 것이고, 악법을 권장하면 나쁜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도적 경제를 말해보겠습니다. 중도는 분수에 맞고 건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물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좋은 물건을 써도 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과하게 비싼 물건을 사면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자는 최고 기능의 휴대폰 써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된 휴대폰이 한정판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부자라도 휴대폰에 다이아몬드까지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지나치면 안된다고 저는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부자라고 마구 쓰면 불교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길도에 가서 재미있는 걸 봤습니다. 대한민국 전복 80%가 완도 · 보길도 쪽에서 납니다. 전복양식이 매우 거친 노동이라 노약자는 섬에서 농사만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복 양식자들에 비해 소득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은 전복양식자들은 돈을 거두어 노약자들에게 1년에 80만원 씩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이 돈이 큰돈이 아닌 듯 보이지만 시골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4분법 돈을 벌면 4군데 나눠 쓰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계비, 생산비(투자비), 저축, 그리고 나머지는 빌려주어 이자를 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돈은 누구한테 쓸까요? 우선 자기한테 쓰고 나머지는 친척 친구 그 다음이 승가에 보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시를 많이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많이 내라고 해도 거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가 생기기전에 불교는 이미 매우 바람직한 자본주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자본주의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정하고 자비로운 정법국가를 부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우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익을 탐하는 것 기교를 부리는 것 것을 극도로 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매우 공정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비로운 시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불교는 서로 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의존이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하는 것은 조건과 인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수하지 못한 회사도 효용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해충벌레도 다 생태계에서 역할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경제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좀더 길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각각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불자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불교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는 인도 중국 한국 일본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도 불교경제공동체 단서가 있습니다. 외도하고는 거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음식과 약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 병자와 어린아이는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이는 종교에 있어서는 불교적 정신을 지키는 것이며 어차피 불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모범이 될 때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이 지혜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동조합 소비자조합 금융활동 등은 불교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는 책들을 읽어보면 연기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가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불교 경전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도 불교자본주의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절제, 슬로우라이프를 넘어 돈에 대한 문제도 불교로부터 찾고 불교에 대해 고마워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선우는 4월 6일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고려대 윤성식 교수를 초대 '공정과 중도의 미래사회' 강좌를 펼쳤다.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암, 치매, 각종 통증! 척추교정으로 대부분의 질병 다스릴 수 있다.

30년 통증해결사 (MBN 천기누설 18회 '척추편' 방영)

진골척추 교정법연구소 임상만 소장은 현대인들의 허리 관련 통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법을 알려 주고 있어 화제다. 진골척추교정요법은 경추, 흉추, 요추 천장관절의 미세한 비틀림에서 비롯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오는 근관절질환과 내장질환, 피부질환, 치매의 병변등은 척추 교정법만으로 해결되며, 통증이 개선되고 몸이 편안해 지는 교정요법이다. 진골척추교정법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뼈를 만지고 굳혀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근육이 발달한 젊은 사람일수록 치료기간이 짧고 노약자나 여성들의 경우 근육이 약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치료시간이 짧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이라고 임 소장은 밝혔다.

척추교정분야에서 30년의 경험으로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5분정도의 척추교정요법으로 아주 극심한 만성통증 환자의 경우라도 통증이 해결되며 치료 성공률도 99%의 성공률로 언론매체에서도 알려진바 있다. 임 소장은 오랫동안의 연구 끝에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안했다.

대표적인 척추질환으로는 두통, 목의통증, 어깨통증, 엉덩이통증, 손과 발의통증, 관절통 디스크, 좌골 신경통, 사고로 인한 목의 통증등 100여가지가 넘는다. 이 밖에 위장장애, 고혈압, 간질환, 요실금, 신경질환에도 척추교정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임 소장의 탁월한 능력은 고질적인 아토피, 습관성 유산 불임등을 치유시켜 수많은 한의사들이 배우고 추천해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희대 한의대 교과 과정으로 채택되었고 그 기술의 뛰어남은 대내외적 으로 입증해 왔다. 이와 함께 암 통증 개선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항암치료의 부작용감소로 환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MBN TV 방송에 출연하여 척추통증에 관한한 유명 인사였던 임 소장은 척추의 형태만 보고도 통증이나 병의 유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임 소장은 향후 진골척추교정법의 뛰어난 부분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13년 3월 30일 토요일자 6면
2013 POWER & TOP LEADER 기사중에서

국내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 하수오 : 1 kg 3만원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지계 통한 승가 신뢰 회복이 불교 살려"

자운대율사 탄신100주년기념 학술세미나

한국불교 대표적 율사인 자운(慈雲, 1911~1992)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스님의 사상과 행장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운대율사탄신100주년기념사업회(대표 세민)는 4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前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인환 스님, 前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前동국대 교수 법혜 스님, 前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스님, 중앙종회의원 법진 스님, 전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미등 스님,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등이 스님의 율풍진작을 조명했다.

학술세미나는 탄신 100주년인 2011년 10월 개최예정이었으나 문도대표인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입적으로 연기 개최됐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종단 계단을 정비하고 구족계단, 식차마나니계단, 사미계단, 보살계단을 정립해 수많은 사부대중을 불문으로 이끌었던 율사로서의 스님의 면모가 집중 조명됐다.

교단 율풍 바로 세운 자운 스님

'문수보살과 자운대율사'를 주제로 발제한 인환 스님은 "자운 스님은 왜색불교를 정화해 한국불교 전통을 중흥시키는데 일생을 바치셨다"며 "계율 정비와 확산에 나서 단일계단 설치, 이부승수계 확립 등 율풍진작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인환 스님은 이어 "특히 자운 스님은 문수예참문수지, 문수만다라 유통과 삼밀수행, 문수사리최상승경에 근거한 무생계첩 유통 등 문수행자로서 일생을 살았다"며 문수행자로서의 자운 스님의 면모를 조명하기도 했다.

이어 前동국대 교수 법혜 스님은 자운 스님의 율풍진작과 관련된 행적을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법혜 스님은 "자운 스님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사미율의, 비구계본 등이 모두 소실돼자 1951년 부산 감로사에서 어려운

한국전쟁 속 계본 2500권 간행

2부승 수계의식, 단일계단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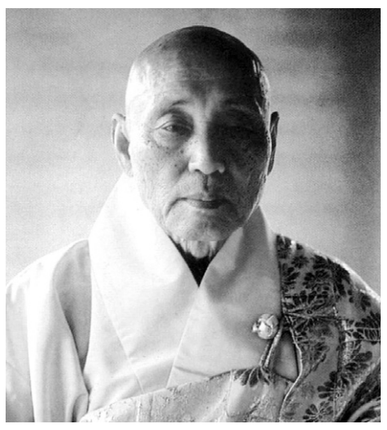
봉안사 결사 등 중흥 기틀 세워

여건에도 계본 2만 5000권을 간행 유포했다"며 "계율에 대한 출판물이 희귀하던 1957년에는 한글번역 계본을 4만 8000권을 배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법혜 스님은 "자운 스님은 1981년 제1회 단일계단 수계산림을 시작으로 1991년 수계살림까지 전계대화상으로 비구 · 비구니 이부승수계제도를 복원하고 자비도량 참법을 기반한 참회법회를 펼치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교법회 정신은 승가 신뢰회복 신호탄

前해인승가대학장 법진 스님은 자운 스님의 유교법회(遺敎法會) 정신 계승을 조명했다. 법진 스님은 "1941년 만공, 청담, 자운 스님 등 30여 명이 서울 선학원에서 한국불교 전통회복과 수행본분을 찾기위한 유교법회를 열었다"며 "이 정신이 1946년 가야총림 지정과 1947년 봉암사 결사로 이어져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이 됐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자운 스님은 계율정신 고취를 통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의 목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믿고 평생을 이를 실천했다"며 "이후 모범총림으로 해인총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前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은 자운 스님의 계율에 근간한 수행정신에 주목했다.

태원 스님은 "39세까지 선원에서 수행한 자운 스님은 1939년에는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문수기도에 입재하셨다"며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는 만자속장경 중 율장을 열람하면서 본격적으로 계율을 연구하셨다"고 말했다.

태원 스님은 이어 "스님이 계율을 중시한 이유는 승가가 일반 대중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지계에 있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前해인율원장 혜능 스님은 신 · 구 · 의 삼밀(三密)을 엄정히 수행했던 문수행자로서의 자운 스님 면모를 소개했다.

혜능 스님은 "자운 스님은 율사이면서도 문수행자의 행업을 선보였는데 이는 불교의 중극적인 지혜가 청정계행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계율 수행 넘어 수행의례 기틀 세워

세미나에서는 자운 스님의 대승보살계 홍포와 무생계첩 재흥, 자비도량참법 유통 등 대중불교운동에도 학계의 고찰이 이어졌다.

허흥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대승보살계홍포와 무생계첩의 재흥(再興)을 통해 자운 스님이 계율의 근간으로 살펴본 무생계의 맥을 짚었다.

허 교수는 "자운 스님의 계율사상은 범망경을 뿌리로 지공 화상의 무생계첩을 근거로 전개됐다"고 밝혔다.

前불교문화재연구소장 미등 스님은 자운 스님이 자비도량참법 · 자비수참 · 문수예참 등 참법을 유통시켰던 배경에 대해 "자운 스님은 계율수행에만 국한하지 않고 참회, 간경, 염불, 주력 등 수행 총체의 기틀을 세우고자 했으며 특히 참법의례를 주 수행법으로 불교 근본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미등 스님은 "현재 불교계에서 참회에 기반한 의례보다 예경의례가 설행되고 있다. 이는 수행적인 모습보다 소원을 비는 정도의 기복적인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다"며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고, 해탈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접근"

인도철학회, 4월 12일 서울대 신양관서 개최

"고통은 수행과 인식의 대상으로 해탈, 열반과 관련해 파악돼야 한다."

백도수 금강대 교수는 4월 12일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가 서울대 신양관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소장 박찬국)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불교에서 고의 개념이 생리적 고통의 개념보다 수행의 인식대상으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했다.

백 교수는 "초기불전에서는 고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고통해결법, 해탈도를 기술하고 있다"며 "해탈은 여러 개념으로 파악되었으며 주로 고통을 제거하고 아라한과의 찰라에 성취된다고 설명된다"고 말햇다.

백 교수는 "고의 분류는 고통의 치유, 고에서의 해탈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자기의 기질과 습관에 따른 수행법의 선택과도 관련된다"며 "고는 이해하고 인식해야 할 첫 수행대상이며 해탈을 위해 알아야 통로이므로 해탈은 고를 바르게 이해하고 고의 원인을 제거하는데서 성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백도수 금강대 교수의 발표와 함께 김재성 박사의 '초기 및 테라와다 불교의 고와 해탈', 안환기 서울대 교수의 '담론[談論] 그리고 욕망-유식사상과 푸코의 이론을 중심으로', 심준보 원광대 교수의 '쉬바파 일원론의 자아론 연구', 정성준 동국대 교수의 '생사에 대한 불교딴뜨리즘의 과제', 김재권 동국대 교수의 '입무상방편상의 구조와 그 사상적 의의'가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세계 최대 사원 보로부두르, 한국기술로 복원

세계 최대 불교사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이 한국 디지털 기술로 복원된다.

해외 문화재를 국내 기술로 디지털 복원하는 것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과 베트남 후에 황성에 이어 세 번째다.

유라시아디지털문화연구소(소장 박진호)는 4월 9일 "보로부두르 발굴 200주년인 2014년까지 3D 디지털 장비와 자료 고증을 통해 사원의 원형을 가상공간에 되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2년 인도네시아 관리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1차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6월부터 현지 조사 및 영상화 작업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지원한다.



보로부두르 사원.

연구소는 보로부두르 사원을 디지털 복원하기 위해 레이져 스캐너로 실측한 이후 3D 영상카메라를 통해 재현할 예정이다. 화산재에 묻혀 사라진 금은박 · 안료 등을 고증해 복원한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日서 화엄사 돌사자상 이관 받아 일반공개

국보 제35호 구례 화엄사 삼층석탑의 사자상을 모본으로 제작된 돌사자상 등 일본에 유출됐던 석물 4점이 국내로 돌아왔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4월 8일 일본 도쿄(東京) 주일한국대사관이 보관 · 관리하고 있었던 돌사자상 등 석물 4점을 외교통상부로부터 이관받아 최근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유물은 1930년대 국내에서 제작되어 반출된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돌사자상 복제 1기와 그 기단, 조선 후기 제작된 망주석(무덤 앞에 놓는 돌기둥)과 향로석(무덤 앞에 향로를 올려놓는 돌) 각 1기다.

이 석물들은 1959년 9월 일본 중의원을 지냈던 호시지마 니로(星島二郎)가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희망하며 주일한국대사관 측에 기증했던 것이다.



문화재청이 이관받은 화엄사 돌사자상 복제품.

돌사자상은 구례 화엄사에, 향로석과 망주석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시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미국 포교, 일본종단 벤치마킹 필요할 때

미동부해외특별교구, 미주한국불교 미래 모색 세미나 열어

조계종 미동부해외특별교구(교구장 휘광)와 미주현대불교(발행인 김형근)는 3월 30일 뉴욕 불광선원에서 '미주한국불교의 미래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에서 한국불교는 서경보 스님을 비롯해 고성, 숭산, 법안, 도안 스님 등의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정토진종과 조동종의 미국 진출의 사례를 통해 한국불교 포교 방향이 모색됐다.

서영민 라과디아커뮤니티칼리지 교수는 '일본계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사회의 비교' 발표에서 "미주 한인사회는 고립화되고 미국화된 일본이민사회와는 달리 지속적인 이민 유입으로 본국과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대치상황 변화 등으로 10년 안에 이민러시가 일어나 미국 이주자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스텔라 박 칼럼리스트는 '미주 일본불교 조동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이민사회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 포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새 미국 이민자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며 "주류사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젠 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지 포교에 성공한 조동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씨는 "조동종의 경우 불법과 참선의 세계를 똑똑 떨어지는 영어로 설명하고 가르쳤으며 미국인 제자들을 길러냈다"며 "현지인 제자와 그들의 저술, 법맥 전수의 자율권, 형무소 · 병원 등에서의 수행공동체 운영 등의 미국사회 정착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섭 미해군대학원 교수는 '일본 정토진종의 미국 포교과정 연구'를 통해 "국제포교는 단순히 국경을 넘은 불교전파가 아닌 종단 특성을 해당국가 상황에 맞게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100여 년 동안 미국사회에서 포교활동을 펼친 일본 정토진종의 경우 청정승가조직을 기반으로 포교를 전개했다"며 "한국 불교는 원력을 가진 청정 승가를 선발하고 조직화해 종단 차원의 지원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와이대 교수 성원 스님은 '하와이 일본불교 토착화 과정과 당면과제'를 통해 "정토진종 중심의 일본불교는 20세기 초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신자수를 확보한 최대종교로 자리매김했다"고 소개했다.

성원 스님은 "일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각 농장에 개설된 포교당은 신자들을 위해 심야영화상영과 꽃꽂이 강좌, 검도 · 유도 · 스모 클럽 조직 등에 나섰다"며 "이를 통해 지역포교 토착화를 이뤄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성원 스님은 하와이대 명예교수인 조지 다나베의 글을 인용해 초기 포교에 성공한 하와이의 일본불교도 현재 △일본불교 전통에 집착 △교리의 현대적 해석 부족 △현대음악 트렌드에 낙후된 불교의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부재 등으로 교세가 축소되고 있음을 들며 새로운 변화에 맞춘 포교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육경신은 행을 닦는 수행이고 천지개벽에 살아 남을 수 있는 비법은 마음을 열어 자성이 다니는 문을여는 십경신으로 하늘 땅 귀신도 부린다 일체병을 빛으로 생명을 연장 일체 종교가 하나로 되는 수육보영 진법으로 천안 도안 심안 영안 혜안을 열어 비구 비구니 보살 대중들도 성불 득도하는 천하 제일의 계사년 대운맞이 천안통 대법회

십경신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벗기는 생명과 운명을 연장하는 십통 십정 십인 십신 십간 십선 십행 십지 등각 근본 진광 진법으로 모든 생명은 빛에서 왔기에 경신일은 하늘이 응하고 지구가 답하며 마음을 빛으로 열어 몸에 빙의된 귀신 잡신 일체 영가들까지도 자시와 오시에 모든 죄업과 번뇌마장까지도 진광의 빛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성불득도는 물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장애없이 성장 발전 승리하는 지구촌 최상의 기도인 것이 십경신이고 하늘 땅 자연과 귀신까지 통하여 악신을 선신으로 부리는 법이며 성불득도 제왕금시발복 만사형통하는 비법.

이제는 방편불교가 끝나 말년 말법을 지키는 하일드 말잘쓰 미륵달마 도법으로 자성이 들어 다니는 문을 보아 성불 득도하는 금강진법 사구계로 염불, 목탁, 참선, 만경, 글과 문자로 찾지 못하는 화두 자성의 문 마음의 문이 현문 현빈을 한 번의 경신수행으로 천안통을 얻어 성불 득도하는 천하제일의 수행인 것이며 도는 마음이고 부처이며 부처를 깨닫는 것이 각이자 선이고 도통인 것이다. 고로 수행 마장은 자기조상 해탈 못한 영가가 마음속에 제일 큰 도둑으로 조종하고 강도 중에 제일 큰 강도는 세월인 것을 경신일에 일체 마장을 몰아내어 병 없는 건강 운명 천지공사를 빛으로 몰아내어 큰대업과 명예 출세 통치 경영 종교 예술 정치 경제 등 큰 뜻이 있거나 성불 득도로 천하를 빛으로 화현, 나이에 관계없이 무량수 시대에 360세와 천세에 십경신 빛으로 도전 천하를 다스리는 도황 열쇠를 얻어 평생 직업에 구애받지 않는 지구촌 최대의 일류스승 등 도인되는 것이고 몸에 붙은 천신 만신 빙의신은 한방 양방 병원에서 잡지 못하는 것을 경신도법만이 자기 대에서 부리고 자손으로 안가는 해원상생법이고 모태 유산 일체 청춘 몽달 조상 영가들과 결혼, 직장, 질병, 술병, 노름으로 탕진하는 정신병 육신병 귀신병을 소멸하는 십경신 대법회로 성불득도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만인을 제도하는 교육 상공이 되는 법이고 한글 28자와 36궁 도시촌을 알아야 세계평화 이룬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한국 명당터 만산도집 출간

■ 매주 목요일 금요일 7시부터 2시간 특별 운명천지공사 강의
■ 기도입제 : 2013년 4월 23일 화요일 밤해시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
■ 기도해제 : 2013년 4월 24일 수요일 밤해시 (무박 2일)
성불득도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십경신 도통인 것이다.

■ 기도비 10만원 (침식제공) 농협 029-01-167866 곽 한영(태일)
부산 경문사 동시법회 051)635-3110 010-8533-1601
■ 당신도 대풍수가 될 수 있는 한국 명당터 만산도집 출간 ■

접수처 : 02)821-6622. 010-3239-3110. 010-7228-8567
웅조미륵태일달마 십경신도통회 세계불선도총본산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조계종 진 불 선 원 태양의 집

완성을 꿈꾸는 자여! 깨달음과 사랑의 소리를 들으라!

때가 가까워져 태상가정은 가족이자, 새 시대의 사명자인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인류가 이렇게도 아픈 것인가?
전쟁 ·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이
기아 · 질병 · 가난의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가진자들의 착취, 불공정한 계약 속에 불안한 이들이
거대한 자연재해의 비참함 속에 있는 이들이
민족 · 인종 · 빈부 · 종교 · 신념 등의 차이로 인해 배척 · 차별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나의 형제 · 자매 · 자녀 · 부모 · 아내 · 남편이라면 그런 고통 속에 있길 바라겠는가?

세상의 아픔과 고통은 이 모든 이들이 나의 형제 · 자매 · 부모 · 자식임을 더 나아가 또 다른 나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욕망의 결과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는 당신은 이 땅의 사명자임을 아노라.

이제 하나로 모여 중생의 의식을 일깨우고 사랑으로 성장시켜 더 이상 신의 눈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니라. 그 초석으로 사랑의 중심이 될 태상가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욕망의 결과로 병든 이 세상을 사랑의 처방으로 치유하길 원하노라.

모든 분야(경제, 정치, 문화, 교육, 종교 등)의 준비된 사명자들이 태상가정에서 함께 한다면 휘몰아치는 사랑의 에너지에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우주와 함께 돌아가는 사랑의 실체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완성(깨달음)과 더불어 하늘의 뜻을 완성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

나는 누구인가, 신의 사랑은 무엇인가, 깨달음과 그 이후의 삶, 욕망의 실체와 그 결과, 수행자의 육체적 사랑, 의식의 성장 단계, 수행중인 나의 의식의 단계 확인, 수행자의 참된 모습, 천국과 극락의 모습, 사랑을 깨달은 이의 영혼과 육체 · 만물과의 신묘한 작용 등. 모든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벼락치고 폭발하는 듯 강력한 사랑
맑고 순수한 가운데 일어나는 환희로운 법열
너와 내가 사라지고 완전한 신성으로 하나되어
돌아가는 황홀한 에너지의 작용성을 경험하여 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이 활짝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태상가정을 책으로 먼저 만나보십시오.

전화나 인터넷카페에서 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단, 택배비는 착불)

※ 이 책은 전자책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무료)

연락처 053) 983-9117
H . P 010-6560-9117
http://cafe.daum.net/t.s.family

수행의 계절 맞아 불교 강좌 인기

힐링아카데미 · MY리더스클럽에 광주 불자 몰려

유료강좌에도 100명 수강
각각 13명 유명 강사 강연


4월 10일 힐링아카데미에서 선암사 강주 목우 스님이 강의를 하고 있다.

고사성어에 등화가친(燈火可親)이란 말이 있다. 등불을 가까이 두고 밤늦도록 책 읽기 좋은 때를 말한다. 흔히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봄은 불교수행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에 이어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높은 하늘, 따뜻한 날씨, 그리고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다스린다면 좋은 불교 강연을 들을 것을 권한다.

광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품격 있는 불교 강연이 개최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4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와 7시 힐링아카데미, 불광출판사와 공동으로 '제2기 빛고을 불광 MY리더스클럽'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좌들은 유료강좌임에도 70~1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할 만큼 인기다. 특히 힐링아카데미는 최근 불교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음의 치유와 힐링'에 대한 주제로 13분의 강사가 참여해 시종 진지한 강연과 청강이 진행되고 있다.

강사에는 △대원사 회주 현장 스님의 '티베트불교에서 배우는 내적치유의 힘' △선암사 강주 목우 스님의 '단지 바라보기만 하라'

△중앙승가대 교수 혜도 스님의 '삶의 끝자락에서 배우는 삶의 시작'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의 '더불어 나누는 힘 자비! 그 안에 담긴 힐링'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실상사 주지 해강 스님의 '선재동자의 행복 찾아 떠나는 여행'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의 '어느 누가 아프지 않으랴'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의 '행복을 꿈꾸는 종교, 행복을 꿈꾸는 그대' △정토사 주지 혜광 스님의 '聞思修!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삶'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참사람운동을 통해 만난 힐링' △송광사 승가대학 학장 무문 스님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 계율과 자기치유' △불지사 주지 범능 스님의 '범능스님의 노래이야기' △보리수선원장 붓다락키따 스님의 '내 생에 단 한번뿐인 오늘' 등이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또한 2010년에 개최돼 광주불교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누렸던 불교리더스클럽은 '좋은 벗들과 떠나는 행복한 구법여행'이라는 주제로 4월 3일 개강을 하여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총 13분의 강사와 다양한 주제로 만난다.

강연에 참여한 강사도 불교계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도법 스님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불광교육원 전임강사 목경찬 박사의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김정호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의 '마음 챙김으로 스트레스와 친구 맺기' △전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생각버리기 연습' △한국불교심리치료연구원 원장 서광 스님의 '치유하는 불교 읽기'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자현 스님의 '상징으로 본 사찰의 의미' △유근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불교미술의 상징과 문양' △김재성 불교학연구회 상임이사의 '초기불교에 보이는 재가자의 이상적인 삶' △前 송광사 주지 현봉 스님의 '대승불교'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동국대 명상상담학 겸임교수 명법 스님 '언어습관 속에 숨어 있는 자아 만나기'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의 '우리 시대에 불교관' 등이 진행된다.

특이 이번 강연은 지역불교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강연에 참여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음식을 통한 마음 나눔 눈길

착한 벗들, 이주여성 대상 음식강좌 개설


이주여성들과 회일 스님이 만든 비빔밥을 들고 웃고 있다.

동남아 출신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전통음식 강좌가 개설돼 눈길을 끈다.

착한 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우리절 주지)은 4월 9일 '마음 나눔 생활요리 자연음식' 강좌를 개강했다. '마음 나눔 생활요리 자연음식' 강좌는 매주 화요일 총 10주 동안 진행된다. 전주 강좌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등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된장찌개, 갈비찜 등 실생활에서 즐겨먹는 생활요리 중심으로 사찰음식을 포함한 자연웰빙음식도 함께 교육된다.

9일에는 서로 다른 식재료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맛을 내는 전주비빔밥을 주제로 강좌가 진행됐다. 이날 강좌에서는 비빔밥의 성격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편견 없이 어울리는 따뜻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회일 스님은 "음식을 만드는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음식에 깃든 문화를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이주여성들이 배운 음식솜씨를 활용해 행복나눔실천단 봉사활동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을 마친 이주여성들은 6월부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초청해 음식공양을 진행한다. 10월에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비빔밥축제"에도 참가해 각 나라 음식과 조합된 퓨전비빔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강좌는 자연음식문화원과 국제요리학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063)236-0602

조동제 전북지사장

석전 스님 65주기 추모제 봉행


선운사 부도전에서 열린 추모제

한국불교 근대 선지식인 석전 박한영 스님 65주기 추모제가 4월 9일 선운사 대적광전과 부도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前백양사 주지 성오 스님, 도선사 광복 스님, 도선 스님, 금강사 혜성 스님 등 스님들과 문중원로 재덕, 재곤 스님, 도륜, 혜산 스님 등 문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인사말에서 "석전 박한영 대종사의 삶과 사상, 근대문학에 끼친 업적 등을 재조명하기 위해 석전기념관 건립을 위해 준비 중으로 기념관을 건립해 스님의 큰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오 스님은 석전 스님의 스승인 설유 스님이 친필로 작성한 서화와 〈설옹문하족보〉와 〈불조종파〉를 기증했고 재곤, 보원, 종걸, 종명 스님도 석전기념관 건립을 위해 석전 스님의 생전유물과 근대 고승들의 서책, 간찰, 선화, 병풍 등을 기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덕진 로타리, 금산사 복지원에 차량 전달

2500만원 상당, 유류비 100만원도 지원



덕진 로타리 클럽은 8일 차량을 전달했다.

독거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해온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에 배달용 차량이 생겼다.

전주덕진로타리 클럽(회장 홍주영)은 4월 8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동길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사 복지원(대표 원행)에 무의탁 노인 도시락 배달용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차량은 2500만원 상당의 경차 2대다. 이교성 前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는 차량유류비 100만 원을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홍주영 전주덕진로타리클럽 회장은 "매일 무의탁 노인 89명에게 불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며 "로타리클럽 Matching Grant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행 스님은 "덕진로타리클럽의 봉사정신을 이어 더욱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을 보살피겠다"며 "불보살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무의탁 어르신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날 경차를 전달받은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은 매일 450명의 어르신이 무료 점심공양을 하고 있다. 또 89명의 무의탁 어르신들에게 운불련 불자들이 도시락을 배달해 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11년 조성 시작 화엄사 범종불사 회향

회향식까지 5000명 동참, 종삼 스님 퇴임식 겸해


화엄사 범종불사 회향식 모습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범종 조성불사 회향법회가 4월 12일 봉행됐다.

이날 범종 조성불사 회향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 스님, 주지 종삼 스님, 천은사 주지 영관 스님을 비롯해 서기동 구례군수 등 1500여명이 참여했다.

법회는 불교의례에 이어 인사말, 축사, 법어, 제막식, 타종 순으로 진행됐다.

종삼 스님은 인사말에서 "화엄성종 복원불사는 문도스님들과 신도들의 일심원력에 가능했다"며 "화엄사는 전통문화사찰로 거듭날 것이며, 지역발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삼 스님은 이어 "복원불사를 통해 8년의 주지 임기를 마무리한다"며 "새 주지스님과 함께 화엄사가 성장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퇴임사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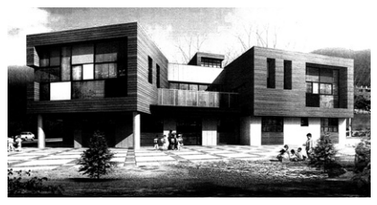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서는 차길진 화엄사 명예신도회장의 위촉과 감사패(원광식, 양승문) 증정 등도 진행됐다.

명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금일 대범종을 타종을 하는 것은 지혜의 문이 열림을 의미한다"며 "6도 모든 중생들이 다같이 기뻐해 지혜를 얻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새로 조성된 범종과 범종각은 2011년 1월 조성불사를 시작해 5000여 명이 동참했다. 무게 3,300관으로 선덕대왕신종을 모본으로 화엄사 석탑 사자상 문양을 새겨 넣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복지법인, 고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복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운사 복지법인(지부장 법만)은 3월 22일 고창 월곡지구에 건립예정인 아동복지센터 내 어린이집 수탁운영자로 선정됐다. 2009년부터 총 14억 7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고창 어린이집은 9월 개원 예정이다.

선운사 복지법인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센터를 어린이집 운영과 연계에 전 세대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따뜻한 밥 한끼로 이웃사랑 실천

삼광사 지장회 무료급식 봉사 4년째 이어와



삼광사 지장회는 무료 염불 공양은 물론 무료급식 봉사도 4년째 이어오고 있다.

매월 셋째주 목요일 지장회 봉사자들은 부산 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의 무료급식소를 찾는다. 3월 21일, 배식 시간까지는 아직 30여분이 남았지만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급식소는 이미 만원이었다. 급식이 진행되는 불과 30여분 동안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은 평균 300여 명이라고 한다.

정해진 공양시간이 되자 일사분란하게 공양 준비를 마친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직접 음식을 옮겨 나르며 먹음직스럽게 한 상 차려냈다. 지장회 강재복 회장의 얼굴에도 웃음이 한가득이다.

"이 곳에서 먹는 점심이 하루 중 유일한 끼니가 된다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도 나고 찡할 때도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려고 노력해요. 한 끼 식사라도 즐겁고 행복한 기운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20년간 영가 위한 염불공양
이웃나눔 실천하는 급식봉사

지장회가 '아름다운 사람들'에서 급식봉사를 시작한 것은 불과 4년 전부터였다. 삼광사는 바로 지척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 무료급식소 운영에 힘을 보태고자 했고, 지장회가 그 역할을 맡게 된 것.

때문에 사찰에서의 지원도 적극적이다. 급식봉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와 식재료 등 물품지원은 물론, 많은 인원이 함께 움직이는 염불봉사 때에는 차량도 지원한다. 무원 스님이 주지로 부임해온 뒤에는 경내에 지장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불자들의 동참을 권장하기도 했다.

강재복 회장은 "절에서 다각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또 주지스님은 사회복지 활동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분이기 때문에 삼광사 신도로써도 기대가 큽니다."며 연신 자랑이 끊이지 않았다.

삼광사 지장회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상가喪家 염불공양봉사를 위해 출발한 신행모임이다. 20여명의 임원진과 대외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불자들은 평균 50명이며, 후원회원만 25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신행팀으로, 염불공양은 삼광사 신도와 불자,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다. 그렇게, 고인의 왕생극락과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성으로 기도해온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염불봉사에는 매번 삼광사 스님들이 법주로 참여해 격식과 엄숙함을 더해왔는데, 회원들은 스스로의 역량 증진을 위해 4월 19일부터는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시다림 교육도 시작할 계획이다. 바쁜 일상 속에 느린 듯 서두르지 않는 이들의 행보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비나눔의 원력이 응축돼있음이 분명했다.

하하호호 유쾌했던 일과가 끝나고, 다음을 기약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장회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마음이 시켜 하는 일에 몸의 피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무언의 메세지가 전해졌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 신교통문화 실천에 앞장

승가연, 가구경행 복원사업 시작

부산불교승가연합회(회장 법민스님)는 4월10일 부산역 광장에서 '맑고 향기로운 부산을 만드는 신교통문화캠페인'을 개최했다.

회장 법민 스님(수덕사 주지)은 "신교통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것은 중생들의 이고득락을 기원하는 것"이라며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부산을 위해 용맹정진과 나아가 승가의 전통행사인 '가구경행' 복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승가연합회는 가구경행 복원을 위한 3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불교의 전통문화로 전승 · 발전시킨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상설기구로 정착시킨다. △승가의 본원으로서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여 불교화합의 기틀을 삼는다.



부산승가연합회는 신교통문화캠페인을 펼친다.

한편, 가구경행이란 고려 정종12(1406년)년에 처음 시행된 연중행사로 음력 2월에 국리민복을 위해 백성의 질병과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승려들이 도성의 거리를 돌며 목탁을 치고 향불을 피우던 국가행사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 개관

고운사의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은 4월 11일 청소년 수련시설인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를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고운청소년재단 이사장 호성 스님, 김관용 경북지사 등 각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나와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밴드실과 북카페, 공예실, 다도명상실 등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민간 청소년시설로는 최초로 자치단체로부터 건축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개관 장면

박영애 영주지국장

호스피스센터 창립 3주년

대구 불교 호스피스센터 창립 3주년 기념법회가 4월 8일 대구불교방송 7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센터장 다정 스님을 비롯한 200여명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다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병원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돼 있는 대구 불교호스피스센터는 지난 2010년 4월 창립 이후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 등 5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손문철대구지사장

제9회 부산차밭골문화제

부산차밭골문화제 봉행위원회(봉행위원장 혜성스님, 집행위원장 최순애)는 4월6일~7일 양일간 금정산 금강사에서 '제9회 부산차밭골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첫째날 한일도예작가 교류전, 다실명전, 둘째날 금정산 고당봉 물씨 이운식, 금정산 수호령신 고당 선랑 다례제, 백화만발공양다례제, 강연 등이 진행됐다. 부산차밭골문화제의 메인 행사라 할 수 있는 백화만발공양다례제에는 금강사 주지 혜성 스님,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이미자 부산차문화진흥원 원장 등 500여 명의 차인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문화재보호펜스도 중요한 경관

전통사찰은 우리나라 문화재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성지이다. 문화재는 다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며, 문화재의 가치와 관리주체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나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문화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원형을 보호하게 된다.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각을 짓고, 외부에 노출된 마애불이나 비석 등 석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각을 짓는 것 등이 바로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한 방법이 된다. 또한 석탑이나 석등, 노거수(오래된 나무)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점적 형태의 문화재는 보호펜스를 둘러서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펜스는 사찰마다 제 각각이어서 동질성이나 통일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료의 특성상 녹이 슬기도 하고, 번쩍거리기도 해서 문화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도 많다.

문화재보호펜스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재보다 먼저 눈에 띄어 문화재가 시각적으로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또한 문화재의 성격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재료와 디자인의 선택 역시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이러한 재료선정이나 디자인기준은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지만 불교계에서 애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문화재 가운데에서도 사찰에 소장된 문화재는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문화재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사찰을 가보면 문화재보호펜스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그리고 문화재와 잘 조화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태리나 프랑스 심지어는 중국 등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문화재에 관련된 시설은 매우 신중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재보호펜스는 사찰전체의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시설물이다. 그러나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재와 더불어 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홀이 다루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다. 문화재보호펜스도 사찰에서는 중요한 경관요소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녹이 슨 문화재보호펜스는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경기도 ㅅ사찰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신제품 경전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답사단이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에서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창림사지 석탑은 남산에서 가장 큰 탑으로 7m에 달한다.



경주 남산 아래 위치한 포석정. 연회 장소만이 아닌 종교적 성소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간사지 당간지주. 남산의 사찰과 사지 중 유일한 당간지주다.



우천에도 많은 답사객들이 참석했다.

경주 남산서 신라의 '시작과 끝'을 만나다

신라 시조의 탄생과 유상곡수의 흔적들

남산 아래 위치한 나정 · 포석정
천년 신라의 始終을 담아내
포석정, 단순 연회장소 아냐
무수한 유구만 남은 창림사는
혁거세가 머문 금성으로 추정

올해 4월의 날씨는 유난히 변덕스럽다. 만개한 봄꽃을 시샘한 듯 4월의 첫 주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 신라문화원의 경주남산불적답사도 안전을 우려해 남산에 산재한 불상을 돌아보는 것에서 신라의 시작과 끝을 살피는 것으로 코스를 변경했다.

천년 신라의 시작, 나정

사실 경주 남산은 천년 신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왕이 살았던 서라벌 궁성 월성(月城)에서 보았을 때 남쪽에 있는 경주 남산은 신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 곳이다.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나정이 남산 자락이고, 신라의 종말을 가져온 포석정 또한 남산에 자리하고 있다.

나정은 그 위치부터 남다르다. 나정에서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면 금광사지와 남간사지가 있고, 그 뒤편으로는 창림사지와 포석정이 한꺼번에 보인다. 그 옆으로는 남산 서쪽 기슭이 한눈에 들어오며, 북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오릉과 천관사지가 펼쳐진다.

현재 나정은 문화재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를 진행해 그 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다. 4번의 발굴조사를 통해서는 우물지, 원형건물지, 팔각건물지 등이 확인됐다. 우물지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으로 길이 4.3m, 너비 2.5m, 깊이 1.7m 정도이며 우물지를 중심으로 우물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물이라고 하지만 그 형태가 일반적 우물과는 차이가 있다. 신라시대의 우물은 식수답이 아닌 제사 등의 용도로 다르게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정에서 동북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는 신라 건국을 도운 6부 촌장들의 위패를 모신 양산재가 있다. 전형적인 재실 건출으로 지어진 이 사당은 1970년대에 세워졌다.

흔적만 남은 남산 절터들

나정과 양산재를 돌아 나오면 적지 않은 남산 아래 절터들을 만날 수 있다. 이 부근 사찰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남간사와 창림사다. 현재 남간사는 마을이 들어서 건축의 규모나 가람배치 등은 알 수 없지만 당간지주를 통해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보물 제909호로 지정된 남간사지 당간지주는 남산 지역에서는 유일한 당간지주이다. 통일신라 중기인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논 한가운데 있었던 것을 최근에 유적지로 정비했다. 이 당간지주는 단순한 형태이면서도 안정감을 주고 있다. 꼭대기에는 당간을 고정시키기 위한 십자형의 간구(竿溝)가 있고 몸체에는 두 곳에 동그란 구멍이 나 있다. 특히 십자형 간구는 다른 당간지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것이다.

남간사지 옆 신작로를 따라 10여 분을 걸으면 창림사지를 만날 수 있다. 창림사는 남산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석탑이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쌍두귀부와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이 출토됐으며, 2011년에는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창림사지 석탑의 원기인 '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를 발견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원기에는 문성왕이 대중(大中 · 당나라 연호) 3년(855)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탑을 세우니 그 공덕이 널리 미치기 바란다"는 발원문과 탑 조성에 관여한 승려와 관리 명단이 담겨 있다.

〈삼국유사〉에도 창림사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혁거세와 알영 왕비가 태어난 후 이곳에 궁궐인 금성을 지어 13년 간 살았다"는 기록돼 있다. 이 같은 기록들을 통해 창림사가 당대의 명찰로서 그 위용이 대단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창림사에서 주목해 봐할 곳은 바로 삼층석탑이다. 7m에 달하는 그 크기도 놀랍지만,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탑 하단에 부조된 팔부신중들이다. 현재는 8개의 도상 중 절반이 결실돼 아수라, 마후라가, 천, 건달바만이 남아 있다. 모두들 구름을 타고 천의를 날리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풍부한 양감이 보는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최민희 신라문화연구원 부설연구소장은 창림사지 삼층석탑과 더불어 한 구의 탑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림사 삼층석탑 원기에는 탑의 조성 시기를 855년으로 기록하고 있어 탑의 조성연대를 이 시기로 잡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추정입니다. 9세기 중엽의 신라 조각은 쇠퇴기여서 이 같이 풍성한 양감의 조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팔부중을 새긴 상층기단 면석이 세 구가 발견됐는데 현재의 탑의 면석보다 작았고 조각 기법도 9세기에 가까웠습니다. 창림사지에는 팔부신중이 조각된 쌍탑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어찌 됐던 왕가의 영광과 중생 구제의 원력으로 세워진 창림사는 제일의 위용을 자랑하는 탑을 통해 불국토 남산의 서쪽을 장엄하고 있었을 터이다.

포석정에 가기 전 유느리골절터 마애삼체불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5호)을 찾았다. 'ㄱ' 자로 꺾인 암벽에 3구의 불상을 새겼다. 중앙불 왼쪽에는 '태화 9년 을묘'라는 명문이 있어 흥덕왕 10년(835)에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약합을 든 약사여래가 2명이 조각돼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경주 남산은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 곳이라는 점만 다시 확인할 뿐이다.

'승자의 역사'가 남긴 오해들

마애불을 보고 포석정으로 내려오니 비가 조금씩 잦아진다. 포석정은 수로를 굴곡지게 하여 흐르는 물위에 술잔을 띄우고, 그 술잔이 자기 앞에 올 때 시를 한 수 읊는 놀이인 '유상곡수연'을 즐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포석정은 신라 말기의 애환과 치욕이 담긴 곳으로 더 유명하다.

〈동국통람〉에는 "경애왕(景哀王) 4년(927) 왕이 신하와 궁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다가 견훤군이 입성했다는 말을 듣고 왕비와 함께 성남의 이궁에 숨었다. 그러나 곧 견훤에게 잡혀 경애왕은 자진했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승자 위주로 쓰여졌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려시대에 쓰여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신라가 망할 수 밖에 없는 쇄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점을 후대에 인지시켜야 했고, 경쟁자인 후백제의 견훤은 상대적으로 포악한 인물로 남아야 했다.

실제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포석정이 단순히 연희를 즐긴 곳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경애왕이 포석정에 행차한 것은 음력 11월경으로 양력은 12월에 해당하는 시기다. 얼음이 어는 겨울에 유상곡수연을 할 수 있지 않다는 점은 상식에 가깝다. 또한 이미 9월에 견훤이 영천까지 침입한 사실을 알고 왕건에 도움을 청한 경애왕이 술잔치를 벌일 정도로 폭군이었다면 후대의 경순왕과 신하들이 그의 장례를 치르며 애절히 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리도 만무하다.

최 소장은 포석정이 단순히 연희를 베푸는 이궁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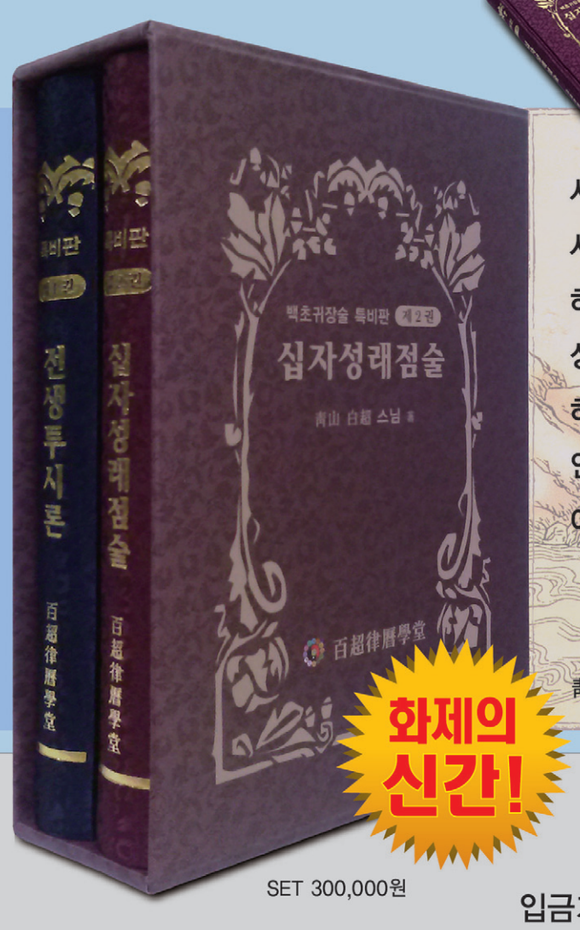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포석정의 행사에 왕과 비빈, 종척, 화랑이 참석했고 가무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상곡수를 하는 연회 장소가 아닌 종교적 성소로 활용됐음을 확인시켜줍니다. 포석정이 신라 왕실의 이궁이라는 견해도 재고의 여지가 많습니다."

답사를 마치니 잦아졌던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비를 맞은 벚꽃들이 길가에 내려왔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도 마지막은 흐드러지는 봄꽃과 같았다. 굴곡많은 인간사처럼 굽이진 포석정이 애처로울 뿐이다. 경주 남산=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5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일정

- 주제 : 선도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 일시 : 5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사차원운명둔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 책 구입은 서점으로 배포되지 않고 백초율력학당에서만 판매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041)943-6882 / 010)3813-4443
SET 300,000원
百超律曆學堂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

불교와 미학

메멘토 모리와 감로탱화

죽음의 시대상을 기록한 불화 '감로탱'

지혜로운 이의 삶은 전부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
-키케로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로마 시내를 퍼레이드 할 때 노예 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들고 뒤따르게 하였다. 이 월계관에는 특별한 문장이 씌어있었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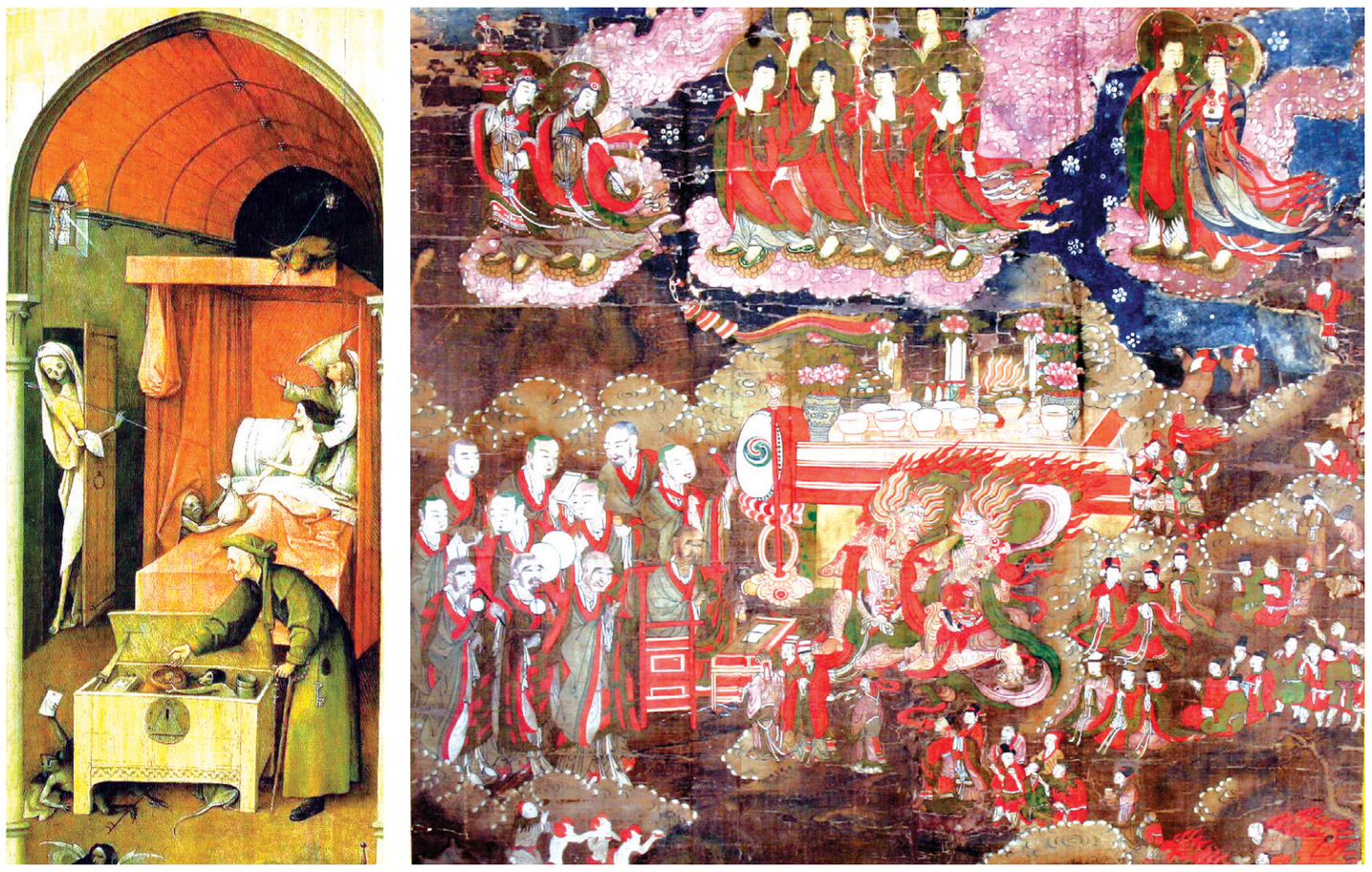
생애 최고의 순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 노예는 개선장군에게 오늘은 최고의 날이지만 내일 또 다른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삶은 덧없고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서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온다. 그래서 죽음은 언제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것이다.

종교는 이처럼 불가피하게 맞이하는 죽음을 해석함으로써 죽음을 수용하고 삶의 질서를 세운다.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된 조건이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종교에 따라 다르다.

서양 문학과 회화에 나타나는 죽음의 상징들은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서양 회화의 '해골의 춤'
죽음은 두려운 것으로 묘사
절대자에 대한 헌신 상징도



히에로니무스 보슈(Hieronymus BOSCH)의 〈죽음과 수전노〉(사진 왼쪽)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감로탱화(사진 오른쪽).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든 서양과 달리 한국의 감로탱은 민중의 모습을 통해 죽음은 종결이 아닌 삶의 연속이라고 강조한다.

가장 흔한 죽음의 상징으로 낫을 든 남자, 흑기사, 수레바퀴의 주인, 다리의 거장, 친구 하인이 있으며 회화에서는 해골이나 썩은 과일, 불 꺼진 초, 시든 꽃, 모래시계, 연기, 거울에 비친 상이 죽음을 상징한다. 해골이나 썩은 과일, 불 꺼진 초, 시든 꽃은 생명이 사라진 것들의 추함을 강조한다. 또 다른 죽음의 상징인 모래시계는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생명도 빠져나가는 유한한 인간의 생명을 환기시킨다. 이처럼 서양에서 죽음은 삶과 대비되어 무력하고 추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서양 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골의 춤〉은 죽음을 해골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삶과 죽음이 혼재된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다. 죽음은 교황, 황제, 황후, 왕, 추기경, 농부, 아이, 아이의 엄마, 지위의 고하,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으로 중세기의 숨 막히는 완화하는 것이기도 했다. 가만히 뒤에서 등장하거나 또는 불현듯 나타나는 죽음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 음습하고 추한 것이다.

나약한 여자들이나 죄 많은 자들은 겁에 질려 끌려가고 고관대작이나 성직자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며 버티지만 죽음은 끝내 거부할 수 없다. 주로 수도원 회랑이나 공동묘지, 납골당 외벽에 그려진 이 그림들은 지옥과 저주받은 사람들을 통해 지상의 삶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천국의 영생을 동경하고 신에게 헌신할 것을 호소했다.

이 그림들은 한편으로 돈이나 명예, 지위 같은 덧없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기를 설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상의 삶을 단죄하는 심판자인 죽음을 가능하면 피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죽음이 도래한다면 산 사람의 세계로부터 빨리 분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된다. 뒤집어보면 이 욕망 속에는 죽음을 금기시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고가 잠복해 있는데, 신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종교 권력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자양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에서 죽음은 삶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 선조들은 죽음을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상으로 여겼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가족들은 묏자리도 미리 봐두고 윤달이면 수의를 준비한다. 서양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자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여긴다.

우리 조상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뒤에 반혼(返魂)을 통해 다시 생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해마다 치러지는 제사를 통해 조상들은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서 기억되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지고 있다. 심지어 호상인 경우, 문상객들이 상갓집에서 밤새도록 시끌벅적하게 술과 음식을 먹고 화투놀이를 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졌다. 우리에게 죽음은 이처럼 삶의 한 과정이며 장례는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의례였다.

그런데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다. 제사를 못 받은 배고픈 조상이 있다거나 묏자리가 잘못되었을 때, 또는 젊은 나이에 죽거나 객사한 경우, 억울하게 죽거나 전쟁에서 이름 없이 죽은 영가들은 그를 기억할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된다.

이승을 떠나고도 선뜻 생을 내려놓지 못하고 생과 사의 중간 어디에선가 떠도는 이름 없는 죽음을 위하여 불교에서는 예로부터 장엄하게 단을 차리고 천도의식을 봉행하여 그들을 다음 생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도하였다.

불교에서 죽음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서양 회화에 나오는 것 같이 억지로 끌고 가는 혐오스러운 해골이 아니라 하늘거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 깃발을 높이 들고 하늘길을 안내하는 인로왕보살과, 정수리 광명으로 하늘길 밝히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대동하고 직접 마중 나오는 아미타불이다. 그리고 지옥이 다 비도록 사람들을 제도하겠다는 저 신심 깊은 지장보살도 마중을 나온다.

감로탱은 아귀들에게 감로를 베푸는 의식, 다시 말해 물과 뭍에서 외롭게 죽어간 영혼들을 천도하는 수륙제 때 법석에 걸어놓는 걸게 그림을 말한다. 단을 마련하고 걸게 그림을 내다 걸고는 그 아래서 스님들은 경을 읽고 바라춤을 추며 외로운 영가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강림하기를 청하고 산 자들은 온갖 음식을 마련하며 정성을 다한다. 주변에 음식이 지천이어도 먹지 못하는 아귀들에게 이 날은 잔칫날, 비로소 주린 배를 채우고 타들어가는 갈증을 풀 수 있다.

감로탱에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낱낱이 묘사되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가장 참혹한 대규모 죽음의 원인이다. 17세기 이후 제작된 감로탱을 보면 한쪽은 창과 활 같은 전통적인 무기를 들고 있고 다른 한쪽은 조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상상의 소산이 아니라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사실적인 장면이다. 그만큼 조선 사람들에게 임진왜란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였던 것이다.

지금은 드문 일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호랑이나 뱀에 물려 죽는 재앙이 흔했다. 수많은 민담에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시 사람들이 호랑이에게 가졌을 공포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감로탱에 그려진 호랑이의 모습은 화공의 조잡하고 투박한 솜씨 탓인지 모르겠으나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처럼 친근하고 장난스럽기까지 하다.

그밖에 술병 들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 바둑을 두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 담장이 무너져 비명횡사한 사람 등, 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초래할 법한 상황이 있는가하면, 오늘날로 치자면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말발굽에 깔려죽거나 소달구지에 깔려죽고, 벌거벗기고 포박을 당해 죽거나 산적들에게 봇짐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 봇짐장수, 주인에게 매 맞아 죽는 노비 등 특정한 시대상황이 반영된 죽음의 모습까지 감로탱에는 당대를 살아간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감로탱에 묘사된 죽음은 끔찍하기는 하지만 괴기스럽지 않고 소박하기 이를 데 없다. 죽음의 고통은 구천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에게 삶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도록 하기 위해 묘사된 것으로, 감로탱에 묘사된 죽음은 방종과 쾌락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삶의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감로탱은 죽음의 다양성뿐 아니라 그 구체성 때문에 장엄용 종교화로 제작되었으면서도 시대상을 반영한 풍속화의 성격도 갖는다.

전통사회에서 수륙재는 일종의 축제이다. 조용하던 마을에 북소리, 꽹과리 소리 울려 퍼지면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여들어 신나고 흥겨운 놀이의 한마당이 된다. 의식이 끝나면 제자들이 정성껏 마련한 제수음식들을 맛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동네 잔칫날이다. 스님들은 소고를 두드리고 징을 치면서 구성진 염불가락으로 원혼들을 불러오고 아귀들은 음식을 얻어 허겁지겁 입에 넣거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강물을 마신다. 제단 한편에는 제자들이 무릎 꿇고 지극정성으로 불보살의 가피를 청하니 하늘의 천신들과 불보살까지 왕림하여 그야말로 천상과 인간의 큰 잔치가 벌어진다.

영가를 천도하는 엄숙한 재식이 벌어지는 장소에서 조금 물러서면, 삶의 갖가지 양태가 드러난다. 근엄하게 경전을 읽는 양반네들이 흘금흘금 아낙네들을 곁눈질 하고, 촌로들은 바둑에 정신이 팔려있다. 남사당패들은 공을 던지고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줄타기를 하는 등 온갖 재주를 부리고 옆에는 무희와 악사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장고가락에 맞추어 소리꾼들이 노래를 부른다. 이 연회에 등에 어린아이를 들쳐 업은 아낙네, 젖먹이는 여인뿐 아니라 앞 못 보는 봉사들도 어린아이를 앞세워 길을 재촉한다. 흥천사 감로탱에는 일본강점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헬리콥터가 동원된 전쟁 장면과 전함의 모습, 모내기 장면, 신사를 찾은 기모노를 입은 여인, 코끼리 서커스단까지 등장한다.

한국 불교의 감로탱화
당시 죽음의 모습들을 그려
죽음, 종결 아닌 삶의 연속

역설적인 장면이지만, 감로탱에서 삶은 죽음과 대비되어 더욱 생생하게 빛난다. 생명의 약동을 이처럼 경이롭게 표현한 그림이 또 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삶이 죽음에 기대어 있는가? 삶과 죽음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 아닌가?



감로탱에서 죽음은 그 자체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나아가 삶을 약동하게 하는 용광로이다. 그 생명과 죽음의 이중주 속에서 산 사람은 정화되고 죽은 자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보시

현대불교신문사와 삼환양초는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양초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이 초는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육각초(길이 45Cm, 판매가 25,000원 상당)입니다.

전국 사찰에 한하며, 선착순 500여 사찰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팩스주문만 받사오며, 받으실 사찰 주소 및 전화를 기입 후 현대불교신문사 또는 삼환양초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택배비는 받으시는 사찰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선착순 500셀 한정!!

신청 : 삼 환 양 초 FAX 031)766-8242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6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신제품 (특허제품)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DWKS-108A
DWKS-108B

연등(등표) 발판사다리



DWKS-3000A
DWKS-3000B

DWKS-5000A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회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아주 밝은 건전지 초 (LED용)
LED전구, DC 9V 백색 · 노랑 · 빨강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한국이 세계 중심국 될 것… 미래 준비 해야”



方山老의 無影樹 〈9〉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혜거 스님



혜거 스님
영은사 입산, 월정사 수학, 금강선원 회주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바쁘다’ 소리 절대 안 해
스님의 ‘주역’은 대중의 희망 방편
예언가 · 도참사상가로 보면 안돼
공부도량 ‘화엄학회’ 원력 못 이뤄

–스님과 탄허 스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요?

저는 고향인 영암의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면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외삼촌인 김지견 박사의 소개로 탄허 스님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4 · 19가 나고 서울에서 승려대회가 열렸는데 스님은 승려대회에 참가하셨나요? 그곳에서의 추억은 무엇이었나요?

정월 보름이나 해제 때에 있었던 돌림법문이 기억납니다. 전 대중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는 것인데, 지목을 당한 스님들은 안 올라가겠다고 할 말이 없다고 난리가 났죠. 대중이 법상에 안 올라가려고 하면 스님께서 한 마디라도 하고 내려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떤 스님은 “공부 잘해봅시다”는 말을 하고 내려온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전통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스님은 육경신(六庚申)을 지켰어요. 1년에 여섯 번 하는 경신인데, 이때에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온갖 것,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책을 안 펴고 논강을 하는 식입니다. 그때에 스님은 앉아 계시면서 모든 질문에 다 답을 주십니다. 제가 보기에 그때가 제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끝도 없이 밝혀주시고 그랬는데, 잘 모른다고 하면 가져온 노트에다가 그 내용을 손수 다 써주셨어요. 그때가 스님에게 제일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스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월정사에 오셔서도 하셨고, 강릉포교당에서도 하셨어요. 물론 그때에 참가하지 않는 대중들도 있어요. 스님은 그때에 별의 별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이 수행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이 일생을 두고 번역하신 원력을 지켜보신 것을 들려주세요.

제가 영은사 시절이나, 그 후에 시봉을 할 때에 지켜본 것에 의하면 우리 스님은 늘 한가롭게 지내시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대단한 역경을 하셨으면서도 평소에는 바쁘다는 말이 없었어요. 절대 바쁘다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스님은 정확하게 밤 아홉 시가 되면 취침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첫잠을 새벽 한 시, 두 시나 세 시에 깨시면 더 이상 주무시지 않고 그때부터 아침 공양시간까지 번역하십니다. 그러면 그 새벽에 하신 원고가 수북이 쌓입니다. 그것은 낮에 하루 종일을 하신 것과 같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어떤 원고를 5년에 걸려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지만, 그렇게 꼭 새벽작업을 하셔서는 3년 내에 완성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절 밖에 나가시면, 여행가방에 항상 원고지를 갖고 다니십니다. 해외에 나가셔도 시차 적응에 상관없이 원고 작업을 하셨어요. 인도와 미국에 가실 때에도 그렇고, 제가 말년에 시봉할 때에 보면 지방에 바람을 쐬러 가실 때에도 새벽에는 원고 작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스님은 시간 개념이 딱! 시계이십니다. 이렇게 생활이 시계처럼 정확하신 분은 우리 스님 말고 뵌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그까짓 것 하지만,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님은 그 많은 경전을 번역하시면서도 사전을 안 갖고 하셨어요. 지금 세상에 사전을 안 갖고 번역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사전도 없이 화엄경을 주석까지 달고 그러셨잖아요. 화엄경의 중간에 탄허 지(誌)라고 한 것이 스님의 주석입니다. 사전을 갖지 않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어른이 누가 있겠습니까.

–탄허 스님은 주역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미래 예측도 많이 하셨지요?

스님이 주역, 미래 예언을 많이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님의 뜻, 취지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저도 스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반발하고, 이의도 가졌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도 주역 공부를 해 보고, 스님 말년에 스님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해서 스님이 왜 그렇게 주역을 자주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스님에게 왜 자꾸 예언을 하시냐고 또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스님은 “예언은 소설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스님은 소설은 듣고 내버리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소설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런 개념으로 주역과 예측을 대하셨어요. 내가 스님에게 “그러면 왜 하십니까?” 하였어요. 스님은 이 말에 대해서 “성인은 길을 제시하는 것뿐이고, 사람들은 세월을 지내면서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스님은 예언을 이런 개념으로 답하셨어요. 스님은 “성인은 대중들에게 획을 그어 주고, 대중들은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셨어요. 우리 스님은 이런 개념에서 성인과 같이 국민들에게,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획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획을 그어 주신 것이 한국이 앞으로는 중국과 연륙이 될 것이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민족이, 국민들이 그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신 것인데, 이런 말을 그냥 하면은 누가 듣냐고 하시면서 주역에 바탕을 두어서 하신 것입니다. 스님은 그래서 간방(艮方)에서 시작되어, 간방에서 끝이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스님 말씀대로 되게 생겼어요. 즉 스님은 성인으로서 획을 그어주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스님을 예언가, 도참사상가가 이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탄허 스님의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것에는 은사인 한암 스님의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암 스님이 탄허 스님을 신뢰한 것은 한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가 대변합니다. 그 편지에서 한암 스님은 스님을 자신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설명이 다 됩니다. 그렇게 자기 상좌를 신뢰하는 스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스님이 노후에 저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당신이 환갑 이전만 해도 한암 스님에게 배우지 않은 것은 자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육십이 넘어서야 한암 스님에게 안 배운 것도 자신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은 자주 하셨어요. 탄허 스님은 한암 스님이 없었으면 그런 실력, 위상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스님은 한암 스님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셨어요. 스님은 그리고 한암 스님의 화엄경토를 존중했어요. 제가 보기에 한문의 문리라든가,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스님이 한암 스님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한암 스님의 것(토)을 안 고쳐요. 이렇게 어른 것을 존중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옛날 스님이 하신 것을 두고 흐름상에서 잘못되었다고 자기의 해석을 고집할 것입니다. 공부 좀 했다고 하면 “은사스님이 실수했어” 하면서 고치고, 이리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 스님은 한암 스님의 토를 따라가셨어요. 고집 안 부려요. 이런 면에서 스님은 한암 스님을 존중하셨고, 한암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스님은 공부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인재양성을 무척 강조하셨지요?

제가 자광사에서 스님을 모시고 있다가 서울 진관사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진관사에서 스님의 옷을 만들어드리면서, 저에게도 옷 한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스님의 옷은 제대로 맞았는데 제 옷은 팔이 짝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퉁퉁거리니깐, 스님은 “중이 공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옷 타령을 한다”고 야단을 치셨어요. 스님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책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스님은 그리고 학하리에다가 공부도량을 만들려고 설계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엄학회를 만들려고 간판도 써주셨어요. 그러나 그 뜻이 안 이루어졌지요.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스님은 말년에는 되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대전 학하리에 터전만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것이 될 줄로 알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큰 원(願)을 펼쳐만 놓으시고, 실현하시질 못했어요.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를 못한 것을 아쉬워했어요. 그 하나는 불교학개론을 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시지 못했어요.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총괄하는 개론서가 나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것에 대한 개요가 다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학하리에 공부도량을 만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지요. 공부하는 정통 도량을 만들어 학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려고 하셨지요. 그래서 스님은 몸져 누우시면서 일착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1971년 1군사령부 법당 행사에 참석한 탄허 스님(앞줄 오른쪽 두번째)

–탄허 스님의 정체성을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혜거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스님의 본체는 선사(禪師)이십니다. 스님은 절대로 한 발짝도 선사의 기본에서 이탈하시지 않았어요. 스님은 절대 선사입니다. 그것에 대한 첫째 이유가, 모든 선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시간 누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은 시간이 추입니다. 이 어른은 일거수 일투족이, 그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 일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시공간이라는 좌판에서 절대 이탈을 안 한 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님은 어떤 경우에도 40대 이후부터는 어느 선사 가 와서 거량을 해도 바로 답이 나오셨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스님은 누가 와서 질문을 하면 바로 대경직현(對鏡直顯)입니다. 머뭇거린 적이 없어요. 바로 나옵니다. 그 누가 와서 물어도 스님은 잘 몰라서 답을 못한 적이 없어요. 스님은 한 번도 누가 물어서 머뭇거린 적이 없어요. 스님이 머뭇거린 적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별의 별 것을 물어도, 다 말을 하셨어요. 이것은 선의 입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 가실 적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입적하시기 직전에 상좌 스님이 “스님, 이 세상에 인연법으로 오셨는데, 이제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한 말씀 남겨 주세요” 하였더니 스님은 즉각 “일체 말이 없어”라고 답하셨어요. 질문한 스님의 질문에 바로 나왔어요. 이것이 마지막 거량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입적 직전에 이런 거량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대산이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님의 본체입니다. 스님은 시공을 전혀 이탈하지 않았어요. 입적 직전의 이 구절을 적용하면 스님의 본분을 알 수 있어요. 스님이 번역을 하신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작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님의 작용, 용(用)만 보고 스님을 말합니다.

–탄허 스님의 의식 저변에는 민족의식이 강렬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은 부친이 민족종교인 보천교 간부를 하신 것과 무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은 배제할 수가 없겠지요. 스님의 집안이 그렇게 어려우시면서도, 부친은 상해 임시정부에 엄청난 자금을 보내셨어요. 그런 영향과 바탕에서 스님은 민족주의자이셨어요. 만약 출가를 안 하셨으면 민족운동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민족종교인 보천교가 쇠퇴한 것을 경영실패에서 찾았어요. 보천교가 그렇게 된 것은, 가장 큰 실책은 돈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스님은 아무리 중요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경영 관리가 부실하면 조직이 운영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스님은 여러 가지 문제를 찾으시면서도 현실을 직시하셨어요. 스님은 가장 가까운 원인을 찾아내시는 탁월한 안목이 있으셨지요. 그리고 스님의 이런 현실인식은 유교를 유년 시절에 배운 것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82년 가을, 차를 타고 월정사를 들어가시다가 일주문에서 걸어가시면서 유년 시절에 공부한 것, 입산하게 된 동기 등을 회고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에는 주의깊게 듣지 않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때 스님은 저에게 당신이 공부하신 것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줄로 아냐고 하시면서, 스님은 머리가 나빠서 온 종일 글을 읽었다고 하셨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책을 읽지 않았지만, 당신은 머리가 나빠서 하루 종일 책만 읽었다고 하시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조목조목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치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금강경 10폭 (한정 100작품) 서예
佛자, 달마도, 반야심경 족자
50여년 서예 인생을 회향하면서 인연있는
불자님들께 저렴한 보시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금강경 10폭 (병풍 작품용)
크기 40×160 10장 금강경
※고급 케이스 포함,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스님들 불사용으로도 좋습니다.



■ 佛자, 달마도, 반야심경 족자
크기 두종류 : 40×130(小),
40×190(大)
※고급 케이스 포함,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스님들 불사용으로도 좋습니다.

전국 어디든 고급케이스에 넣어 직접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발송하여 드립니다.
書峯書院 대전 중구 오류동 154-4번지 센트리아오피스텔 601호
문의 : 042)534-8248. 010-2426-8975
書峯 박준영 합장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주) 마하연 투어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성지순례	7일 –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성지순례	4일 –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	성지순례	4일 –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석가장)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낙산)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직항)	6일 – 139만원
● 스리랑카	정통성지순례(직항)	7일 – 199만원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직항)	5일 – 99만원
양곤/바간/헤호	5일 – 15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16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7일 –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변화는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5〉



범어사 주지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없는 줄 알기에, 삼승(三乘)에는 뜻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는다. 증득할 것이 없는데도, "나는 능히 증득하여 얻었다"고 한다면 모두 증상만(增上慢)을 내는 사람이다.

방편으로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은 그때의 일이지만, 반짝하는 경계를 보고 도 깨쳤다고 한다면 다 증상만을 내는 것이다. 공부인은 서푼어치도 안 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어떤 경계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흘러왔듯이 앞으로도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그러므로 괜히 생각을 불러일으켜, 변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조그마한 이익을 얻은 것을 가지고, 나와 상대의 인연을 살피지도 않은 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연에 따를 뿐이지, 억지로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종교, 특히 선(禪)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금물이다. 마을의 일은 하려는 마음을 내고, 노력한 끝에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공부는 흔적 없이 마음 써서 어떤 귀신도 훔쳐볼 수 없게 자신을 감출 수 있어야, 마침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긴다. 큰 믿음을 바탕으로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어 세월 따라 변화한 것을 수용하면, 다른 사람과 이익을 나누려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자기 분수는 볼 줄 모르고, 넘치려고 드는 것은 만심에 불과하다. 아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을 내려놓지 못한 허망한 기운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괜히 생각을 불러 일으켜
변화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흔적없이 마음을 써서
어떤 귀신도 훔쳐 볼 수 없게
자신을 감출 수 있어야
변화 수용할 수 있는 힘 생겨
자연스럽게 이익을 나눈다

인연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귀한 기회에 동참 못한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물러서지 않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르게
이익을 함께 할 것이다

《법화경》 회상에서 옷을 떨치고 떠나간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무리들이다.

법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 말씀을 소화한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희열을 느끼면서 동참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성문 제자들은 일어서 나갔다. 인연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재미가 없다보니, 그런 귀한 기회를 만나고서도 동참하지 못한 것이다. 불법을 소화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회상에 머물 수 있었지만, 안목을 열었어도 혜안에 머물러 불지견(佛知見)을 눈 열지 못한 입장에서는 소화가 안 된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가라, 말아라 말할 필요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떠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신심이 견고하여 물러서지 않고 함께 시간 보낸다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이익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내가 보리[無上正等覺]에 있어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저 묵묵히 계합할 따름이다.

'본래열반' 이다, '본래무심' 이다, '평상심이 도다' 는 말들을 소화했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눈뜬 것을 '중도 정견' 을 눈떴다고 하는 것이다. 중도는 돈오한 흔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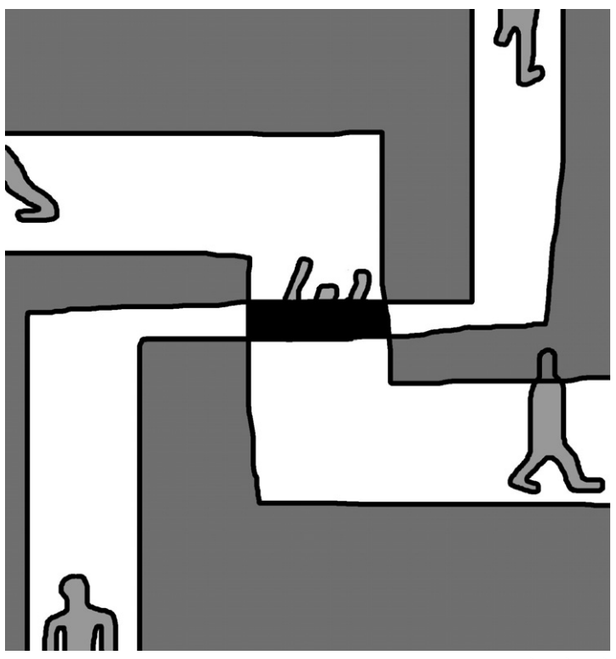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범부 중생들은 임종 시에 다만 오온(五蘊)이 공하고 사대(四大)는 무아임을 본다. 그러나 진심은 모양이 없어서[無相],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태어났다고 해서 성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해서 성품이 가는 것이 아니다. 담연(湛然)하고 원적(圓寂)해서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一如]. 다만 이와 같이 직하에 깨친다면, 삼세에 얽매이지 않고 세간을 뛰어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세간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불성(佛性)을 철견(徹見)해야 다시는 속지도, 속이지도 않게 된다.

간절히 바라건대 털끝만큼이라도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완벽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방소(方所)가 없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는 것은 미혹한 사람들을 위해 짐짓 하는 말이다. 실로 비출 것도 없고 비춰지는 것도 없는 줄 아는 사람은, 그저 흔적 없이 정진하며 스스로 비춰질 수 있는 입장을 취한다.

만일 모든 부처님께서 맞이해주시는 것 같은 가지가지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될지라도, 또한 따라가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만약 가지가지 나쁜 모양들이 나타날지라도, 역시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고 법계와 같아지면 바로 자재(自在)를 얻은 것이니, 이것이 곧 요긴한 대목이다."

여기서 '자재' 란 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천안(天眼)의 어리석은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신통이다. 본래 다 구축되어 있는 것인데, 생각을 일으켜 그런 업을 익히면 욕심이 생긴다. 상대가 나를 높이고 거기에 우쭐해지는 것은 제바달다의 경우에 잘 나타나 있다. 제바달다가 마치 부처님을 넘어서는 것처럼 신통을 부리니, 아직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휘둘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이것은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일이다.

법(法)은 무생(無生)

10월 8일 대사께서는 배휴에게 말씀하셨다.

배휴가 황벽스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간 것 같다. 한 나라의 상공임에도 그만큼 신심이 있다 보니, 찾아가서 법을 묻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황벽스님의 가르침이 기록으로 남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참고가 되고 있다.

화성(化城)이란 이승(二乘) 및 십지(十地) · 등각(等覺) · 묘각(妙覺)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중생을 이끌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이므로, 화성이라 한다.

성문 · 연각 · 벽지불 · 십지보살 · 등각 · 묘각 등이 전부 법신의 화현으로, 대각을 이룬 완벽한 입장이 아니면 열반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보배로운 장소[寶所]' 란 진심(眞心), 본불(本佛)이며, 자기 성품의 보배를 말한다. 이 보배는 사량 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는 아무 것도 세울 수 없다.

법은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 완벽하기 때문에, 무엇을 따로 세우는 순간 어지러워진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⑥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라 하지만 세간의 본성이 공한 것이 곧 출세간이다. 〈유마경〉

세간과 출세간의 교차

인간의 숙명은 세간(=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세간 속에서 태어나고, 세간 속에서 죽어간다. 그런 까닭에 세간이라는 '씨름판' 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수의 예외자가 있다. 그 '씨름판 밖' 을 사유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세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통찰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문제해결의 길을 세간 밖에서 모색해 간다.

출세간으로 들어가는 길은 출가(出家)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워하는 길이다. 세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그 세간을 벗어나는 꿈을 꾸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벗어날 꿈을 꾼다는 것, 그것 역시 인간의 숙명이자 운명이다. 주말이나 휴가 때마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난다. 그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출가' 이다. '의사(擬似)출가' 라 할 수 있다. 완벽한 출가가 불가능하기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여행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역사는 이 '세간' 과 '출세간' 의 두 가지 지향(志向)이 교차하는 역사라 할 수 있다. 세간 밖을 꿈꿀 때 출세간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간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고통이나 고뇌는 세간을 벗어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형성된 출가주의(=출세간주의)의 특징은 물론 세간의 포기인데, 그것은 노동의 포기와 봉사의 포기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간의 고통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출가주의가 갖는 효과는 강력하다. 그렇다고 해서 출가주의에 약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왜 세간에 있으면서 출세간에 있는 것처럼 살 수는 없는가?" 이런 강력한 반문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간에 있으면서도 출세간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재가(在家)주의라 할 수 있다. 노동을 떠나서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 가능성을 실험해 보는 것이 재가주의의 도전이다.

재가주의의 고향

부처님 역시 출가주의의 전범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 당시에는 아직 본격적인 재가주의의 문(門)이 열리지 못하였다. "과연 우리 불교사에서 재가주의가 꽃을 피운 시대가 있었던 것일까?"라는 질문의 제기 역시 가능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승불교를 일으킨 것은 출가자가 아니라 재가자들이었다는 학설이 힘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근래 이 '대승불교의 재가자기원설' 이 무너지면서, 역시 출가자들이 대승불교운동 역시 일으켰던 것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승불교와 재가주의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세간의 포기, 노동의 포기, 그리고 봉사의 포기를 그 핵심으로 하는 출가주의의 이념과 대승불교의 이념 사이에는 다른 차원이 놓여 있다. 오히려 대승불교는 재가주의를 그 핵심적인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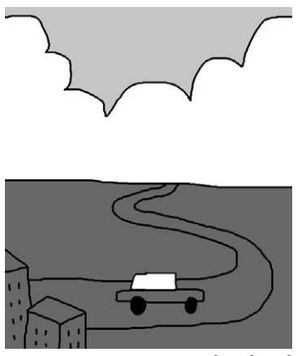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공(空)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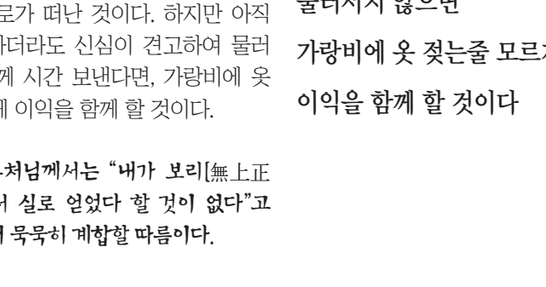
예를 들어서,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다. 즉 서로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 모두를 실체화할 위험이 있다. 실체화와 공은 서로 모순된다. 한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간에서 살아가면서도 세간적인 어떤 특성(예컨대 물질적 탐욕)으로부터 떠나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세간에 사는 것이 곧바로 출세간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를 우리는 재가주의의 이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념의 고향은 바로 공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한 〈유마경〉이다. 그러므로 대승불교가 대승불교일 수 있으려면, 결코 〈유마경〉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런 이념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유마경〉은 거사(재가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 연 락 처 : 010-3463-7806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설법 · 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지도교수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회장 김철회 박사
• 원장 처 명(선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수군 절도사 신헌을 초의에게 소개

〈벽해타운첩〉에 수록된 추사의 이 편지는 해남 우수영으로 부임했던 신헌(1810~1884)과 초의의 교유 시점을 밝힐 수 있는 자료이다. 실제 〈완당전집〉〈여초의〉에도 누락된 이 편지는 이번 연재를 통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셈이다. 특히 제주 적거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사는 지기, 초의를 위해 해남 수군절도사로 부임한 신헌을 소개한다. 이는 추사의 초의에 대한 배려와 함께 경화사족들이 초의와 교유하게 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 추사의 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처음 공개되는 초의와 신헌의 교유시점을 밝히는 〈벽해타운첩〉

해남 수군절도사에게 (사람을 사이에 넣어서) 부탁해 두었습니다. 이제 곧 (그대의)안부를 물을 것인데, 이 수군절도사가 그대를 보면 크게 기뻐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문을 풍문으로 듣는 것과 다를 것이요. 여기에서 보낸 사람은 바로 나와 삼대에 걸쳐 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제주도)나에게 와서 있다가 지금 돌아간다고 하기에 그에게 스님이 계신 선실을 찾아 가라고 했으며, 아울러 몇 자를 적었을 뿐입니다. 남평에서 나는 백책지 한 두 세권을 꼭 사서 대신 보내주심이 어떨지요, 비록 책지에 글을 쓰지만 백지는 희고 깨끗하며 단단하고 치밀한 것이 또한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좋은 책지가 없다면 계속해서 백지를 사용해야겠지요. 무환자나무로 만든 염주 3개는 (나에게)선차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보내니 받아주심이 어떨지요. 차를 따는 시기가 아직 이른가요. 아니면 이미 따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차일지 몹시 기다려집니다. 호의의 국축(菊軸)은 아직도 펴보지 못했고, 경월이 보낸 포장도 맛보지 못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웃음이 납니다. (海南水闡許有轉託矣 果即有問存而此闡見師 必大喜之不如他人之聲聞中逐影付響耳 此去人即吾三世舊物 而委見我入來 今方告歸 使之歷訪禪室 並付數字耳 南平册白紙 限二三卷 必爲代購以送 如何如何 雖書册紙 白紙之白淨堅緻者亦佳 然若有册紙無庸 更事於白紙耳 木槵念珠三串 是仙茶所充淨供者也 收領如何 茶候尚早耶 抑已始採耶

甚庸翹懸 縞衣菊軸 竟不即一示 鏡月泡漿 亦無可得喫耶 可呵)

이 편지를 보낼 당시 해남 수군절도사는 바로 신헌이었다. 그가 해남 수군절도사로 부임한 것은 1843년경이다. 그는 추사의 소개로 초의를 만난 후, 서로를 존중하는 예를 갖추었고, 소치를 자신의 막하(幕下)에 머물게 하는 등, 이들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보낸 인물이다.

그의 초명(初名)은 관호(觀浩), 자는 국빈(國賓)이요, 호는 위당(威堂), 금당(琴堂), 우석(于石)이다. 어려서 다산에게 수학했으며, 추사에게 실학의 요체를 익혔다.

특히 남평에서 생산되는 책지를 보내달라는 그의 요구는 격의 없는 벗에게나 할 수 있는 것. 추사의 종이에 대한 안목 또한 "비록 책지에 글을 쓰지만 백지는 희고 깨끗하며 단단하고 치밀한 것이 또한 좋습니다"라고 대목에서 드러난다.

당시 전라도 남평에서 우수한 종이가 생산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그는 좋은 차를 보내준 초의에게 무환자나무로 만든 염주 3천(串)을 증표로 보냈다. 이 나무는 제주 방언으로 "도욱낭", "더욱낭"이라 부르며, 열매의 껍질은 비누대용품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 나무의 열매로 만든 염주를 초의에게 보낸 것이다. 실제 이 염주는 추사가 손수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늘 좋은 차를 보내주는 초의에게 자신의 정성을 담아 보낸 증표이리라. 또 그가 "차를 따는 시기가 아직 이른가요. 아니면 이미 따기 시작했습니까"라고 한 것은 이 편지를 쓴 시점이 1843년 늦은 봄일 가능성을 드러낸 언구이다. 더구나 차를 갈구하는 그의 마음을 "뒤꿈치를 세우고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이는 제주 시절, 차에 의존된 그의 일상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추사는 초의이외에도 호의나 경원 등, 대둔사 승려들과 폭 넓게 교유했는데, 이는 호의가 국축(菊軸)을 보낸 일이나 경월이 장류를 보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세상과 별리(別離)된 곳, 제주의 척박한 환경에서 추사를 견디게 한 힘은 간단없는 배려. 곧 사람과 사람이 이어준 따뜻한 정이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WORLD BUDDHISM LEADER

108인 선정 고승들의 수행
미얀마에서 실시한 큰스님들의 7일간의 수행

미얀마 종교성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공을 이끌어 냈습니다.
연일 국영방송과 신문을 장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 이르켰고 미얀마 연방승가회 닥터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의 격려속에 3사 7증 큰스님들과 많은 스님들이 주관하는 의식 중에는 종교성 장관 내외 부장관 내외 차관 내외와 30여 국장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성황의 야단법석이였습니다. 성원해주신 전국의 큰스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합장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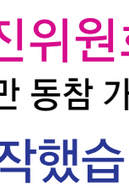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요.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 신청기간 : 2013년 5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의 명칭과 마크를 사용한 명함을 사용하고 사칭하는 스님들이 있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성 회복운동 전법과 다르지 않아"

고진광 대표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시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자가 아닌 활동가들의 신념, 시민들의 참여입니다."

지난 30년간 시민사회운동 현장 활동가로 지내 온 고진광(57)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대표는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고 대표는 1989년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의 창단 멤버로 참여하며 시민사회 활동과 인연을 맺었다.

1981년 인추협 전신인 원갤러너스(1갤런 이상 헌혈자들의 모임) 클럽을 결성한 고 대표는 인추협으로 명칭 변경 뒤 실천사업으로 '사랑의 일기' 보내기 운동, 혈맥잇기운동 등을 펼쳤다.

"당시까지만 해도 매혈이 성행했어요. 헌혈하는 이들이 없어 피를 사고 판다는 생각에 헌혈운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헌혈운동으로는 최초였지요. 당시 조계사와 명동성당에서 헌혈운동을 펼칠 때 수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이 아직도 보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헌혈운동을 넘어 시민운동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었다. 바로 1989년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한상 사건이다. 영화 '공공의적'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박한상 사건은 친부모를 살해해 불태운 패륜사건으로 종교 · 시민사회에 인간성 회복에 대한 움직임을 일게 했다.

"당시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렇게는 안되겠다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내탓이오 운동이 전개됐어요. 월주 스님 등 불교계에서도 이에 대한 뜻이 모였습니다. 구본흥 前MBC 사장 등 당시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당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하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때돈을 버는 등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도덕 ·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이중 인추협은 아이들이 자라며 자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랑의 일기운동'을 전개한다. 전국 500만 학생들에게 일기장을 무료로 보급한 사랑의 일기운동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당시 김대중 정권 시절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이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20년 동안 아이들에게 일기를 나눠주었다. 북한, 중국, 베트남, 미국 등에 보냈다"며 "당시 대기업에서 거액의 광고제의가 들어왔었다. 그때 광고 제휴를 했더라면 아마 빌딩 하나는 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랑의 일기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될 것을 염려해 당시 인추협은 광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경실련 등 오래된 여러 시민단체들은 후원금 등을 모아 사무실과 빌딩을 갖고 있어요. 인추협은 정말 순수하게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신념 하나로 사무실 하나 없이 30년간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 신념은 인추협을 지탱한 원동력이었다. 1990년대 학교 현장서 전교조가 합법화되며 '사랑의 일기' 운동은 전교조의 학생인권 침해 제기로 잠시 중단된다. 학부모 회원 중심으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이 조직됐고 전교조 합법화 반대운동까지 펼치게 된다.

당시 학사모 대표를 맡은 고진광 대표는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前국무총리의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전교조 해체 요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 대표는 이후 큰 시련이 닥쳐왔다고 전했다. 검찰이 인추협과 산하단체인 학사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로 인해 인추협은 사실상 문 닫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조사와 세무조사에서 인추협은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회원 개개인이 신념 하나로 활동한 결과였다.

결국 '사랑의 일기'와 '학사모'도 명맥을 계속 이을 수 있었다. 학사모는 2004년 전교조의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전교조로부터 민 · 형사 소송을 당했지만, 대법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란 명제 하에 민 · 형사 소송을 모두 승리했다.

고 대표는 이후 '재해극복범시민연합(재민련)'을 설립해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해외 재난구조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도 나섰다.

고 대표는 4년 동안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을 지내기도 했다. 한봉협은 2003년 적십자 재단, 굿네이버스 등 봉사단체 138곳이 뜻을 모아 만든 협의체로 정부의 자원봉사 정책 수립을 돕는 역할 등을 한다.

젊은이들 신명나게 불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그런 그의 신념은 바로 불교에서 나왔다. 고 대표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자로 자랐다.

1972년 20대 초반의 나이로 군에 입대한 고 대표는 수도경비사령부 경호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경호실 근무는 불자로서 그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줬다.

수경사 경호실 근무하며 불법홍포
청년불교운동 · '달마불청' 창립

종교초월 '사랑의 일기 운동' 전개
500만 학생에게 일기장 무료 보급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조직
전교조 해체 요구 발언, 시련 겪어

'왕따 방지법' 등 현 정부에 건의
청소년 국가관 심는데 남은 인생 매진

"당시 청와대에서 불교는 없었어요. 수경사에는 군종이 있었지만 청와대에 오니 없었습니다. 사병이었지만 경호실 근무로 알게 모르게 발언권이 있었기에 청와대 승무관에서 법회를 볼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수경사 병력 40명이 1972년 승무관에서 처음으로 법회를 보았습니다. 40명이 나중에는 200명이 됐습니다."

인원이 차츰 늘자 수경사에 법당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당시 수경사 병력이 성철 스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3000배 하고 성철 스님 만나서 출가하고 싶다고 하니 스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잘생겼으니 재가자로 포교도 하고 사회운동도 해라."

고 대표는 제대 후 1979년 29세의 나이로 대불청 서울불청 활동을 한다.

고 대표는 "뜻은 컸지만 젊은 사람들이 불교계에서 활동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았다. 특히 스님들이 재가자들의 활동을 반기지 않는 것이 한계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2011년 3월 창신동 판자촌 집수리 행사. 왼쪽부터 당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과 손인웅 목사, 고진광 대표



1997년 '사랑의 일기' 시상식에 나란히 참석한 월주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사랑의 일기는 불교 · 기독교 교류의 가교가 됐다.



2012년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서 찍은 초등학생 농촌 봉사 활동에서 아이들과 배추를 나르는 고 대표(사진 왼쪽)



2013년 2월 6일 참전용사들과 결연학생들이 함께 진행한 설맞이 돼지고기나눔 행사 장면



고진광 대표는 … 1956년 태어난 고 대표는 영국 맨체스터 대를 수료하고 고려대 경영대학원, 정책대학원 최고위 과정, 경남대 북한대학원 민족공동체지도자 과정, 경희대 NG대학원 정책과학대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1년 원갤러너스 클럽 회장 및 달마불교청년회 초대회장을 지냈다. 88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사무총장, 91년 KAL기 피격 진상조사단장, 92년 기초농산물지키기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실종자 서울시 민간심의위원, 사랑의일기보내기 범국민운동본부장, 96년 한국민간자원구조단 초대단장 등을 지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재해극복범시민연합 집해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1989년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를 설립해 2004년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일선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인추협 대표이자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청년회도 선거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 나와서 달마불교청년회를 만들고 활동했어요. 점차 불교계에서는 스님들 뒷받침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는 젊은 사람이 나서서 활동하면 밀어주는데 불교계는 그런 응집력이 없었어요."

이 무렵 고 대표는 결혼을 하게 된다. 당시 청화 스님이 축사를 하고 미당 서정주 선생이 주례를 보았다. 시흥 심원사를 꾸준히 다닌 고 대표의 눈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부인과 결혼하며 점차 시민사회로 향한다.

"인간성 회복 운동을 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특히 불교를 내세우기 보다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보다 많은 이들의 동참을 이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일기' 운동은 불교와 천주교가 소통하게 된 계기가 됐다.

"1980년대에는 천주교와 불교가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등 사랑의일기 운동을 함께 하며 서로 교류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수많은 활동 중에도 고 대표는 아직도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부인이 현재 성모병원 대외협력팀장으로 있습니다. 천주교의 경우 결혼할 때 혼배성사를 해야 합니다. 천주교 신자의 결혼에는 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인한테 이 말을 했어요. '마누라는 바꿀 수 있어도 집안 대대로 내려온 종교는 바꿀 수 없다' 고요."

고 대표는 그로 인해 승진 등에 피해를 받은 부인의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전했다. 고 대표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 대표 관훈성배를 해라' 고 귀유하셨다"고 전했다.

고 대표는 "이제는 종교 자체보다 그 본질을 우리 사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혼동의 사회에 불심을 갖고 큰 바퀴를 굴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들 인성 교육에 우리 사회 미래 있어

현재 고 대표는 6 · 25 참전 유공자와 청소년들을 맺어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고 대표는 "올해로 정전 60주년을 맞이하는데 6 · 25 참전 유공자들의 대다수가 86~87세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며 "18만 명이 현재 생존해 있는데 중학생들과 참전용사를 연결해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연 학생들은 참전 유공자 봉사활동과 함께 후원모집 등을 전개한다. 4월 17일에는 510명의 학생들이 참전용사와 자매결연을 맺는다.

고 대표는 "요즘 중 · 고생은 물론 대학생까지 자원봉사를 단순히 스펙쌓기로 보는 경향이 많다"며 "인성을 개발하고 스스로 사회 기여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폭력에 연루된 아이들이 6만 2000명이 넘습니다. 피해를 받은 아이들만 35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인간성 회복의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고 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에 △왕따 방지법 △청소년 교육을 위한 맹모휴가 △특별학생재판부 구성 △체벌면책특권 △학교폭력 은폐 원아웃제 도입 등에 64만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다.

고 대표는 "인추협이 초창기로부터 걸어온 지난 30년은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초석이 될 것"며 "이제는 정신운동으로서, 사회개혁운동으로서 정부가 못하는 일을 찾아 사회 구석구석 필요한 손길을 찾아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내 가족에게는 소홀했던 것 아니었나 하는 반성도 하고 있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은 고 대표는 "현장 경험 밖에는 내세울 게 없는 나를 30년 넘게 믿고 따라준 이들도 또 다른 가족"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2년 대학생 연탄자원봉사에서 연탄을 나른 후 학생들, 독거어르신과 함께 정을 나누었다.(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전법일기

사진 속의 우리절 신행

사람은 가도 사진은 남는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오래전 한 카메라 회사에서 썼던 광고 카피다. 기억의 유한성과 기록의 무한성을 강조한 명언이다. 광고 카피는 때때로 명언으로 남는다.

나는 거의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긴다. 글로 남기는 건 날마다 꼼꼼하게 쓰는 일기와 사무장이 쓰는 일지가 대표적이다.

언제 누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적어두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게 되고 자원봉사 통장에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일지를 세밀하게 쓰라고 사무장에게 말한다.

물론 보살행을 하는 봉사자 입장에서는 통장에 기록하기 위해 봉사를 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주최자인 종무소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봉사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사진은 기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체다.

백 마디의 말보다 사진 한 장이 더 나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절에서는 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진으로 빠짐없이 기록한다.

한 달에 세 번 어르신 공양 때는 신도들이 전날 콩나물 다듬는 것부터 시작하여 어르신들이 공양드시는 모습, 봉사자들이 밥을 짓거나 음식을 나르는 모습까지 다 기록한다.

독거노인 가구에 반찬을 갖다드리기 위해 음식을 조리하거나 도시락을 싸서 배달하는 모습도 사진 기록의 대상이다.

특별한 행사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 대웅전 삼존불 복장을 열던 날은 카메라 두 대의 셔터를 쉬지 않고 눌러댔다. 부처님오신날 관불(灌佛) 장면이나 봉축음악회 때 열창하는 가수들도 카메라를 거쳐 컴퓨터 하드디스크 속에 온전히 살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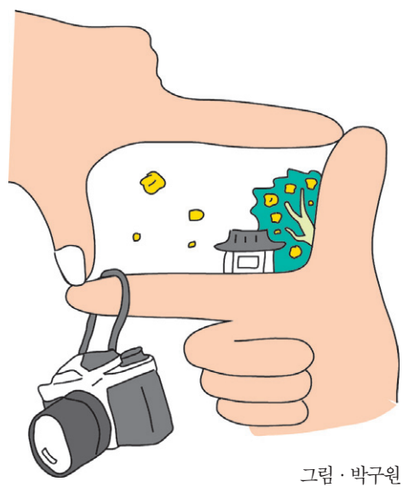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한 달에 한 번 불기 닦는 장면도 빠뜨리지 않는다. 매양 그 분이 그 분이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을지라도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떤 신도님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사진을 보면 다 나타난다. 사진을 통해 신도들의 보살행을 볼 수 있다.

법회라고 다르겠는가. 큰스님 · 작은스님 할 것 없이 법문하는 모습도 담고, 기도하는 신도들의 진지한 표정도 담는다.

전체의 모습을 잡기도 하고 신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따로 담기도 한다.

공사를 할 때도 예외가 아니다.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카메라가 따라붙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지된 모습으로 잡는다.

철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전기 배선이 어디로 지나갔는지 사진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다. 절 사진은 주로 사무장이 찍는다. 노출이 맞지 않기도 하고 초점이 나간 사진도 많지만 아무튼 꾸준히 찍는다.

매주 일요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법회를 하는 모습은 교사들이 촬영한다. 아이들이 합장하는 예쁜 모습도, 도자기를 만들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공놀이하는 모습도 촬영한다. 아이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우리절에서는 가끔 전시회를 한다. 도량이 좁고 전시할 공간이 마땅찮기 때문에 대웅전 바깥벽에 두꺼운 합판을 붙이고 사진 액자를 내건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 법당을 한 바퀴 돌면서 사진을 본다. 거기에는 우리절의 모든 모습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액자 속에서 순간은 영원으로 빛난다.

사진은 액자와 하드디스크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진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낼 때 동행하여 신문에 얼굴을 내밀거나 인터넷을 통해 개개인의 모니터를 장식하기도 한다.



때로는 인쇄물에 자리 잡기도 하고 맑은 인화지에 새겨져 앨범 속으로 들어가 추억이 되기도 한다. 세월따라 사람은 가도 이렇게 사진은 남는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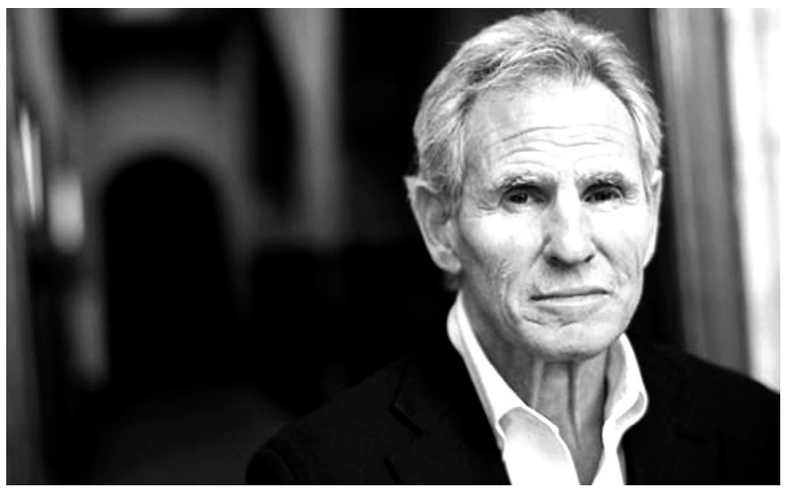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명상치료… 의료보험혜택 받아야"

英 가디언, 존 카밧진 인터뷰


MBSR 프로그램을 개발한 존 카밧진 박사 (사진출처=guardian.co.uk)

"건강한 사회, 부처님 통찰력과 이를 활용한 실용성에서 찾아야"
MBSR은 불교 핵심 응용한 치료법

'명상이야 말로 인류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편'이라는 신념으로 미국·영국 등 세계 10여 개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과학자가 있다.

영국 가디언(guardian.co.uk) 지는 7일자 보도에서 '명상 전도사' 존 카밧진(Jon Kabat-Zinn · 미국) 박사를 조명하고, "명상은 인류와 그 사회에게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는 명상에서 더 많은 것을 사유하고 증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의 말을 전했다.

카밧진 박사는 15년 전부터 '명상에 근거한 스트레스 감소(이하 MBSR)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 진행하면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지구촌 곳곳에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의료기관 60%에서 그의 명상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게 된 것도, 영국의 의학 · 심리학계에서 그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게 된 것도, 모두 그에게서 계기를 찾을 수 있다.

"MBSR 연구를 시작할 당시 의과대학에서 '근육발달과 분자생물학'이라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제게 배운 것을 환자에게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까?' 그들의 도움을 받아 추론한 결과는 '환자들 중 15~20%'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명상 전도사'로 적극 나서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이후 카밧진 박사는 치유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명상치유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임상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논문 등 20여 종의 저술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의 연구 성과는 미국 의학계는 물론 뒤이어 영국 의학 · 심리학계의 이목을 붙잡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성과 중 '명상에 기반한 통증치유' 관련 연구는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 병원들이 명상치유프로그램을 응용하는 단초가 되었다. 또한 영국의 '국립건강관리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의 요청을 받아, '명상에 기반한 인지치료(이하 MBCT)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MBSR, MBCT 관련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참여에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상승을 피할 수 없고, 대부분의 의료 환경에서는 그 몫이 대부분 환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국가의료시스템이 이들 프로그램을 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디언 지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지탱하는 보험회사에서는 MBSR, MBCT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영국 역시 국가의료보험시스템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 통증, 스트레스, 우울증 등은 사람 나아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한다면 그것들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갈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사회의 어두움 역시 더욱 짙어갈 것입니다."

현재 그의 명상치유 프로그램은 다우닝가(Downing Street), 실리콘벨리(Silicon Valley) 등의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미군(US military), 영국군(UK military)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디언 지는 존 박사의 말을 인용, "명상치유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는 부처님의 통찰력과 이를 응용하는 실용성"이라고 강조하고, "사람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연민이 한 방울씩 더해져간다면, 존 카밧진 박사의 희망, '명상치유의 보험혜택'은 먼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인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를 치유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스리랑카 불교계, 콜리우드 영화 거부

타밀계 영화 스타와 제작자 '타밀족 처우 개선 요구'에 반발


스리랑카 불교도들이 타밀계 인도인들이 만든 콜리우드(Kollywood) 영화 간판에 우유를 뿌리고 있다.

인도 영화가 스리랑카 극장에서 계속 상영될 수 있을까?

트루디브(truthdive.com) 지는 10일 "스리랑카 불교계가 국내에서 콜리우드(Kollywood) 영화의 극장 상영을 규탄하며, 앞으로 관련 영화 개봉 금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영화산업은 발리우드(Bollywood)와 콜리우드(Kollywood)로 나뉘어 있는데, 이중에서 스리랑카 불교계가 콜리우드의 영화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콜리우드 영화란 타밀계 인도인들이 모여 있는 남인도 첸나이(Chennai)와 타밀나두(Tamilnadu) 지역의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를 일컫는데, 신선한 소재와 독특한 기법으로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리랑카 불교계가 이들 영화 상영에 제동을 건 까닭은, 콜리우드의 영화 스타들과 제작자들이 스리랑카의 소수 민족으로 전락한 타밀족을 후원하는 한편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타밀족을 냉대하는 스리랑카 사회를 비난하는 데 따른 것이다.

'콜리우드 영화 상영 금지(Ban Kollywood movies)'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불교단체 라바나 바라야(Ravana Balaya)의 사다티싸(Saddhatissa) 스님은 9일 공공공연위원회(Public Performance Board)를 방문, "우리는 스리랑카에서 콜리우드 영화 상영 자체를 반대하며, 특히 라지니칸트(Rajinikanth), 카말 하싼(Kamal Hassan), 사라트 쿠마르(Sarath Kumar) 등의 출연작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불교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남인도영화노동자연맹(Film Employees Federation of South India)과 타밀나두영화감독연합회(Tamilnadu Film Directors Association)은 인도 현지에서 '스리랑카 타밀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한 데 이어, 이달 2일 라지니칸트, 카말 하산 등 타밀계 영화 스타들이 동참한 '반 스리랑카(Anti-Srilanka)' 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스리랑카 불교계의 '요구'에 대해 가미니 수마나세케라(Gamini Sumanasekera) 공공공연위원회 의장은 "불교계의 요구는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일축하고, "정부가 나서 사회적 갈등의 고리를 끊는 노력과 함께 영화산업과 관련해 스리랑카와 인도 간의 통상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트루디브(truthdive.com) 지는 "타밀계 인도인들이 밀집해 있는 첸나이, 타밀나두, 뉴델리 등의 주에서는 이미 스리랑카와의 통상 마찰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콜리우드 영화가 스리랑카의 민족적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것은 물론 인도와 스리랑카의 지역적 갈등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기독교·이슬람 화합하는 종교도시

佛 부시 생 조르주 시… '종교지구' 설정 · 종교시설 한군데 모아


프랑스 부시 생 조르주 시에는 불교 · 이슬람교 · 기독교가 공존하는 유럽 최대의 종교시설이 들어선다.

프랑스 파리 인근의 소도시인 부시 생 조르주 시가 종교간 화합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부시 생 조르주 시는 불교와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시설을 하나의 구역에 함께 갖춰 종교 간 소통을 실현할 예정이다.

부시 생 조르주 시의 이런 방침은 시 설립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1985년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일드프랑스 지방 센에마른 주에 부시 생 조르주 신도시를 건설했다. 당시 토착인구는 500명에 불과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3만명의 소도시 규모로 성장한다.

이민자들은 길거리와 주차장 등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부시 생 조르주 시는 '종교지구'를 설정하고 종교시설 유치에 나섰다.

위그 롱도 現시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지구는 이민자들이 주요 도시민인 상황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이었다"며 "일종의 종교간 대화를 위한 실험실"이라고 말했다.

시가 종교시설 유치에 나서자 2012년 7월 1일 대만 불광산사가 2000만 달러를 들여 유럽 최대의 불교사원을 건립했다. 각 나라 불교계와 유대교 예배당, 이슬람 사원, 아르메니아 정토회 문화센터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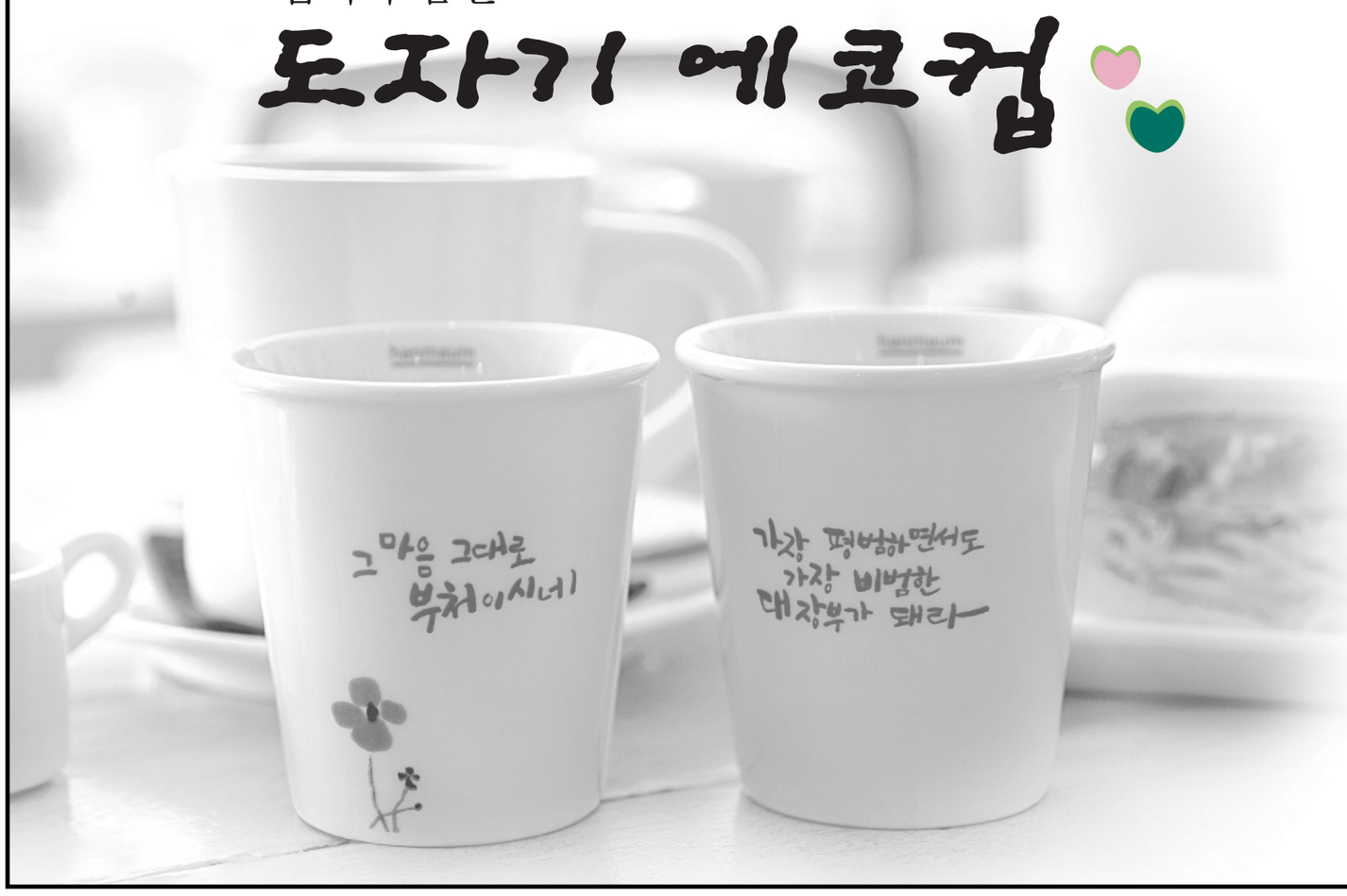
유네스코는 부시 생 조르주 시를 '종교간 대화 도시'로 평가하고 있다. 이곳에 종교지구에 들어선 종교시설들은 개방과 상호인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령 종교지구 이슬람 사원의 경우 다른 곳과 달리 이슬람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열려있다. 이 지역 이슬람 신자들은 불교 신자들과 함께 유대교 예배당을 짓는 곳에 나무를 심기도 했다. 불교 신자들은 가톨릭교회를 찾았고, 가톨릭 신부는 불교 사원의 음력 설 행사에 참석했다.

종교지구에도 문제는 있다. 1905년 프랑스가 정교분리를 규정했기에 종교시설에는 어떤 예산도 지원받을 수 없다. 자연발생한 종교시설과 달리 종교지구에 모여있기에 신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현재 대만 본부의 지원을 받는 불광산사 사찰 외에는 다른 종교시설들은 운영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아기부처 '관욕'하는 미국 어린이 관음선종 총본산인 프로비던스 젠센터(홍법원) 어린이 신도들이 관욕식을 하고 있다.
숭산 스님이 창건한 관음선종의 미국인 제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음력이 아닌 양력에 지낸다. 전국 30여 센터에서 회원과 법사들이 4월 5~7일 봉축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다.
부처님오신날 홍법원 신도들은 비빔밥 대신 채식 부리또(burrito)와 샐러드를 먹는다.
(사진 · 기사제공=미주불교신문)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 〈벽암록〉 –

聖鐘社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聖鐘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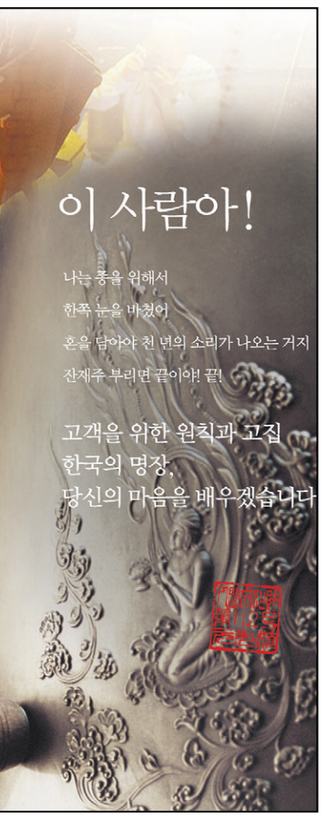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버렸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 공단등(6㎝)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 @3,2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 @6,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 @13,000원 (12개이상)
- 공단등(20㎝) @35,000원 (4개이상)

- 비단접등(100개) @350,000원 (1Box)

- 비닐만월등(100개) 150,000원 (1Box)
- 영가만월등(100개) 150,000원 (1Box)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1Box)
- 장만월등(국산) 200,000원 (1Box)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1Box)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1Box)
- 종이주름등(200개) 160,000원 (1Box)
- 등철사(100개) 6㎝/8㎝/10.5㎝/12㎝ 75,000원/80,000원/85,000원/90,000원

★국산★ 방수전선 (한줄50구)
23㎝ / 25㎝ / 30㎝ 5줄이상@ 70,000원 | 50㎝ / 1m / 2m 기타주문생산



비닐만월등
파랑, 진분홍, 노랑, 분홍, 초록

연화만월등
파랑, 노랑, 분홍, 초록

바림등
빨강,연분홍,진분홍,주황,보라,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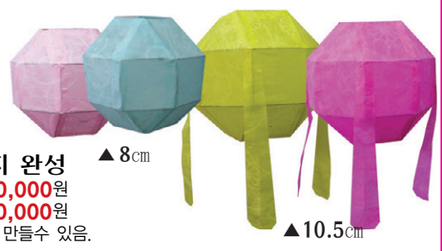
청사초롱



공단·바림 칼라등



한지칼라등지 완성
8cm 30,000원
10.5cm 40,000원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8㎝
▲10.5㎝



봉축카드[21종]
@300원(1,000장 이상)
구성 :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 18.5×25.6cm



LED전구
110,000원[국산]
1BOX : 50개 (0.87W)
색상 : 촛불색/주광색/빨간색



고추전구/대추전구
22,000원/30,000원
1BOX : 100개
고추전구:10W / 대추전구:8W



인등전구/LED인등전구
15,000원/40,000원
1BOX : 100개
인등전구:촛불색/LED인등전구:주광색



PVC등표
12,000원
(100개)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14.5㎝)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봉축 알리는 동서양 음악의 향연

니르바나 필하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

부처님오신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니르바나 필하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의 공연은 불교와 현대음악의 접목을 시도해온 불교계 대표 음악회 중 하나다. 니르바나의 24회 정기 연주회 '부처님을 노래하다'가 4월 24일 저녁 7시 30분 KBS홀에서 열린다.

강형진 단장은 "연등축제를 널리 알리고 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음악회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정신을 전달하는 공연이다. 상생과 화합이라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동서양 음악의 융합, 솔리스트와 합창의 하모니 등

4월 24일 7시 30분 KBS홀서

수익금 일부 국제구호단체 전달



니르바나오케스트라 24회 연주회 포스터

맑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부처님의 사상을 표현하게 된다. 올해는 음악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고려해 자연을 묘사한 가곡과 부처님을 찬탄하는 아름다운 가사의 찬불가 향연을 펼치고자 한다.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탄신을 함께 즐기고 경축하는 뜻을 공연으로 펼쳐 풍성한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KBS-1TV 'KBS중계석' 프로로 전파를 타며 공연 수익금 10%는 국내외 구호단체 '자비를 나누는 수레꾼'에 전달된다. 티켓은 VIP석 100,000원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이다. (02)2157-077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한다.

특히 이번 연주회(음악감독 김의명, 지휘 원영석)에서는 200여명이 넘는 합창단이 자연을 묘사한 대중적인 가곡과 부처님을 찬탄하는 아름다운 가사의 찬불가 향연을 펼친다. 지휘에 원영석, 소프라노 정행 스님 · 김성은, 테너 정우진, 바라톤 김재일, 베이스 김성민, 해금 성의신, 국악인 오혜원 등이 출연 축제를 위한 서곡, 배띄워라, 마음꽃, 석굴암, 향심, 행복, 춘향가 중 사랑가, 얼 등을 공연한다.

강 단장은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5명의 성악솔리스트, 판소리, 해금독주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엮어가는

무학대사의 일대기 오케스트라로

경기북부 市 사랑 자비나눔 음악예술제

무학대사의 일대기를 주제로하는 '제9회 경기북부 市 사랑 자비나눔 음악예술제'가 5월 3일 오후 6시20분 의정부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예술제는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지역 8개시와 3개군 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연합합창단과 예술인들이 참가해 축제의 장을 펼친다.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는 "무학대사의 생애와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우리 민족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인물들의 일대기를 그려내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북부 市 사랑 자비 나눔 음악예술제'는 봉축법요식에 이어 '무학대사 일대기'를 오케스트로 펼친다. 특히 '무학대사 일대기'는 탄생-출가 그리고 수행-태조 이성계와의 만남- '살맛나는 세상을


경기북부 시 사랑 자비나눔 음악예술제가 5월 3일 열린다.

위하여' 순으로 진행되며 연주는 니르바나오케스트라가 맡는다. 무학대사(1327~1405)는 고려말과 조선초 불교계를 개혁한 인물로 선사상을 수용하고, 불교와 사회의 개혁을 시도한 대표적인 스님이다. (031)527-1956

정혜숙 기자

한암·탄허 스님 선필 한자리에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전 국립중앙박물관서


한암 스님


탄허 스님

한암 스님은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지키고 법맥을 계승한 근대 한국 불교를 중흥한 대표적인물이다. 또한 그의 수제자인 탄허 스님은 근현대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끈 최고의 학승이며,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유불도(儒佛道) 삼교에 능통한 대석학이었다.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한암 · 탄허 스님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4월 16일~6월 16일까지 테마전 '한국의 큰스님 글씨-월정사의 한암과 탄허'를 개최한다.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고 석가탄신일과 연계해 기획된 전시에는 안양 한마음선원, 평창 월정사, 대전 자광사, 양산 통도사, 서울 탄허기념박물관, 탄허불교문화재단에서 대여한 서예작품, 탁본, 현판 등 80여점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는 오대산 월정사의 한암(1876~1951) · 탄허(1913~1983) 스님의 글씨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스님들의 글씨는 한국 서예 전통에서 선필(禪筆)의 범주에 속한다. 선필은 품격과 개성의 표현 방식으로 깨달음을 표출하는 글씨이지만, 넓게는 스님의 글씨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박성원 학예연구사는 "근현대 변혁의 시대를 살다간 두 스님은 전통적인 유학과 고전을 수학하며 성장했다. 그래서 두분의 글씨는 넓은 의미에서의 선필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 글씨는 불교의 경전과 깨달음, 고전의 경구, 삶의 자세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유연하게 쓴 한문 글씨뿐만 아니라 잔잔한 한글 글씨가 갖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며, 특히 편지글에서는 글씨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한암 스님의 작품은 스님의 학식과 인품의 면모를 보여주듯 글씨풍은 단정하고 정적인 필치로 격조 높은 선비의 글씨를 보는 듯하다. 스님이 남긴 편지 글은 근대 국한문, 한글 글씨의 중요한 자료다.

한암 스님은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학문을 닦던 중 불교에 귀의했다. 당대의 유학과 불교학의 권위자였던 한암 스님은 그

4월 16일~6월 16일 테마전

병풍 액자 부채 등에 담긴 글씨

스님들의 자취와 사상 보여줘

7월부터 전국 순회 전시도

학문과 인품을 존경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승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인들이 찾고 따랐으며, 그의 수제자 중 한 명이 탄허 스님이다. 특히, 스님은 1951년 1.4 후퇴 때 오대산 상원사의 소각 위기를 온몸으로 지켜낸 분으로도 유명하다.

한암 스님의 수제자인 탄허 스님은 상원사의 대화재로 소실된 한암 스님의 연구와 관련 자료를 복원했다. 또한 스승의 뜻을 이어 전소된 월정사를 중건했으며, 평생에 걸쳐 추진한 화엄경 및 불교 경전 번역 사업을 통해 불경의 한글화라는 큰 뜻을 펼쳤다. 늘 대중과 가까이 했던 탄허 스님은 필묵을 즐겨 생전에 많은 글씨를 남겼다.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한암 · 탄허 스님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4월 16일~6월 16일까지 테마전 '한국의 큰스님 글씨-월정사의 한암과 탄허'를 개최한다. 작품 위가 탄허 스님의 '심심심', 아래가 한암 스님의 '백운대'

이는 대부분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이들에게 남겼던 것으로, 스님이 전하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었다. 스님의 글씨는 한암 스님의 글씨와는 달리 활달하고 기세가 빠른 필치가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채 병풍 액자 편지 등에 새겨진 스님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암 스님의 백운대, 진묵대사 답장, 한서운 답장 그리고 탄허 스님의 지풍, 진묵대사 모친 추모문, 심심심, 향상일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일에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심층적 해설을 접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7월 국립공주박물관, 9월 국립전주박물관, 10월 월정사성보박물관, 12월 국립춘천박물관 등 전국에 걸쳐 순회한다. (02)2077-9558

정혜숙 기자

禪불교문화의 보고 '선림원'을 엿보다

국립춘천박물관 제 2전시실서

통일신라의 선(禪) 본산 선림원을 통해 통일신라시대의 역사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은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테마전 양양 '선림원'을 상설 2전시실에서 개막했다.

강원지역은 신라 후기 선종의 본산이었으며 선종 9산 가운데, 도윤(道允)의 사자산문(獅子山門, 강원 영월 흥녕사, 지금은 법흥사)과 범일(梵日)의 사굴산문(강원 강릉 굴산사)이 강원지역에 자리 잡았다.

춘천박물관 이용현 학예연구사는 "강원도 양양에 자리잡은 선림원(禪林院)은 804년경에 창건, 홍각선사가 번창시킨 사찰로 당대 최고 수준의 선수련원이었다. 10세기 전후에 대홍수와 산사태로 매몰되었다고 전하는 선림원은 산골짜기 계곡을 앞에 두고 터를 잡고, 가로로 길게 금당 조사당 등 건물을 세웠음을 짐작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지금도 선림원터에는 삼층석탑(보물 제444호), 부도(보물 447호), 석등(보물 445호), 홍각선사비 귀부 및 이수(보물 제446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명문이 있는 종, 수막새와 암막새 등 기와, 토제 소탑 등 발굴 유물 등을 통해 통일신라 선종 사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홍각선사비편, 소탑, 기와, 풍탁 등이 전시된다. 소탑은 공덕을 쌓기 위해 사리, 불경과 함께 탑 안에 봉안되는데, 선림원 소탑은 실제 탑과 같은 양식을 보여준다. 또 연꽃무늬 수막새, 당초무늬 암막새, 연꽃무늬 마루수막새와 도깨비무늬기와 등 다양한 기와도 선보인다. 홍각선사비는 9세기 후반 신라의 명승인 홍각선


춘천박물관 선림원전 기와 전시품

사 생애와 활동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특히 당시 유행하였던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 새겼다. 이 전시에서는 전시품을 통해 당시 양양 선림원의 웅장한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033)260-1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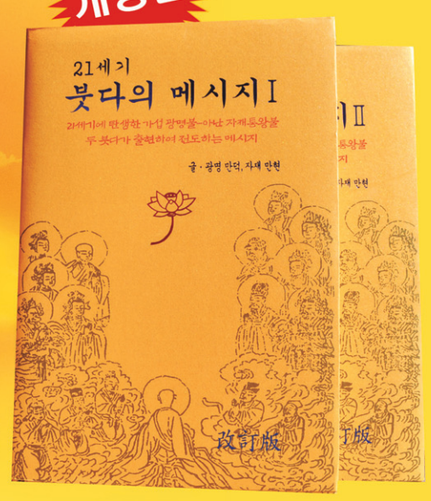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3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개정판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어야 할
영산불교 현지사의 양서

영혼체 윤회론
[158쪽 10,000원]
2천년간의
무아와 윤회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다

관음태교
[227쪽 10,000원]
영혼체 태교법인
관음태교의
이론과 실제

추천 도서

영산불교 새천수경
[131쪽 7,000원]
천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음신앙을
바로 정립한 역작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
[33쪽 무료배포]
현지사 천도재 안내

靑紅으로 펼치는 禪의 미학

'선禪-2013 법관스님' 展

"저에게 있어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곧 수행은 아닙니다. 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다음 나머지 시간에 그림을 그리죠. 다만 그리는 그 순간만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그림이 되죠"

법관 스님의 '선禪-2013 법관스님'이 4월 19~2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열린다. 스님은 단순한 원색 채색으로 순간순간 마음의 법문을 붓으로 표현해낸다.

법관 스님의 선화는 먹이 아닌 빨강과 파랑의 향연이다. 왜 먹이 아닌 채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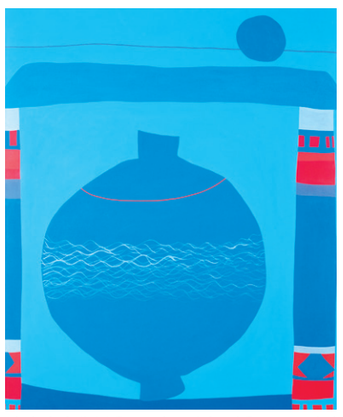
4월 19일~2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

선화를 그리냐는 질문에 스님은 사찰 탱화와 단청을 보다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님은 빨강과 파랑을 통해 여백을 표현하고자 했다.

"단조로운 가운데에서도 선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먹으로 선을 그리면 여백이 남잖아요. 제 그림 역시 채색을 하지만 여백을 많이 두어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수행을 통해 얻어진 선적이 느낌을 드러내다보니 자연스러운 채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그림은 전통과 현대, 구상과 비구상을 오간다. 그래서 질푸름에서 하늘색까지 혹은 샛빨강에서 주황까지 채도의 차이를 통해 사물을 표현하고 또 禪을 표



파랑바탕에 붉은 포인트가 눈길을 끄는 법관 스님 선화.

현한다. 세상은 온통 파랗기도 하지만 또 붉기도 하고 텅 비어 보이는 듯하지만 그 안에는 도자기가 봉긋 올라와 자리를 잡기도 하고 파도가 출렁이기도 하며 꽃이 피어올라 세상에 향기를 전한다.

그래서 스님의 그림은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함 원색적 색감이 무궁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며 심연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그래서 스님은 그 무한한 선의 세계를 이렇게 말한다.

"마음 끝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붓을 따라 반조하여/ 붉은 색조 한입 물고 솟구쳐/푸른 물속 거꾸로 치달으니/ 내 어리석음 그대로 드러나네/ 한발 내딛는 것이 은산철벽이라/ 그림 속 저 차가운 물/ 건져 올릴 수 있다면/ 내 어찌 붓을 내 던지지 않으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네"

법관 스님은 현재 강원도 암자에서 정진중에 있다. 오프닝은 4월 19일 오후 5시. (02)580-1300 **정혜숙 기자**

통도사박물관 '오덕사 괘불탱전'

4월 12~10월 12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이 부여 오덕사 괘불탱(보물 제1339호)을 4월 12~10월 12일까지 전시한다.

오덕사는 충남 부여군 충화면 오덕리 금계산(金鷄山)에 위치한 사찰로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말사다. 창건 당시 뒷산인 금계산에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하여 오덕사라 불리며, 사찰과 관련된 사적기(寺蹟記)나 관련 기록은 거의 없는 편이다.

'오덕사 괘불'은 1768년(영조英祖 44)에 제작된 대형 야외의식용 불화다. 화면은 세로 857.0cm, 가로 558.0cm 크기의 삼베바탕에 본존인 입상 석가여래를 크게 강조하고 좌우에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를 배치했다.

오덕사 괘불은 구성과 색채가 다른 괘불과 크게 다른 것이 특징이다. 통도사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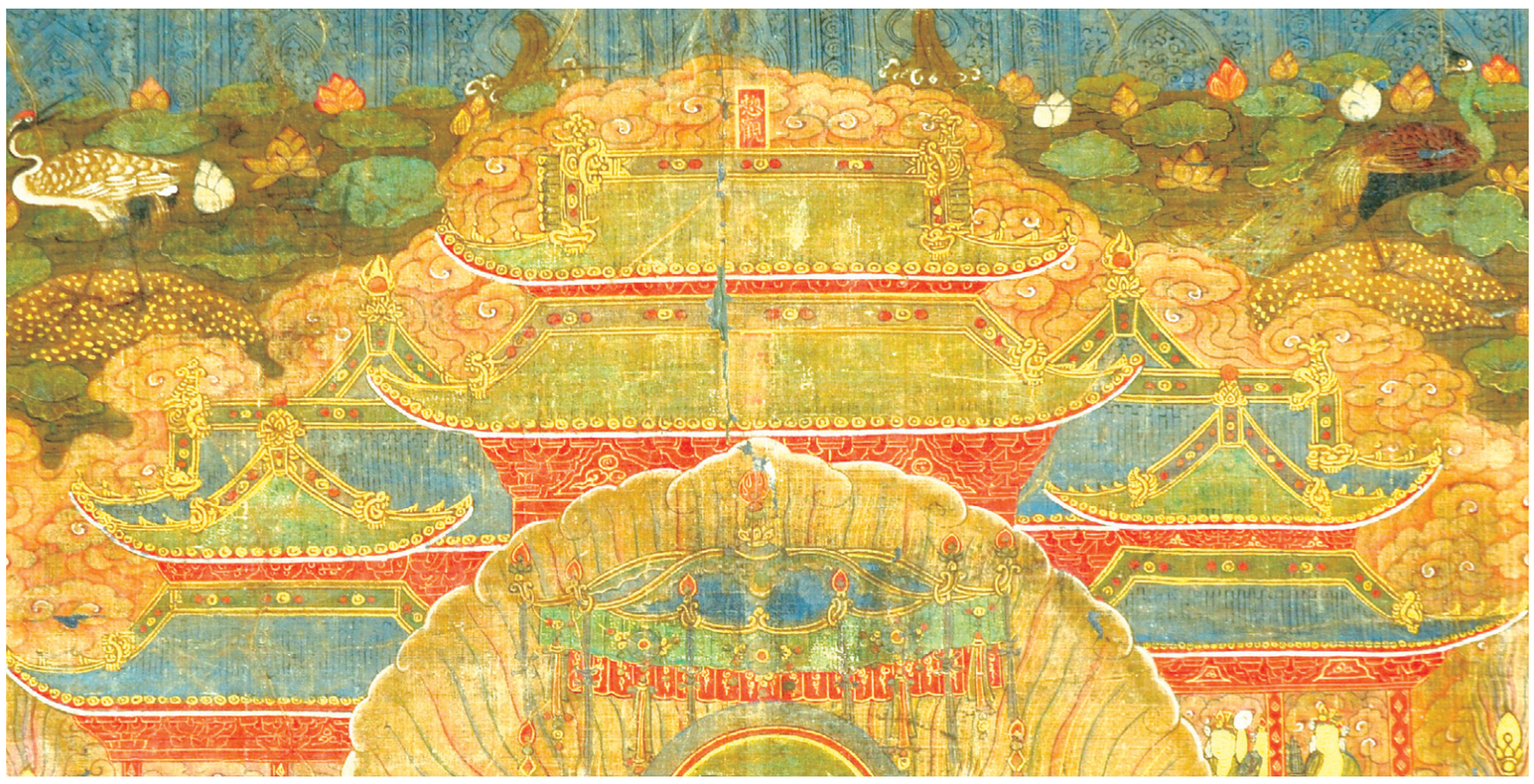
오덕사 괘불

물관은 "대부분의 괘불들이 본존인 석가여래상의 신체를 대장부와 같이 당당하게 표현한다. 하지만 오덕사 괘불의 석가여래상은 몸이 호리호리하고 하체를 길게 표현하여 키를 매우 크게 그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보통 괘불이 상체를 크게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덕사 괘불은 매우 파격적인 변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치미(鴟尾)→용미(龍尾) ㊦

용마루 끝 '용꼬리'가 놓이는 것 당연



일본 지온인 소장 1323년 고려관경 변상도. 용으로 장엄한 지붕끝에 보이는 것이 바로 치미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치미는, 고대 건축에서 특히 궁궐이나 사찰의 법당 등, 전통 건물의 용마루 양쪽 끝머리에 얹는 기와를 말한다. 궁궐이나 법당이라는 건축을 완성할 때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삼국시대 백제나 신라의 치미들이 적지 않게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그 모양은 현실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이다. 그러면 현실에서 본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여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바로 치미(鴟尾)이다.

지붕에 얹은 솔개의 꼬리 '의문'

그러면 치미란 무엇일까? 경주 생활 15년 동안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치미였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누구에게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처음 보았을 때 로마 병사의 투구 같았다. 아무리 보아도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궁궐터와 금당 터에서 반드시 출토되는 치미(鴟尾)가 무엇인가 하여, 사전을 찾아보니 '올빼미'라 했다. 실망이 커서 '올빼미 꼬리'라고 부르며 자조(自嘲)했었다.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 '솔개'라고 했다. 그제야 일본학자들이 솔개라고 인식했음을 알았다. 치미의 형태가 긴 날개

중국 고대 우주생성론 반영

용꼬리 솔개꼬리로 불러서야

형이상학적인것 그대로 인정해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와 전공자들도 관습적으로 치미라고만 불렀지 '솔개'라고 말하는 경우를 듣지 못했다. 따라서 치미라는 것이 '솔개꼬리'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솔개꼬리'일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필이면 솔개꼬리를 표현했을까?

치미라는 용어는 중국 진(晉:265~419)에서 처음 썼다고 한다. 그 이후로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치미라고 써 오고 있다. 그런데 그 치미의 조형에서 영기문의 조형요소를 찾게 되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요즈음도 '영기-영기문-영기화생론'을 점점 더 정교하게 정립하여 가는 동안 많은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글을 읽으려면 나의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론이 방대해서 매회 이론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미 〈한국미술의 탄생〉이라는 저서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읽어주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영기화생론'이란 이론을 정립해 가면서 비로소 그동안 틀린 용어들인지도 알지 못했던 그 수많은 용어들이 눈에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교와 도교가 원융을 이루어 성립한 불교미술에는 중국 고대의 우주생성론이 반영하고 있는데, 바로 생명생성의 문제와 결부하고 있다.

즉 동양의 조형미술에는 바로 동양의 우주생성론이 투영된 것이다. 우리는 그 심원한 고대의 우주생성론의 심원한 사상을 아는 사람은 적다. 나 자신도 '영기화생론'을 정립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과거의 틀린 용어를 그대로 계속하여 썼을 것이다.

상상적 존재에 무게 두고 봐야

일본인이 치미라고 부른지 100년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60년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 귀면(鬼面)을 용면(龍面), 즉 귀신의 얼굴을 용의 얼굴로 새로이 인식하면서 '용마루'의 양끝은 자연히 '용의 꼬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너무도 추상적이어서 용의 꼬리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취두(鷲頭: 독수리 머리)라는 용어도 적지 않게 쓰고 있어서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또 같은 치미를 두고 당(唐)이후 부터는 치문(鴟吻)이라고도 부른다. 혹은 봉황이라고도 부른다. 도대체 지붕 용마루 양끝의 형태를 두고 왜 이렇게 수많은 용어가 생기는 것일까. 치미-치문-봉황-취두-취와 등,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용어가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보는 사람들이 다르게 현실에서 보는 비슷한 형태를 가져다가 빗대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동양 3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치미이다. 그런데 이상에 든 모든 용어들은 틀린 것이다. 현실에서 본 비슷한 형태를 각각 취하여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는 지붕 양끝의 형태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용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용의 꼬리이다. 이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 살펴보기로 하자.

고려시대의 건축도 얼마 남아 있지 않아서 실제의 예를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와 조선의 불화에서 건축양식을 살펴볼 수 있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일본 지온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14세기 초의 관경변상도를 보면 정신이 버쩍 난다. 지붕을 온통 용과 보주로 장엄하고 있다.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3000년 역사 속에서 찾아낸 삶의 지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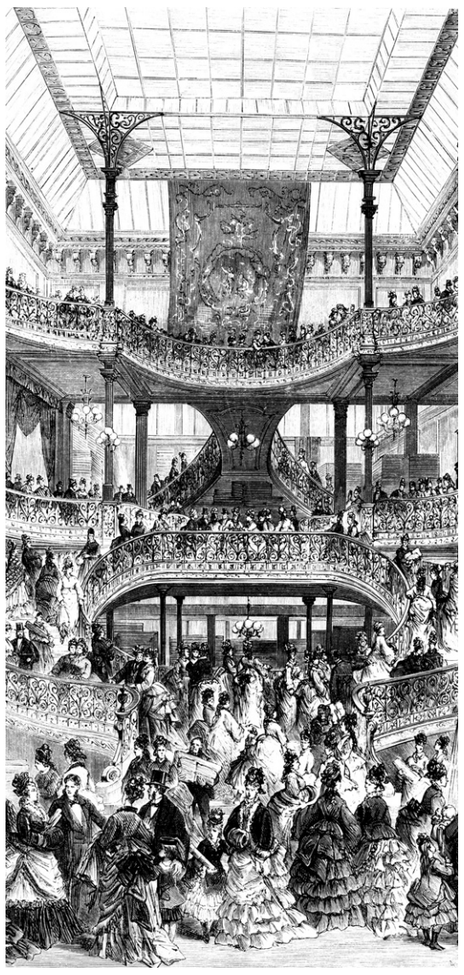


원더박스

로먼 크르즈나릭 지음
강혜정 옮김
원더박스 펴냄
2만원

'어떻게 살 것인가?' 오랜 세월 인류가 던져온 질문이다. 책은 인류가 오랜 세월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다. 그 고찰의 영역은 우리 인류의 '역사'다. 작가 알랭 드 보통과 함께 '인생학교'에서 강의한 로먼 크르즈나릭의 '한 권으로 읽는 인생학교' 〈원더박스〉다. '원더박스'라는 제목은 르네상스 시대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분더캄머(Wunderkammer)'에서 유래한 것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진기하고 매혹적인 수집품들로 채운 장식장이나 전시실을 말한다. 책은 가사노동에 적극 참여했던 남편의 역사나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시계 발명이 낳은 부작용 등 다양한 이야기와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20세기는 소비와 물질의 시대였다. 사람들은 소비의 쾌락과 물질적인 부에 집착해왔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깊이와 의미가 있는 삶, 성취감을 주는 삶을 갈망하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세상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고 추구할 것인가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이 과제가 되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과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 영역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영감의 원천임에도 사람들이 좀처럼 활용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 있다. 바로 '역사'다."고 말한다.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살아 온



1880년경 봉 마르셰백화점 중앙계단. 백화점은 오페라 공연장이자 극장이고, 미술관이기도 했다.

방식을 탐구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난관과 기회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교훈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역사'를 르네상스 시대의 '원더박스'와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 수집가들이 여기저기서 모은 매혹적이고 진기한 물건들을 전시하거나 모아 두는 원더박스처럼 역사도 마찬가지로 각종 문화의 보고라고 말한다. 역사를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와 다양한 사상이 전해져 왔다. 말하자면 역사는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역사를 통해 전해져온 흥미로운 이야기와 사상들을 통해 교훈을 뽑아 낼 수 있는 인류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역사라는 원더박스를 열고 들여다봄으로써 삶에 대해 배울 것은 무궁

'삶'에 대한 대답 '역사'에서 모색
인류의 역사는 '원더박스'

무진한 것이다.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선조들의 살아온 방식 중에 가장 바람직하고 설득력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실천함을 의미한다.

책은 사랑, 가족, 공감, 일, 시간, 돈, 감각 여행, 자연, 신념, 창조성, 죽음 방식 12가지 주제를 설정하고 오래된 인류의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선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결혼식 예물계의 절대 강자가 되었나? / 숨 막히는 사랑을 형상화 한 조각 '키스' / 〈아빠 어디가?〉의 아빠들에겐 선배들이 있었다. / 공감 능력 계발을 위한 감옥 체험을 시도한 조지 오엘 /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역사가 새롭게 보인다. / 제네럴 리스트가 되는 세 가지 방법 /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시계 발명의 부작용 / 최초의 백화점 봉 마르셰가 바꿔놓은 '좋은 삶' / 시각이 감각의 왕좌를 차지하게 된 네 단계 등 그동안 인류가 간과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발굴해 낸다.

모든 역사는 작가 혹은 역사가의 시선을 거친 산물이며, 그들은 선택과 생략과 해석 등을 통해 나름의 방식으로 과거를 걸러낸다. 이 책도 예외는 아니다. 사랑, 돈 등 열두 가지 주제를 다루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그것의 역사 전부를 다루지는 않는다. 현재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와 난관을 조명하기에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가족을 다루는 2장에는 집안일을 맡은 남편, 즉 주부(主夫, househusband)의 역사와 가족 간 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런 선택을 한 데는 저자가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구하고 광범위한 역사에서 하필이면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결정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곤혹스러워 하는 사람들, 혹은 세상살이 방식에 순수한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삶을 변화시킬 여력과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유용한지를 두루 판단하여 선별했다.

저자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점을 찾아내어 인간관계에 깊이를 더하고, 먹고사는 방식을 재고하고, 세상과 자아를 탐구하는 새로운 방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줄 상상의 다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이 책의 취지라고 말한다. '원더박스'의 뚜껑을 열고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3 ~ 4/9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만현	현지궁현지사
2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지혜로운 삶(우학스님 신심명 강설)	우학	좋은인연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7	그대 보지 못했는가(서암 큰스님 회고록)	서암	정토출판
8	행복 119	성담	셀프컬쳐리서치
9	절대 혼자 살지 마라(스님의 쓴 소리)	혜철	마젠타
10	니까야 강독	각묵,대림	초기불전연구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개발' …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거대한 역설

필립 맥마이클 지음 | 조효제 옮김 | 교양인 펴냄 | 2만3천원



〈거대한 역설〉은 국제 개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필립 맥마이클의 저서로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관심사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 주제인 '개발(development)'을 정리하고, '개발'로 인한 부작용들을 파헤친 역사서이자 문명 비판서다. 책은 개발을 경제발전의 관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핵심 동인으로 보는 주류적 견해에 맞서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이해할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한다.

우선 인류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개발의 의미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개발의 기원을 파헤치면서 개발이 자본주의, 산업혁명, 서구의 비서구권 지배와 얼마나 긴밀하게 얽힌 채 시작되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애초 개발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개발의 태생적 한계와 그 갈등적 성격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개발을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추구해 왔다. 왜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개발의 사다리'에 위태롭게 올라서서 위를 쳐다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개발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국가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는지. 책은 식민화와 산업화 시대부터 시작해 '개발'의 역사를 추적하고 그 근원적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의문의 답을 찾는다.

다음으로, 서구의 식민 지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발의 문제적 기원과 식민 시대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신생 독립국들이 탄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개발의 시대, 이른바 '개발 프로젝트'의 시대, 이 나라들이 새로운 국가 건설의 정당성을 시민권적 사회 계약에서 찾으면서 국가의 존재 의의를 인정받기 위해 개발을 이용한 점, 구식민 지배 세력이 냉전 체제에서 전략적 우위를 지키고 과거 식민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 담론을 활용한 것, 이런 와중에 개발은 인류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처럼 제시되고 옹호되는 역사적 사실 등 개발의 이론과 실제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소개함으로써 개발을 통시적인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젊은 안목을 제공한다.

책은 근대적 발전의 표준 국가가 된 미국, 전후 '개발 프로젝트'의 총아로 부상한 한국, '양말 도시'와 '넥타이 도시'를 거느린 '세계의 공장' 중국, 라틴아메리카의 자원 민족주의를 선도하는 베네수엘라 까지 '개발'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역사적으로 '개발'이 '통치를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 동원되었다는 데 주목하면서 오랜 세월 인류가 따라야 하는 '보편적 발전'의 길로 여겼던 개발의 실상을 파헤친다.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변화'를 이루자는 것인데, 세상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개발 분야 역시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진단이 모두 다르다. 사회학자의 냉철한 눈과 운동가의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저자는 어려운 학술 용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와 흥미진진한 사례 연구를 통해 지난 200년 간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발의 역사와 주요 이론, 논쟁의 흐름을 책을 통해 명쾌하게 정리해 준다.

박재완 기자

당신의 두 손에 우주의 생명력이…

레이키의 비밀

앤 찰리쉬, 안젤라 로버트쇼 지음 | 김병채, 김설아 옮김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펴냄 | 1만3천원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의 '지혜로 가는길' 시리즈 제21권 〈레이키의 비밀〉은 손으로 하는 힐링 요법을 소개한다.

레이키는 손을 이용한 힐링 요법으로 우주의 생명력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우주의 생명력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겨 이것이 자신의 손을 통해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신체 여러 부위에 차례로 손을 가져가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면 그 에너지를 받은 사람의 신체 주변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회복되는 것이다.

레이키 힐러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우주의 생명력의 개념은 수천 년 동안 많은 문명을 통해 인식되어 왔으며,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훈련법뿐만 아니라 침술이나 지압과 같은 여러 가지 현대적 치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 생명력이 기(氣)로 알려졌으며, 힌두교에서는 쁘라나(Prana),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카(Ka)로 알려졌다. 레이키의 신념 및 수행은 19세기 일본을 시작으로 하와이, 캘리포니아를 거쳐 서구 세계로 퍼져 나갔다. 레이키라는 말 자체는 '우주'를 뜻하는 일본어 '레이(靈)'와 생명력을 뜻하는 '키(氣)'가 합쳐진 것이다.

레이키 교습은 일반적으로 세 개의 주요 단계로 나뉘어, 꾸준한 속도로 에너지에 접근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들을 돕는다. 3단계는 때로 두 단계로 다시 나뉘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3단계와 4단계로 설명한다.

책은 '레이키의 힐링 정신', '힐링 받기', '레이키를 배우는 방법', '힐링 하기', '보상 받기', '레이키의 향상', '용어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레이키를 배우는 방법'과 '힐링 받기'에서 레이키의 핵심인 손동작과 교육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레이키의 효과는 극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항상 즉각적이거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지지자들이 모든 사람, 모든 산물의 일부분이라 믿고 있는 우주생명 에너지에 접근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레이키 힐링은 자신의 삶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레이키 힐링을 할 수 있다.

레이키는 손으로 하는 힐링의 한 형태지만 접골 요법이나 침술, 운동 요법, 롤프시 마사지(근육을 깊숙이 마사지하는 물리 요법), 마사지, 지압, 반사요법과 같은 요법에서처럼 신체를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다른 요법처럼 부상이나 통증이 발생할 위험이 없다. 또한 레이키는 종교가 아니므로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도 수행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불자들 간의 선물도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불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Concise Buddhism Dictionary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김승동 편저(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178mm / 고급 사전 용지 사용 / 1,216쪽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1.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2.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 명확 · 풍부하다.

3.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4.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5.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 · 중국 · 한국 · 티베트 · 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 · 원시 · 부파 · 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 · 사상 · 철학 · 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구입 문의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소비 성향부터 에너지까지…지구 진화 변천사



인류의 발자국

앤터니 페나 지음
황보영조 옮김
삼천리 펴냄
2만6천원

"지구의 생애와 인류 역사는 복잡하고 의미심장하게 서로 엮여 있다. 지구상에서 호모 사피엔스만큼 자연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은 없다. 그런가 하면 지구의 지질과 기후,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생명의 탄생과 소멸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잉태하기도 했다."

지구 탄생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남긴 '인류의 발자국'을 탐사하는 야심찬 세계사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저자 앤터니 페나 교수는 인간이 자연을 개척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지구 역사에 적응하며 문명을 일궈 왔다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바라본다.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존 세계사 책에서 볼 수 없었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연 세계와 인류 역사의 상호 의존성을 느낄 수 있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변화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 몸부림쳐 온 인류의 생존 투쟁은 그야말로 한 편의 대하 드라마였다. 거대한 자연의 일원이었던 수렵채취인들은 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직립 자세와 큰 체구, 복잡한 두뇌, 원시적 도구 사용 기술을 갖춰 나갔다. 불을 발견하고 야생식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문자를 발명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고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세계로 발돋움해 나갈 준비를 마쳤다.

대개 인류에 관한 이야기, 곧 세계사는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 지구 생태계를 전제로 하기에 지구의 기원이나 수십억 년에 걸친 지구의 변화와 발전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은 문명이나 국가, 영웅 이야기나 전쟁과 혁명 같은 사건에 초점을 맞춘 역사가 아니다. 그런 것이라면 기존의 세계사가 이미 이룩해 놓았기 때문이다.

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책은 인류의 생명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 지구의 진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비교 방법론으로 인류의 과거를 탐사하면서 지질학과 기후학, 인구학, 고고학, 진화생물학, 인류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의 최신 연구를 종합하는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20세기 들어 세계사 연구자들이 직면한 커다란 지적인 도전이 있다. 개별 국가의 역사를 엮어서 세계사를 만들고, 조각난 역사들을 묶어서 일관적이고 의미 있는 전체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국경을 뛰어넘어 인구 이동이나 경제변동, 기후변화, 기술이전과 같은 요인들을 밝혀 설명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세계사라고 할 수 없다고들 한다. 그동안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는 접근 수단이 되어 온 국민국가를 뛰어넘어, 세계사 연구자들이 이제 좀 더 광범한 맥락에서 역사 발전을 파악하게 해줄 수 있는 연관성과 비교, 체계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까닭이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 역사학계를 이끌어 온 아젠다는 역사적 시공간을 깊이 파고들어 개인이나 공동체의 일상생활을 밝혀내는 미시사가 강세였다. 그런가 하면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하면서 세계사 분야에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정한 주제나 개별 지역에 대한 연구가 과거의 삶을 밝히는 데 중요하듯이,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거시사, 곧 시간과 공간,

자연과 인간, 조화와 갈등 풍경
지질, 인류, 종교 등 융합적 연구시도
인간성 상실 큰 문제 대두
"지구와 생명체 더불어 진화"

인간과 자연을 서로 관련지어 역사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지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환경에서는 이런 과제가 특히 더 부각되고 있다. 개인이나 국가를 강조하지 않는 이 책은, 지난 200년 동안 세계사를 '유럽-미국의 패러다임'에 종속시켜 온 서사(敍事) 지배를 무너뜨리고 인류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편견 없이 들여다본다.

이 책에는 흔히 역사책이라면 빠지지 않는 페르시아전쟁이나 서로마제국의 멸망, 십자군전쟁, 프랑스혁명 이야기도 없고, 카이사르나 나폴레옹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농업혁명, 석탄혁명, 기후변화, 커피와 설탕, 자동차와 소비문화처럼 그동안 역사책에서 소홀히 넘겨버린 주제를 재조명하며 인류의 노동과 삶을 빠른 속도로 조망해 낸다.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가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풍경은, 오늘날 지구촌에 산재한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제공하고 역사학의 본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기후 변화와 인구, 질병, 식량과 영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 세계의 농업과 산업화, 도시화는 무역과 소비를 통해 인간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 구리와 철, 석탄과 석유,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경관뿐 아니라 생태계와 기후에 영향을 주어 현대사회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먼 옛날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나와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주하고 고대인들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도시국가든 거대한 제국이든 지구 환경의 자연스런 변화 또는 인간이 자초한 환경 파괴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앤터니 페나 교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인류가 남긴 선명한 생태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구와 생명체는 더불어 진화한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된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둘러싸고 끝없이 벌어지는 논란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신라의 역사와 신라인의 종교사상 소개

수이전

이대형 편역 | 소명출판 | 2만4천원



〈수이전〉은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 또는 '신라이전(新羅異傳)', '고본 수이전(古本殊異傳)'이라 표기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작자는 최치원(857~?), 개작자는 박인량(?~1096)과 김척명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신라 말엽에 간행되고 이후 개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수이전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전기(傳奇) 〈최치원〉은 우리나라 소설의 기원이 되는 작품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1980년대까지는 대체로 〈금오신화〉가 최초의 소설이라고 인정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최치원〉이 〈금오신화〉와 질적인 차이가 없는 작품으로서 소설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전개되어 많은 고소설 연구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편폭도 가장 긴 〈최치원〉은 〈수이전〉에서 최고의 작품이라 할 만하다.

〈태평통재〉의 〈최치원〉과 〈대동운부군옥〉의 〈선녀의 붉은 주머니(仙女紅袋)〉는 같은 작품인데, 〈대동운부군옥〉이 운(韻)에 따라 배열해 놓은 사전이다 보니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핵심어를 '선녀홍대'로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축약하여 수록한 것이다.

〈태평통재〉의 '지귀'와 〈대동운부군옥〉·〈해동잡록〉의 '마음의 불이 탑을 두르다(心火繞塔)'의 관계도 그러하다. 선덕왕은 〈삼국사절요〉와 〈해동잡록〉에 전하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같지만 주인공의 신분과 서술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호랑이의 바람(虎願)'은 〈대동운부군옥〉 성격상 축약된 것으로 보이고, 〈삼국유사〉 권5에 실린 〈수이전〉 관련자료 〈김현이 호랑이에게 감동하다(金現感虎)〉가 원래의 모습과 유사하리라 추정된다. 역시 관련자료인 〈술파가〉는 인도의 이야기인데 불경에 실려 있어서 〈지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관련 자료 〈흑풍이 배를 불어제끼다(黑風吹其船舫)〉는 〈법화경〉과 관련한 영험담을 실은 〈법화영험전〉에 있는 이야기인데 '보개'와 관련된다.

관련자료 '쌍녀분'은 '최치원'과 관련된다. 〈가야산 소리암 중창기(伽倻山蘇利菴重創記)〉는 〈신라수이전〉서 소리암에 관한 기록을 인용하고 있어서 관련 자료로 실었다.

위처럼 비슷하고 영향을 준 작품들이 산재하여 존재하는 〈수이전〉은 최치원이 돋보이는 작품이지만, 그보다 분량은 짧지만 일반인들도 재미있어 할 만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일개 병사가 선덕왕을 짝사랑하다가 불귀신이 되었다는 이야기, 호랑이 여자가 남자를 위해 희생한 이야기, 선덕여왕이 기미를 파악한 세 가지 사건, 사랑하는 여자를 잊지 못해 다시 살아난 최항 이야기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은 재미가 있으면서도 당시 신라의 배경과 역사적 사건, 신라인들의 사상 등도 함께 담고 있다.

한문으로 기록된 문헌은 번역을 했다 해도 기본적인 한문 지식이 있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수이전〉 번역본에서는 가능한

〈법화경〉 영험담도 실려있어
원문과 번역문 함께 배치

자세한 주석을 붙였다. 작품을 읽으면서 필요한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오류의 정정 등, 원문과 번역문 양쪽에 꼼꼼하게 달려있는 주석들은 한문에 대한 초보자나 일반 독자들을 배려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을 위해서도 한문과 번역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좌우면으로 배열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앞뒤로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면 원문과 번역을 따로따로 보게 되고 한눈에 살펴보기도 어렵다.

짧은 작품일수록 표현의 의미를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집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좌우 맞쪽으로 원문과 번역문을 배치하며 편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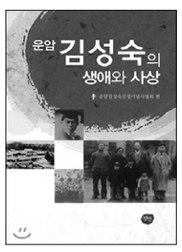
책 말미에는 한문 원문을 영인하여 부록으로 뒤에 실었다. 원문을 활자화하여 실었지만 해당 작품의 출처 문헌의 영인본을 실음으로써 활자화된 원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여러 책에 산재한 〈수이전〉 흔적을 한 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수록되어있는 해당 작품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태허 스님 항일정신과 불교사상 조명

운암 김성숙의 생애와 사상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지음
선인 펴냄 | 2만8천원



"조국 광복을 위해 일본제국주의에 항쟁하고 정의와 대중복리를 위해 모든 사회악과 싸우며 한평생 가시밭길에서 오직 이상과 지조로써 살고간 이가 계셨으니 운암 김성숙 선생이시다.…" 그의 묘비명처럼 김성숙(태허스님)의 생애와 독립운동 행적은 가시밭길을 헤쳐나간 애환을 느낄 수 있다.

승려로 독립운동가로 정치가로의 그의 다양한 삶은 이상과 지조로 일관했다. 김성숙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후 서대문형무소서 8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 1923년 중국으로 망명했다. 1920년대 중산대학에서의 수학, 의열단에서의 활동, 그리고 광주봉기 참여, 1930년대 중국 국민당정부를 파트너로 한 조선민족전선연맹·조선의용대 활동, 특히 1938년 기강에서 개최된 한국혁명운동통일단체회의를 계기로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체제에 합류했다.

김성숙은 계파와 노선을 뛰어넘어 독립운동 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임정 참여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차장·국무위원으로 활동했고 광복 이후에는 민족통일을 위한 좌우합작을 위해 힘썼으며 혁신계 중진으로도 일했다. 이렇듯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운암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를 설립됐다. 이 기념사업회를 통해 학술연구사업·추모사업·애국선양사업·장학사업·홍보사업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관련 자료수집과 학술회의 개최,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펼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김성숙의 항일운동 활약상과 불교정신 등을 집중 했다.

김주일 기자

생전에 집필한 '직지찾기' 과정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박병선 지음 | 태학사 펴냄 | 2만원



'직지의 대모' 고 박병선 박사의 유고집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2〉가 세상에 나왔다. 2011년 83세를 일기로 타계한 뒤 2년 만이다. 박 박사는 평생을 해외에서 떠도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헌신한 재불 역사학자다.

33세의 나이에 한국 여성 최초로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파리국립도서관에 근무하던 중 도서관 중국서적 코너서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직지)〉을 발견해 냈다.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1455년 독일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42행 성서'보다 78년 앞선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이다.



박 박사는 그동안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과 함께 의궤 반환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2011년 5월 297권의 외규장각 의궤가 145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조의 의궤-파리 소장본과 국내 소장본의 서지학적 비교 검토(1985)〉 〈프랑스 소재 한국독립운동 자료집 1(2006)〉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2008)〉 등이 있다. 프랑스 파리서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후속편을 집필하던 중 2011년 11월 23일 유명을 달리했다.

김주일 기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사찰매매 잔금 대출
불사 자금 대출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토 지 1,220평
대웅전 45평
요사채 38평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한국불교 전통 의식대학
제1기 신입생 모집
강의내용
- 안채비 : 각종 불교의식, 49재 천도의식, 점안의식, 신중작법, 평염불,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 영산재 염불, 짓소리, 긴소리.
- 겉채비 : 바라춤, 천수바라, 도량게작법, 사다라니바라춤 등
- 사물다루는 법
모집대상
-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 포교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 염불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 재가불자
2학년 4학기 과정
교육기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제출서류 : 입회원서 1통 (본 교육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2통
교 육 비 : 매월 ₩ 100,000
문 의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전 화 : 051)442-1818 교무국장 011-837-5701
교육강사 : 부산지방 무형 문화재 제9호 이수자 혜 철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영재가 「우적가」를 지은 까닭은?

칼부림하는 신라사회의 교화 방편

1. 신라 중대의 왕권 쟁탈

통일신라 이후 정치를 주도했던 진골들은 점차 김씨 정계와 방계들로 굳어져갔다. 이들이 각축하면서 신라 정국은 불안해져 갔다.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던 경덕왕(景德王)은 후사가 없자 왕은 표훈대덕으로 하여금 하느님(上帝, 天帝)께 청해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표훈(表訓)은 하늘로 올라가 하느님께 고하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하느님 말씀이 딸이면 될 수 있으나 아들은 안 된다고 하시더이다."

왕은 말하였다.

"딸을 아들로 바꾸어 주기 바라오."

표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청하자 하느님이 말했다.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아들을 낳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표훈이 하늘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에 하느님이 다시 불러 말했다.

"하늘과 인간 사이를 문란케 할 수는 없다. 지금 네가 이웃마을 다니듯 하늘을 왕래하여 하늘의 비밀을 누설시키니 금후 다시는 다니지 말라."

표훈이 내려와서 하느님이 하는 말로써 전하자 왕이 말하길 "비록 나라가 위태롭더라도 아들 자식이나 얻어 뒤를 이었으면 그만이겠다"고 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만월(滿月)왕후가 태자를 낳았다. 경덕왕이 승하한 이후 여덟 살의 어린 태자가 왕으로 즉위하니 곧 혜공왕(惠恭王)이다. 재위 초년부터 표훈대덕의 말대로 두 개의 해가 나타나고, 지진이 일었으며, 세 별이 떨어지고, 벼이삭이 쌀로 변하는 등 이변이 일어났다. 혜공왕 4년 봄에는 혜성이 나타나자 일길찬 대공(大恭)이 그 아우 아찬 대렴(大廉)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왕궁을 33일 동안 포위했지만 왕군에 패했다. 혜공왕은 대공의 구족을 베어 죽였으며 그의 재산을 모두 대궐로 실어 날랐다. 난 중에 신성(新城)의 큰 창고가 불에 타기도 했다.

반란이 완전이 진압되기 까지는 석달이 걸렸는데 이 당시 목이 베인 자는 셀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혜공왕 16년 봄에는 이찬 김지정(金志貞)이 모반해 역시 왕궁이 포위됐다. 이에 상대등 김양상(良相, 내물왕 10대손)과 이찬 김경신(敬信, 내물왕 12대손)이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을 물리쳤다. 하지만 이들은 혜공왕과 왕비까지 살해한다.

김양상이 왕위에 오르니 바로 선덕왕이다. 선덕왕(宣德王) 대에는 이찬 김주원(周元)이 수석 재상으로 있었다. 함께 군사를 일으킨 김경신이 김주원의 동생으로 차석인 각간으로 임했다. 김경신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

'머리에 썼던 두건을 벗고 흰 갓을 쓰고 손에 12현금(絃琴)을 잡고 천관사(天官寺)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꿈을 깨어 사람을 시켜 점을 쳤더니 점쟁이가 말하기를 두건을 벗는 것은 관직에서 쫓겨날 조짐이요, 12현금을 잡은 것은 칼을 쓸 조짐이요, 우물에 들어간 것은 옥을 들어갈 조짐이외다.'

김경신은 꿈에서 깨어 매우 걱정하며 문을 잠그고 집 밖으로 출입하지 않았다. 아찬 여삼(餘三/山)이 와서 배알하겠다고 연락했지만 그는 병을 핑계로 거절하기도 한다.

그러자 아찬이 두 번째 연락해 "꼭 한 번만 뵙기를 바라나이다"고 말했다.

김경신이 승낙하자 아찬이 말하기를 "공께서 지금 꺼리는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했다.

김경신이 꿈 내용을 모두 말하니 아찬이 일어나 절을 했다.

"이 꿈은 아주 길한 꿈입니다. 공께서 왕 위에 올라가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공을 위해 꿈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김경신이 좌우를 물리고 해몽을 청했다. 아찬이 말하길 "두건을 벗는 것은 자기 윗자리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흰 갓을 썼다는 것은 면류관을 쓸 조짐이요, 12현금을 들었다는 것은 12대 손자에게 왕위를 전한다는 조짐이요, 천관사 우물에 들어간 것은 대궐에 들어갈 조짐입니다"고 했다.

김경신이 말했다. "내 윗자리에는 주원이 있다. 내가 어떻게 윗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아찬이 말했다. "북천(北川)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될 것입니다."

김경신은 아찬의 말대로 하였다. 얼마지나지 않아 선덕왕이 승하하자 여러 대신들은 김주원을 받들어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대궐로 맞아 들이려는 그때였다. 당시 김주원의 집은 왕궁에서 북쪽 20리 지점에 있었다. 큰 비가 내려 알천 물이 넘실거려 김주원은 왕궁에 도착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무릇 임금의 대위(大位)에 나아가기란 실로 인모(人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폭우(暴雨)를 보면 하늘이 혹시 주원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닌가? 지금 상대등 경신은 전왕의 아우요, 덕망이 본래 높아 인군(人君)의 체모(體貌)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때 김경신이 대궐로 들어가니 김주원의 무리들이 모두 김경신에게 승복했다. 중론(衆論)이 일치돼 김경신은 왕위에 올랐다. 이가 곧 원성왕이다.

원성왕이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운명으로 이뤄진다는 것에 이끌려 노래를 지으니 '신공사뇌가'(身空詞腦歌)다.

2. 영재사와 사뇌가(詞腦歌)

〈삼국유사〉 수록 향가 14수 중 화랑 또는 승려 혹은 주술사 등에 의해 지어진 것은 7수이다. 나머지 반은 서동, 노옹, 신충, 처용, 득오곡, 희명, 미상(풍요) 등 일반인에 의해 지어졌다.

당시에는 향가와 범패를 전문으로 하는 집단이 각기 구분돼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그룹을 넘나든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성왕 대에 살았던 영재사(永才師)는 성품이 익살스럽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향가를 잘했다[善鄕歌]. 만년에 지금의 지리산인 남악에 은거하려고 대현령(大峴嶺)에 이르렀을 때 60여 명의 도적을 만났다. 그들은 영재를 해치려고 했으나 그는 칼날 앞에서도 두려운 기색 없이 태연스럽게 그들을 대했다. 도둑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의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하였다. 도둑들은 평소에 그의 이름을 들었으므로 '□□□'로 노래를 지으라고 했다. 이에 영재는 우적가를 지어 불렀다.



경주 알천의 현재 모습. 알천의 범람으로 유력한 왕위 계승자인 김주원은 왕이 되지 못하고 김경신이 왕에 오르니 원성왕이다. 원성왕 대에는 인생사가 운명적으로 이뤄진다는 사뇌가가 유행하는데 이 사뇌가를 주제로 영재가 다시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우적가다.

원성왕 알천 범람으로 운명적 즉위
당시 신라사회 운명 다룬 사뇌가 유행
영재, 도적들 '우적가' 불러 출가시켜

그런데 여기서 결락된 세 글자인('□□□')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사뇌가'(詞腦歌)가 아닐까?

사뇌가는 향가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말 그대로 '가사 중의 가사' 혹은 '노래 중의 노래'를 뜻한다. 창조-유지-파괴의 의미를 담고 있는 태초의 소리인 '옴'처럼, 향가의 언어는 밀핵(密核)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가의 성격은 '치리가'(治理歌) 내지 '주가'(呪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된다. '주가'와 '치리가'는 '병이나 해를 기원하고[呪] 다스리는[治] 노래'란 의미다.

그렇다면 '신공'(身空) 즉 '몸은 실체가 아니다'는 의미와 '사뇌가'가 결합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신공은 사뇌가의 형식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할까? 사뇌가 중에서도 신공사뇌가가 가장 널리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양식이었을까? 초기불교의 사념처(四念處) 수행에서는 몸이 부정하고[身是不淨], 느낌이 괴롭고[受是苦], 마음이 무상하고[心是無常], 법은 무아[法是無我]임을 억념하라고 역설한다.

일찍이 '신공사뇌가'를 지었다면 원성왕은 누구보다도 인상 무상을 깊이 체험한 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운명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영재사는 '사뇌가'를 지어 부름으로써 60여명의 도적들을 설복시키게 된다.

이 '우적가'를 살펴보면 희유하게도 결락자가 두 글자(□□)가 있다.

"제 마음에 모든 형상 모르고 지내오던 날/ 멀리 □□ 지나치고 이제는 숨어서 가고 있노라./ 오직 그르친 파계승이여/ 두려워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노니/ 이 칼이사 지내고 나면 좋은 날이 오련만/ 아! 오직 요만한 선(善)은 새 집이 안 되느니라." (양주동)

"제 마음의/ 모습이 볼 수 없는 것인데,/ 일월조일(日月鳥逸) 달이 난 것을 알고/ 지금은 수플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강호(強豪)님,/ 머물러 하신들 놀라겠습니까./ 병기(兵器)를 마다하고/ 즐길 법(法)을랑 듣고 있는데,/ 아아, 조만한 선업(善業)은/ 아직 턱도 없습니다." (김완진)

향가 중 유일하게 두 글자의 결락자가 있으며 연구자들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르다.

3. '우적가'의 해석

이 노래를 「우적가」라 부르게 된 것은 일연의 표제어 '영재 우적'(永才遇敵)에 근거한다. 영재사는 만년에 은거하려고 대현령에 이르러 도적을 만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영재'(永才)의 어원에 대해 양주동은 '영'(永)은 '길'[長]이고 '재'(才)는 '치'(인명접미어) 또는 '째'이므로 '순차'(順次)를 뜻한다고 했다.

반면 최철은 '향가를 잘 짓는 인물'[善鄕歌]인 '영언지재'(永言之才)라고 하였다.

60명의 도적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박노준은 "화랑단의 잔비로서 권력쟁탈에서 실패한 일단의 반체제세력"이라고 보았다.

최성호는 "지성과 감성을 갖춘 조직적 집단으로 차원높은 목표를 지닌 도둑"이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이웅제는 "정치권에서 소외된 주원(周元)계, 특히 헌창(憲昌)계의 일파"라고 보았으며, 김승찬은 "영재가 성속경계(聖俗境界)에서 일으킨 갈등과 같은 모든 마음을 도적 60인에 비유"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황패강은 "신라의 병리적 현상으로 변방에서 출몰하는 단순한 도적"이라고 보았다.

'우적가'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돼 있다.

지헌영은 "우적가의 첫 절은 무명(無明)·알라야식(識)을 상징하고, 둘째 절은 정진(精進)·사생(死生)의 경계를 방황하는 마음의 신화적 비약을, 종결구에서 도적을 깨닫도록 한 법열에 사무친 정각의 심경을 노래"했다고 보았다.

반면 장진호는 "칼부림하는 신라사회를 불교로 교화하기 위한 방편의 노래로서 도적 60명은 붓다가 성도 후 처음으로 교화한 제자의 수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김동욱은 "미륵정토에의 희구를 읊은 노래"로 보았고, 윤영옥은 "도적까지 연민(憐憫)하는 고도의 인간적 서정시로 보았다.

아무튼 영재가 노래를 부르자 도둑들은 그 뜻에 감동돼 그에게 비단 두 단을 선물하였다. 영재는 웃으며 앞으로 나아가 사양하면서 말하였다.

"재물이란 지옥의 근본임을 알고 장차 깊은 산으로 피하여 일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찌 감히 받겠는가?" 이에 그것을 땅에 던져 버렸다.

도적들이 또 그 말에 감동되어 모두 검과 창을 버린 뒤 머리를 깎고 그의 제자가 되어 함께 지리산에 은거하여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영재의 나이는 거의 90이었으니 원성왕 때의 일이다. 만약 영재의 가사를 듣고 감동해 출가했다면 이는 법문의 성격이 강하다. 이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법문적 성격을 지녔다면 이것은 원성왕이 지은 적이 있다는 '신공사뇌가' 형식이 아니었을 싶다.

"내 마음의/ 참모습을 모르고 살았던/ 날들이 멀리 새 달아나듯 지나서야 깨달아 알고/ 이제는 남악에 가고 있노라./ 다만 그릇된 너희들[破戒主]을 만나/ 두려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랴./ 이런 무기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좋은 세월을 바라 살아감이 어떨까./ 비록 죽지만 아아! 오직 한 가지 한은/ 아스라한 은둔처에서 도 닦기 전에 죽는 것이로다."(이범교)

이들 도적들이 신라 중고기의 막바지에 일어났던 정치적 소외자들이든 아니든 간에 '우적가'는 향가 중 가장 불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원성왕 대에 있었던 '경찬시뇌가'(慶讚詩腦歌), '신공사뇌가'(身空詞腦歌)처럼 '우적가'는 '사뇌가' 계통의 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연은 7언 절구를 통해 이런 영재를 이렇게 기리고 있다.

"지팡이 짚고 산으로 들어가니 뜻 더욱 깊은데/ 비단과 구슬로 어찌 마음 움직일까./ 녹림(綠林)의 군자(君子)들아 그런 선물 주지 마라,/ 지옥의 근본은 다름 아닌 몇 푼의 재물일세."

영재의 가풍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연이 절구를 지어 영재를 찬탄함이 아닌가.

참고문헌

김부식, 〈삼국사기〉, 신호열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상)〉(2005; 200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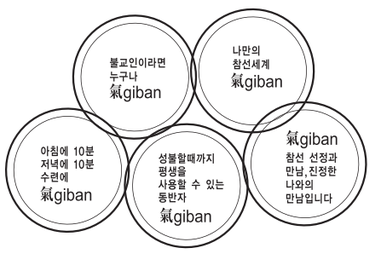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고요히 하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쑥뜸방, 돌뜸방 기술지원
50년전통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0-7544-8244
051)721-6444

지역장 및 지점장 모집

– 미국 FDA승인 발명특허
– 천연 한방 발효기능 식품
– 명현 호전반응 있음
– 모든 질환 체질 유무 상관없음
* 샘플 요청시 3인분과 완치사례 우송 (소포 자부담)
(주)소마생명공학불교총괄본부
02)980-2177
011-772-2177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서 류 대 행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모든 영가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목신
고통, 불안초조, 주의력 결핍,
약효가 없는분, 병명이 바뀌는 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분
43년 이상 된 염불 수행자
010-5912-2377

법납 35년 세납 65세인 비구입니다 불사와 기도정진 함께 하면서 수행하실 스님과 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북 제천 위치와 경관이 빼어난 곳에 약 8천평의 땅과 서울에 약 100평의 포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1억이상 투자 가능하신 분)
010-2127-4755

지리산 청학동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양 도 공 고

(등록된 불교단체 불교종단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황토 누워서 허리뜸, 훈증침대

비만,허리뜸,관절통증,사고후유증,
아토피,비염,여성질환,혈액순환,
마음은 청춘 몸은 노령,건강,행복,
장수,인간의 수명은 화 사 냉 청소.
저는 약사여래 가피력 도승원력.
암자 포교원 운영할
비구승 인연바랍
011-573-4438

조계종 노스님을 지금부터 20여년간 시봉할 인연자 30~47세까지

불심깊은 불자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신 따르는 사람없고 홀가분한 사람이어야 함. 그리고 운전가능해야 하고 대신 조건은 평생시봉 공덕으로 노스님 사후전에 틈틈히 생활보장과 월보시 지급도 하고 문서로 약정함. (불교 인과를 아는 확고한 사람만이 전화 연락바람) 경 북 내 원 암
054)653-1180
010-6353-1180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목탁,송주북, 정근북,법고)
– 천수바라,작법(나비무), 49재,천도재,점안등
경남 진주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퇴마
천병,신병,우울증,대인기피증,
틱장애,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가정풍파, 엑스시스트에서도
치료 못하는 환자치료,
스님 법사 보살님도 상담환영.
(천상을 여는 금강사)
010-2418-6222

부 전 스 님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50세이하)
010-6260-3310

남녀 행자 모집합니다

(나이 제한없음,
신심이 돈독한 분)
051)721-0449
010-3579-6444

원력과 신통력

●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50~60세) 모십니다

(북한산성 입구)
02)387-32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010-5219-7021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43)532-2072
010-5213-7443

비구니 주지스님 및 비구니 초보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모십니다

(경남 거제)
010-7169-9878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참신하고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성)
종무소 031)676-0449

박근혜 대통령 일가 사진을 400여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진기념관을 건립할 생각이온데 협조에 뜻이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017-257-6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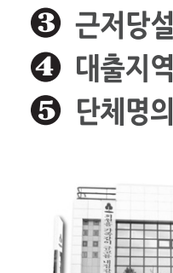
조그마한 절입니다 절 운영하실 스님이나 기도스님 모십니다

(포항 흥해읍)
010-3194-7969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요일 저녁반, 화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회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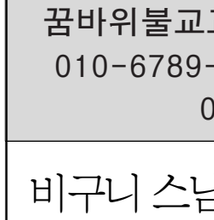

규격 : 40 cm × 60 cm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부 산 청 암 달 마 원
*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사찰 운영에 고심이 많으신 스님들께 한 소식 올립니다

❁ 절에 신도가 줄었다.
❁ 한번 온 사람이 다시 오지 않는다.
❁ 절 살림이 어렵다.
❁ 부처님 호상이 前전 같지 않다.
❁ 천도재를 지내고 성불보기 힘들다.
❁ 법당에 기운이 썰렁하다.
❁ 법당에 도둑이 들거나 잔손이 탄다.
❁ 주지스님이 건강이 나빠진다.
❁ 스님이 마음이 떠서 밖으로만 돈다.
❁ 공양주가 붙어있지 않는다.
❁ 사찰을 매매하고 떠나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으신 스님들께서는 좋은 처방비법이 있으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41)943-6882 / 010-4233-7099
전 화 白超律曆學堂

영기선원 cafe.naver.com/youngkihak


氣 회로
공부의 모든것
053)623-2202. 010-5159-5778
TV다수출연 (대구 남구 대명동)
네이버 블러그 : 한마음 세성제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질병 뒤에 숨은 영가확인 천도비법

그 자리에서 빙의환자와 가족이 확인하는 영적질환의 실체
빛파동법, 영혼과의 대화법, 영언교감법, 오장육부진동법, 자율신경계
영가가 몸에 어디에 숨어있는지,
확인천도 방법의 핵심지도
1. 환자 몸에 영가는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없는 스님, 법사, 기공사
2. 영가의 상태파악, 조상, 객영혼, 지박령 저급, 중급, 고급
3. 몸이 아픈 정확한 이해 일반병, 마음의 병, 업병, 다중빙의
4. 다양한 삶의 고난과 질병 뒤에 숨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영가
5. 영가들이 천도되면서 보는 다양한 빛의 세계를 본다.
6. 보다 높은 차원의 기공 능력과 영안이 열린다.
7. 자신의 영혼과 대화로 삶의 목적과 깨달음에 대한 이해
8. 1-7차크라의 능력을 일깨워 우주와 교감하는 방법지도
9. 영적질환의 특징은 냉증이라는 사실입니다.
10회 과정의 교육과 6개월 2회식 보수교육을 통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드립니다. (강의는 수강자와 상담 결정)
암,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상, 환청, 환시, 불면증,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질환은 질병 뒤에 숨은 영가를 확인하라
스님들의 사찰에 신도님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효소 찜질요법에 대한 기술지도 냉증. 관절 어혈 질환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
인체전기 043)296-5258 / 010-9242-5259
파동의학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자성주(靈珠) 수익사업

선망 조상님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고인의 유골을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50만원.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보은의 사랑

제11기 지도자양성 부업. 봉사자 소자본으로 사업하실 분

돈도 벌고 기도 잘하시고 보살행하실분
창업자 상담 및 기도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서울,부산,대구
010-6789-5008 / 010-2353-2010
02)739-5008

비구니 스님 50세 이하 모십니다

(초심자 무관) 삼년 후 주지 임명
여행자 출가를 결심한 45세이하
삼년후 소임부여
(강원 원주)
011-369-3859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 법구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30
- 대지 : 100평
- 산신각,건평 150
- 가액 : 15억

- 위치 : 경산
- 법당 : 30
- 요사 : 50*2동
- 대지 : 300
- 종각,가액 5억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8평
- 요사 : 28.방4개
- 옛날구옥2채
- 1.3백/70권리금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해안
- 법당 : 13(목조단청)
- 산신각 : 5(목조단청)
- 요사 : 3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1억8천

토 굴
- 위치 :대전
- 법당및요사:35평
- 부지:700평
- 가액 : 2억 5천

사 찰 터
- 위치 :충북 단양 (구인사 부근)
- 부지: 18,000평
- 가액: 평당 2만원 특급 명당터 차량진입가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40평, 요사채 60평 주지실30평
- 산신, 노천불, 대형버스운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양도가액: 12억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보령시 남포 저수지 앞
-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개금, 탱화 불사 새로 하였고 손볼곳 없는 완벽한 도량
- 즉시 입주가
- 가액: 5억

041)934-8497
010-4222-6825

사 찰 안 내

- 위치: 영덕군 영해면
- 평수 : 73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9천만원

010-2510-0955

포교원(급)안내

- 대구 북구 대현동
- 4층건물중 4층(총65평)
- 법당(25평) 방2, 화장실 거실,공양간(옥상사용가)
- 삼존불, 영단, 탱화 (산신, 용왕, 신중)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3003-72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법당(삼존불) 35평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가액(시설비포함) 1천만원 월 25만원

010-4851-6751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읍
- 교통 편리하고 동향인 사찰
- 법당목조60㎡, 요사채 124㎡
- 대+전 2,500㎡ 창고와 차고 있음
- 스님이 건강상으로 양도함
- 가액: 3억만원

010-3426-9393
010-7347-101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함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2층 : 법당과 스님방

010-3732-5237
051)412-04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대지 175평
- 법당 17평, 아미타도량, 삼존불, 산신, 용왕
- 요사채 20평
- 가액: 9천 7백만원 (시설비 포함)

010-8503-5769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사찰
- 토지 :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납골추모관,무량수전,종무소,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 가액: 4억 8천만원
- 읍내 유일 추모관운영, 예상가는 8억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010-5444-0807

수행하기 좋은 암자 안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속보면 택전1리 160번지
- 대지 250평(종교부지),조립식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창고2, 산신각 • 일체 시설 완비
- 가액: 8500만원

010-4040-3588
054)682-8780

암 자 안 내

-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뒷 갓바위 입구
- 대지 92평, 건평 32평 경량철골 판넬 인법당
- 완전 올수리 리모델링
- 청동 아미타불, 관세음, 지장보살, 삼존불 상단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소불60불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 주차장 텃밭, 별도 월 5만원씩
- 꼭 하실분만 전화주십시오

017-808-254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97평
- 건물 20평
- 대출 1천 1백만원
- 가액: 3천만원

010-4601-1255

현재 전원주택 노인 요양원 적지
땅을 알고 터를 잡으세요

- 위치: 경남 사천시 사남면
- 주택: 스틸하우스 (29평)
- 대지: 554평, 정남향(명당터)
- 가액: 1억 9천 5백만원

011-9517-852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경북 과학대학 근방
- 부지 2500평, 건물 70평
- 방6개, 폭포수 가까이 있음
- 경관 화려함
- 고사리 약 800평
- 가액: 3억 7천만원 (융자 1억 6천 포함)

011-556-5507

사 찰 터 안 내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중 30평 신축허가
- 평당 60만원
- 1급 주거지역
- 전원주택이나 사찰가능

017-855-6717
017-856-2344

절 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요지(명당)
- 대지 527평
- 요양병원 가능
- 시세 60% 가격
- 가액: 14억 5천만원

010-8676-2278

사찰(급)안내

- 경기도 의정부 호원1동
- 대지 27평
- 법당 2층 조립식 약 20평
- 요사 1층 방 3개 화장실-세탁실
- 창고-소각장
- 부처님6분, 신중, 칠성, 산신, 영가단
- 교통편리 - 전철 10분, 버스 2분
- 주변에 주차할 수 있음
- 양도가액: 2억 3천만원

010-8900-4874

창건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 섬진강 회문산
- 평수 : 법당 2동(대지 300평)
- 종교용지 허가 대지 . 총 5000평 중 300평
- 시설비 일체 없음
- 보증금 2천만원 / 월 30만원

010-6505-8004
010-9647-07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송현동
- 평수 30평, 3층. 대도로변
- 보증금 1천만원 / 월 55만원
- 시설: 아미타불, 지장불, 관음불, 후불탱화, 산신탱화, 인등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205-663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장옆 2층
- 40평 시설최고 방2개
- 보증금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천5백
- 삼존불.신중.지장.칠성.산신.탱화
- 비품일체 몸만오시면 법회함

010-8774-2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송현동
- 평수 30평, 3층. 대도로변
- 보증금 1천만원 / 월 55만원
- 시설: 아미타불, 지장불, 관음불, 후불탱화, 산신탱화, 인등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205-66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 법당(삼존불) 35평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가액(시설비포함) 1천만원 월 25만원

010-4851-675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3백만원 시설비 2천 4백 5십만원 절충가능

010-7295-1259

포 교 원 안 내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큰시장옆
- 4층건물의 4층 약 55평, 법당 30평
- 삼존불, 신중, 칠성, 용신
- 법당 옆 큰방1칸, 작은방 1칸
- 정원 약 10평 법당 앞
- 총가액: 4000만원, 2000만원 달세 30만원

051)527-5688
011-9501-5188

불교용품 전문점

- 위치: 서울 급 양도함
- 점포 30평
- 창고 20평
- 가격은 상담 후 결정 현재 성업중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4055-12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 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010-3209-04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내이동
- 시외버스터미널 앞
- 평수 50평, 방3, 부엌1, 화장실2
-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8불, 관음보살소불 108불
- 시설비 3천만원 • 법회가능

010-2914-3534

암 자 안 내

- 위치: 충북 영동
- 평수 520평
- 건물 목조 기와 약 40평
- 별채, 창고, 산신각 등
- 가액: 2억 5천만원

010-9422-12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수성 지하철 입구
- 2층 약 30평(완벽한 시설)
- 위치, 환경좋음 (포교, 상담, 법회)
- 몸만 오시면 됨, 불사관계 양도
- 특히 비구니스님 최적
- 시설비+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상권 최고지)

010-9690-827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남양주시 별내 신도시 인근 (경관 좋음)
- 262평(종교), 211평(전, 27평(도) 합계 500평
- 건평 147평(3개동)
- 2011년 신축 (법당까지 차가 들어감)
- 양도가액: 17억(융자 6억포함)

010-4299-538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릉시
- 부지 : 500평
- 인법당 27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소나무 많은 소쿠리형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2억 9천만원

011-452-8374
010-7164-7134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2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양도 : 18억5천
- 위치 : 토굴(급)
- 부지 : 60평
- 건평 : 20평
- 걸망풀자리마련하세요
- 급양도가 : 1천6백만원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수행 정토 터(부지)

- 위치: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으로 관리지역임(200m 위치)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영구포란형(靈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1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300평(평당 7만원) (필요하신 분만 금 , 토 ,일 중 방문 요)

016 - 573 - 2032

주 택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단성면 고평리
- 대지 171평, 전 합 1050평, 건 30평 외
- 황토방 약 15평, 아궁이 온돌방 3개
- 뒤는 산 조용하고 전망좋고 교통편리
- 광희나루 선착장 1분 자연 암반수
- 가액: 1억 6500만원

010-3288-131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1200만원(답사 후 절충)

010-4747-8796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노량진역 3분
- 주택 1층 25평, 방 3(큰방1, 법당)
- 홀 넓음, 주방
- 후불, 신중, 칠성, 나반, 산신탱화, 관세음보살보심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9964-1101

포교원안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031)791-9022

포교원안내

- 위치:인천부평 큰시장 안
- 평수 약 95평
- 법당 40평, 방4개, 창고 큼
- 월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삼존불, 소불 각탱화
- 유동인구 많음, 즉시법회가능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754-6762

호흡·행선·염불·화두도 '위빠사나'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7〉 위빠사나 붓다선원



김열권 법사
위빠사나붓다선원장

단식 · 절 · 12연기 통찰법 결합 지도
남 · 북방 불교서 찾는 '팔정도'



위빠사나 붓다선원은 심리상담, 절, 염불 등을 결합한 남 · 북방을 아우르는 위빠사나 수행으로 개인의 문제를 극복하고 참자아를 찾는 길을 안내해준다. 사진은 4월 9일 종로구 경운동 불교영어도서관에서 실시된 정기강좌 장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빠사나 등이 남방불교의 전유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빠사나는 깨달음 혹은 지혜와 동일한 말로 호흡 행선 염불 화두도 모두 위빠사나 수행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팔정도에 근거한 이러한 수행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4월 9일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불교영어도서관에서는 매주 김열권 법사(위빠사나 붓다선원장)가 진행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위빠사나 수행 강좌가 열리고 있다. 김 법사는 한국인들에게 생활속 위빠사나를 뿌리내리게 한 대표적인 수행지도자 중 한 명이다. 남방과 북방 불교를 아우르며 위빠사나 수행의 근원을 찾아내고 있는 김 법사는 지난 30년간 국내외에서 수행에 매진해 왔고 종로구의 불교영어도서관, 열린선원 등을 중심으로 수행지도를 하고 있다.

김 법사는 1979년 수행에 입문해 화두선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시중과 산사, 토굴에서 10년간 수행을 했다. 이후 위빠사나를 알게 됐고 1990년 미얀마로 건너가 마하시 위빠사나 선원으로 출가 태국, 말레이시아를 거쳐 일본 시모노세키 모지 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와 나라를 돌며 수행 정진해 온 김 법사의 수행법의 특징은 한가지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위빠사나 강좌와는 다르게 심리프로그램, 단식, 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 법사는 "수행을 통해 개인의 상처 열등감 등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심리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1~2년 정도 수행하다보면 어느 정도 수행이 몸에 익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또 고비가 생기고 스스로 수행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런 단계가 왔을 때 단식 절 등을 통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수행은 적절한 단계에 적절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서 위빠사나붓다선원의 수행 프로그램은 위빠사나를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위빠사나 심리 강의'는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는 좌선-경행-호흡관찰법-감정관찰-마음관찰-법관찰-몸과 감정 마음관찰에서 12연기 통찰법-위빠사나 심리프로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심리 프로는 나의 정체보기-성격 검사-위빠사나의 원리 터득 등으로 이루어지며 보조강의로는 성격검사, 잘못된 습관 찾기, 공감명상, 각종 심리 프로램 등으로 이루러져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도록 유도해준다.

이정 씨는 공황장애를 앓다가 MBSR 등의 프로그램을 거쳐 위빠사나를 알게 됐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지만 수행을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한다. "도보를 좋아하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 도보를 1년 동안 쉬었어요. 계속 집에 있다보니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MBSR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을 했고 위빠사나를 알게 됐고 수행을 시작했죠. 아직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수행을 통해 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는 느낄 수 있어요."

동양화가 민경희 씨는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자만심을 내려놓고 겸손해졌다고 해야할까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상대와의 마찰도 깊이 들어가보면 그 원인 제공을 제가 했더라고요. 이제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이해하게 됐어요.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그림 그리는데 집중력도 높아졌죠."

김 법사는 수행을 통한 변화는 누구나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광석을 제련하면 순금이 나오듯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림자에서 벗어나면 '본래 나'의 참 모습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위빠사나 수행이 있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올라오는 생각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위빠사나 수행자 양향화 보살



1년째 수행중인 양향화 보살은 '원치 않는 생각이 올라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의문에서 수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위빠사나 수행을 하니 생각이 줄고 제가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일상 생활에 수행법을 적용하며 올라오는 생각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는 수행을 통해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무슨 일로 고민이 생기면 이것이 곧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지구상에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저 이렇게 살아 있는 게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수행을 하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에 굳이 집착하고 사로잡혀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스스로 지나간 일을 정리하고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 감정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긍정의 바이러스는 주변에게도 전달돼 현재에는 친구와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되었다는 양씨. "수행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은 이런 마음의 평화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녀는 괴로움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5〉 미국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

禪과 자연을 하나로…농사법도 공부

196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히피들과 명상철학자, 정신적 구원을 목표로 한 생활공동체로 가득한 곳이었다. 1959년 미국을 건너간 스즈키 순류(1905~1971)는 반(反)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곳에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던 젊은이들에게 좌선을 권유했다.

일본 조동종 스님인 스즈키 순류는 1959년 아파트 거실에 모여 참선 지도한 것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 승단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San Francisco Zen Center)를 1969년 설립했다. 샌프란시스코 젠센터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심사(初心寺)로, 스즈키 순류의 저서인 〈선심초심(Zen Mind, Beginner's Mind)〉에서 따온 이름이다.

한 학생이 지옥이 무엇이냐고 묻자 스즈키 순류는 "지옥은 바로 영어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만큼 어렵게 영어를 익히며 불모지인 미국에 불교의 싹을 틔운 그는 〈벽암록〉과 〈법화경〉을 영어로 강의하며 LSD와 같은 마약에 빠진 샌프란시스코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



그린 걸치 농원에서 재배되는 유기농 야채는 그린스 채식레스토랑의 주재료로 쓰인다.

日 스즈키 순류 1969년 설립
좌선 · 불교강좌 · 계절 집중 수행
노숙자, 동성애자 등 위한 봉사
유기농 채소 재배해 레스토랑 운영
본원 · 그린걸치 등 승단 3곳 확장

도심 속 선 센터, 젊은이들과 소수자 마음 열다

꾸준히 성장한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는 본원인 시티 센터(City Center)와 캘리포니아 무이어 해안(Muir Beach)에 위치한 그린걸치(Green Gulch) 농원 선 센터, 온천과 하이킹을 즐기고 명상도 할 수 있는 전문 승원인 타사하라(Tassajara) 센터 등을 설립하고 매일 명상과 정기적인 수업과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다.

시티센터는 평일에 아침 5시 25분부터 좌선을 시작한다. 주말에는 초보자를 위한 선수행도 마련하고 있다. 평일 저녁시간과 주말 점심시간에 다과회를 곁들인 회화시간이 있고, 좌선과 불교 강좌가 수시로 열린다.

분기별로 불교를 심도 있게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좌를 진행하며, 계절마다 집중 선수행을 연다. 신도들은 약 3주 정도 선 센터에서 머물거나 출퇴근을 하며 참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하는 특별수행에 동참해도 된다.

시티센터는 집 없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법보시를 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회도 연다. 신행회 가운데 '동성애불자모임(Gay Buddhist Fellowship)'은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의 대표적 모임이다.

리처드 베이커와 그린걸치 & 타사하라

자원봉사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는 운영비용을 그린스(Greens)라는 채식레스토랑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린 걸치 농원 (Green Gulch Farm)에서 재배되는 유기농 야채가 이 레스토랑의 주재료로 쓰인다.

그린걸치 농원 선 센터에서는 유기농 강의와 다도 강의를, 일반인들에게는 불교 강의도 한다. 또 55세 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엘더호스텔(Elderhostel) 프로그램을 매년 수차례 개최한다. 5일간 명상 수련회 동안 참가자는 참선, 불교 공부 외에도 선 센터 부엌과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며 이곳 거주 수행자와 비슷한 일과를 보내게 된다.

그린걸치 농원에서는 유기농 수련생 제도가 있다. 8 에이커의 농장에서 수련생들은 4~10월까지 6개월간 공부, 실습, 참선을 고루 조합한 훈련을 받게 된다.

1주에 30시간 일하고 5시간 수업 받고, 매일 참선하고, 2일간 계속되는 참선정진을 6개월에 한 번 하는 대신, 이들은 숙식을 제공받고 약간의 용돈을 받는다. 수련은 농사 짓는 기술, 퇴비 만드는 법, 수확하는 법에서 판매하는 법까지 두루 가르친다. 농장은 일손 부담을 덜고 학생들은 좋은 기술과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서로에게 유익한 제도다.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가 도시에 위치해 있어 생활속 선을 실천하기에는 좋은 곳이다. 그러나 주변 상황에 잘 휩쓸리는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공부환경이 아니었다.

스즈키 순류의 법 계승자이자 오른팔이었던 리처드 베이커(1936~)는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숙박하면서 수련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다. 바로 로스 파드레스 국립공원에 위치한 타사하라 센터다.

리처드 베이커는 원래 온천 휴양지였던 타사하라를 기존에 선 센터이기 이전부터 애용하던 사람들을 배려해 여름 한철을 개방했다. 숲속에 오두막형태로 숙소를 짓고 한화로 1일 머무르는데 약 15~50만 원 정도 지불해야 하지만 예약전화가 5월에 오픈되면 2주 만에 시즌 예약이 끝날 정도로 인기가 좋다.

특히 타사하라 센터는 온천 손님들이 귀가할 때 갓구운 빵을 선물로 증정했고, 이는 입소문을 타게 됐다. 전 지역의 사람들이 제빵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1970년 〈타사하라 브레드〉를 출간하게 됐고, 1973년 타사하라 베이커리가 개점됐다. 〈타사하라 브레드〉는 아직까지도 가장 잘 팔리는 제빵책 중 하나에 속한다.

리처드 베이커는 사업적 수완이 좋았지만 스즈키 순류는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곳의 사람들이 선(禪)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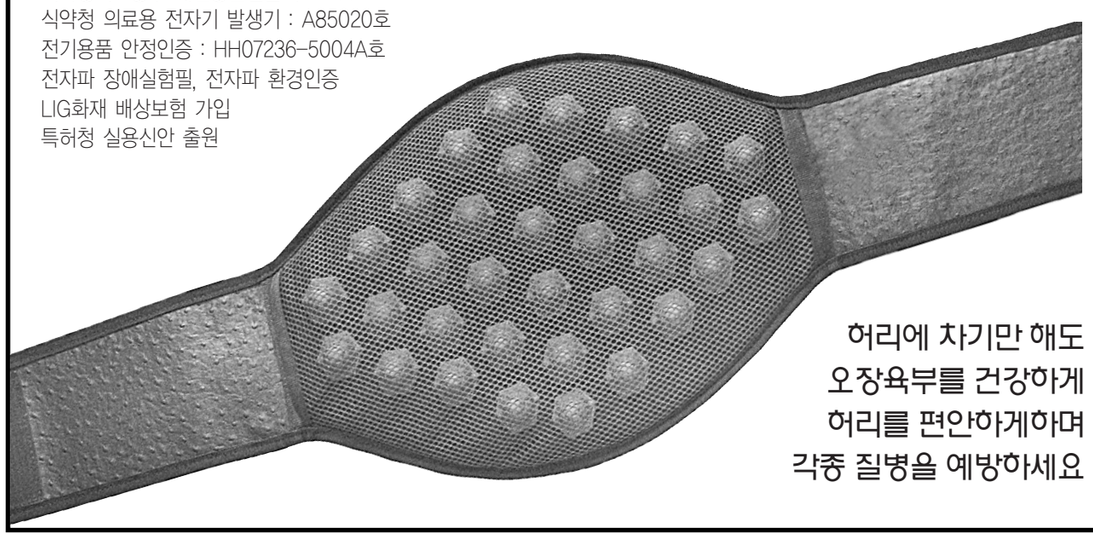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부처님이 새끼 밴 사슴을 대신하여 죽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16)

녹야원의 기원

부처님께서 바라나국 녹야원에 계셨다. 녹야원은 5신통을 얻은 선인들이 살았으며, 범부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 바라나국의 왕이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천 마리의 사슴 무리가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왕이 병사를 동원해 사슴의 무리를 에워싸자 사슴 떼들은 두려워 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어떤 놈은 땅에 엎드려 제 몸을 숨기기도 했다. 석가모니불께서 보살로서 이 사슴무리의 왕이셨을 때의 이야기다. 부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슴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왕에게 부탁하여 반드시 목숨을 구제하게 될 것이다. 저마다 다른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여라."

부처님이 바라나국왕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지금 왕의 뜻을 살피건대, 천 마리의 사슴을 한꺼번에 죽여서 주방에 보내려 하십니다. 지금 다 삶아 놓으시면 고기가 상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하루에 한 마리씩의 사슴을 죽여서 주방장에게 보내소서. 왕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저희 사슴들이 스스로 주방으로 나아가 죽음을 받겠습니다. 그리하면 고기 양은 끊어지지 않고 사슴 수는 갈수록 더욱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나국왕은 부처님에게 물었다.

"네가 사슴들 가운데 최고 어른이냐?"

"그렇습니다."

바라나국 왕이 다시 물었다.

"너는 참으로 그리하겠느냐?"

"참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은 이내 사슴을 내버려 두고 성으로 돌아갔다. 그때 천 마리의 사슴 무리는 부처님이 거느리고 있는 5백 마리와 데바닷다가 거느리고 있는 5백 마리를 합친 것이었다. 훗날 부처님의 사촌 데바닷다도 이때 사슴의 몸이었다.

날마다 한 마리씩의 사슴이 차출되어 왕에게 나아가 주방에 보내졌다. 어느 날, 데바닷다의 사슴을 왕에게 보낼 차례가 되었다. 새끼를 밴 어미 사슴이 죽을 차례였다. 어미 사슴은 데바닷다에게 간청했다.

"저는 해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의 차례이기는 하나 뱃속의 새끼는 아직 차례가 아니오니, 원컨대 저의 차례를 조금만 뒤로 미루어 주십시오."

데바닷다는 화를 내며 말했다.

"어째서 빨리 가지 않느냐? 누가 너를 대신하여 먼저 죽겠느냐?"

어미 사슴은 울부짖으면서 이내 부처님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 했다.

"원컨대 왕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의 차례를 뒤로 미루어 주십시오."

부처님은 사슴에게 물었다.

"너의 주인은 허락하더냐?"

"주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어미 사슴을 위로하면서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음을 받겠다."

부처님은 이내 천 마리의 사슴을 불러 놓고 간절하게 경계했다.

"너희들은 절대 게으른 생각을 품지 말 것이며, 왕의 곡식을 욕심내지 말라."

데바닷다는 다시 화를 내며 말했다.

"너의 차례이거늘 왜 응하지 않느냐?"

부처님이 데바닷다에게 말했다.

"그만두시오. 그런 말은 마시오. 어미 사슴의 차례이기는 하나 태안의 생명이 불쌍하여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슴들이 말했다.

"저희들이 왕을 대신하여 죽음을 받고자 합니다. 왕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있게 되었고, 물과 풀을 먹을 수도 있으며, 마음대로 놀러 다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음을 받으러 나아가니 사슴들이 뒤를 따르며 왕궁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슴 왕은 주방으로 나아가자 요리사는 사슴 왕을 보고서 이내 왕에게 말했다.

"사슴 왕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명했다.

"빨리 사슴 왕을 데리고 오라."

왕이 사슴 왕에게 물었다.

"천 마리 사슴이 다 되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왔느냐?"

부처님이 바라나국 왕에게 말했다.

"천 마리가 새끼를 계속 낳아서 마침내 큰 떼를 이루었습니다. 사슴의 무리는 날마다 더욱 불어날지언정,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왕은 깊이 깨닫고 스스로가 모자랐음을 한탄했다.

"나는 기르는 짐승에 대하여 참됨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했구나. 살아 있는 생명을 미친 듯이 죽이다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구나."

왕은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명을 내렸다.

"왕의 명이다. 지금부터 사슴 사냥을 금한다.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엄히 다스리겠다."

그리고 사슴 왕을 돌아가게 하고, 나라 안에서 절대 사슴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 인하여 녹야원(鹿野苑)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출요경〉 제9권에 나온다.)



삽화 · 강병호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⑯



주변과 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느 날 텔레비전 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프로를 보았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닭 세 마리가 다른 닭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높은 나무 가지위에서 지내고 있었다. 먹이를 구할 때만 잠깐 잠깐 내려 왔다가는 다시 나무위로 올라갔다. 사람도 오르기 어려운 그 높은 나무 위에서 살면서 알도 낳고 했다.

닭 주인은 곡예를 하듯 나무 위로 올라가 알을 꺼내 와야 했다. 그 닭이 그렇게 살게 된 연유는 그 닭이 새끼 병아리였을 때, 11 마리의 병아리가 살았는데 모두 다른 짐승들에게 다 잡아먹히고 자신과 두 마리만 살아남았다. 이때 놀란 병아리가 점점 자라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만 오르고 오르다가 지금의 빈 까치집을 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광경을 직접 화면으로 보는 순간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가슴이 찡하고 마음이 아팠다.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였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 얼마나 놀라고 겁이 났으면 그렇게 높은 곳의 까치집을 보금자리를 택했을까.

'까치집의 닭' 우리의 삶 보는 듯
편리한 세상이 다 좋다고 못해

닭의 둥지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생각했다. 다를 것이 없었다. 나무 위로 올라간 닭과 같이 위태로운 삶을 사는 가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밤이든 낮이든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이 가장 행복 한 삶이 아닐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가? 부모도 형제도 믿을 수 없는 슬픈 현실을 신문지상에서 자주 접할 때 마다 가장 소중 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허탈함을 느낄 때가 많다. 옛날 사람들은 이웃이 한 가족이었고 남이 아닌 '가족' 으로 살았다. 그 때는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사는 것이 따뜻했다. 지금 우리들은 '나' 라는 존재에 빠져 자신마저도 바로 볼 수 없어 타인에게는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인색하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남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겠다는 서원을 한다. 낮이 되면 내가 지금 아침에 세운 서원과 얼마나 가깝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밤이면 조용히 눈을 감고 또 생각해본다. 내가 남을 아프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 준 말은 하지 않았는지, 후회할 일은 없었는지, 또 보람 있는 일은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나부터 달라져야 이웃이 평안해지고 이웃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될 것으로 믿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믿음이 최고이고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주는 일이 더욱 아름다운 일이란 생각을 해본다.

나를 위한 편지

요즘은 손 글씨의 편지를 보기 힘들다. 간단한 메시지는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로 보내고, 편지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메일을 쓰기 때문이다. 생활 전반이 디지털화 되어 모든 것이 손쉽고 빨라졌다. 하지만 생활이 손쉽고 빨라진 반면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 앞서 말한 편지만 하더라도 그렇다. 옛날에는 긴 편지 속에 마음에 담긴 글을 쓰며 몇 번이고 다시 쓰고 또 다시 써서 정성스런 글씨로 연인끼리의 사랑도 키우고 가족들과의 안부도 물으며 가슴속에 간직할 이야기를 글로써 표현 했다. 그런 글들은 오래도록 보관되어 때때로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추억' 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손끝의 문자로 말을 하고 또 문자로 만남을 약속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주고받은 이야기가 남지 않게 된다.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만남도 쉽고 헤어짐도 쉽고 가벼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가 젊어 철없었던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심하게 다툰 일이 있었다. 그 순간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모두 태워버리겠다고 꺼내놓았는데, 편지를 앞에 놓고 보니 한 장 한 장 다시 읽게 됐다. 그 편지들을 읽다가 그 글속에 빠져, 아니 그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내가 지금 화가 난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행복했던 추억 속에 빠지게 되었다. 나의 분심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사라져버렸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평상심을 찾은 나를 보고 놀라며, 먼저 마음을 연 나에게 고마워했었다.

말은 내 뱉고 나면 흔적이 없지만 글이란 이렇게 마음의 아픔마저도 다시 치유 해주는 역할을 해주니 서로가 좋은 물건을 사주기보다 진심어린 마음의 글을 쓴다면 그건 가슴에 남는 선물인 것이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컴퓨트를 이용해 워드로 글을 쓰고 공책에 글을 쓰는 일이 줄었다. 사진도 핸드폰으로 손쉽게 찍었다가 맘에 들지 않으면 곧 바로 지워버리니 너무도 편리한 세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도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마다 곧바로 지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맺힌 마음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원망과 원한으로 더 큰 화를 부르는 일들은 더욱 많아진 듯하다. 뉴스에 올라올 만큼 끔찍한 일들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모든 일상이 손쉬워진 만큼 '용서' 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용서도 손쉬운 일이 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할까. 편지를 쓸 일이 많지 않다면 이제 남에게 쓰는 편지대신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날마다 자신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묻고 살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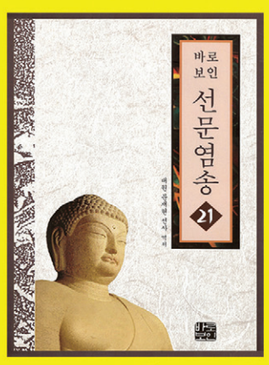
부산 연꽃모임회장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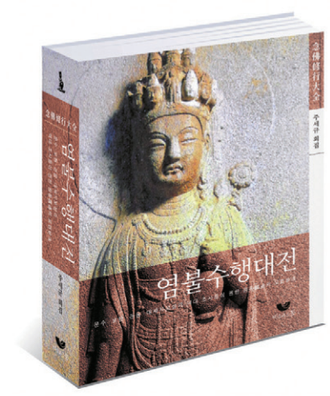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법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율 높으며,
힘 적게 들이고 효과 빠르며,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圓通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사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 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움과소통 buddhapia5@daum.net

"얼굴"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불교TV출연 정담스님>

전국 시 · 군 · 면 100회 강연!
〈현 불교TV 출연 중〉

◉ 이곳저곳 가서 점을 봐도 신통치 않아 답답하신 분
◉ 이름이 나빠서 성공 못하신 분
◉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구상주이신 분
◉ 건강이 나쁘신 분
◉ 조상천도재로 고민하시는 분
◉ 결혼문제로 고민이신 분
◉ 가정사 어려운점, 말못하는 사연
◉ 취업이 잘되지 않으시는 분
◉ 승진, 이직을 원하시는 분
◉ 학업문제가 고민이신 분
◉ 삼재에 들어있는 분
◉ 이사, 부동산(매매) 잘 안풀리시는 분

이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다!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승가대학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 총무원장
· 주요저서 : 기도의 비밀, 불교척척박사, 바늘끝에도 남이 있다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전화 031)673-1087
Daum 카페 | 카페검색 | 치우천왕 힐링캠프



옳다 그르다 분별하고 마음을 낸다면 공법이 못 됩니다

자기 성품 보고 싶어요

문) 6조 스님께서는 "딴 부처님만 생각해서는 생사를 면하지 못할 것이요, 자기의 본심을 지키면 곧 저 언덕에 이른다."고 했고 또한 "부처는 제 성품 속에서 지을 것이며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도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 성품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답)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무슨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저 불법의 부처님들이나 바깥에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은 생사를 면치 못하죠. 어떻게 면합니까? 아무리 정성스럽게 내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저거 해도, 잘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만날 빌어먹는 인과밖에는 못 찾을 겁니다. 자유스럽게 내가 모든 것을 남을 줄 때는 주고, 남을 도울 때는 돕고, 내가 갈 때는 가고, 내가 먹을 때는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자유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인과를 자꾸 받으니까.

지금 6조 스님이 말한 것도 역시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항상 그러지 않아요? 내 주인공한테 감사하다, 믿는다, 내가 들이고 내고 하는 걸 거기서 들이고 낸다 이런 거를 알려 주는 것은 단지 딴 데 부처를 또 생각지 마라,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거기는 어떠한 예수고 마리아고 부처고 어떠한 역대의 선지식들이고, 천하의 수많은 선지식들이 다 한데 합친, 삼계의 부처님까지 전부 한데 합친 그 한자리니 별달리 따로 딴 데서 찾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데, 내 마음에 같이 하고 있는 한자리가 있는데 어째서 딴 데에다 절을 하며 또 딴 데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는 사람도 없고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간 사회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 모든 꼭두각시의 놀음판이라는 구경 속에서는 하여튼 차원도 많습니다. 천차만별로 차원이 많은데 그 차원이 많은 걸 일일이 이거는 낮다 이거는 뭐 그르다 이럭하다 보면은 자기 성품을 영원히 찾지 못해서 그걸 일일이 따지고 따지다가 볼일 못 보고 윤회에 말려서 또 다시 또 따지게 되고 또 다시 또 따지게 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하천세계에 떨어지게 되고 말입니다. 또 그냥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함도 상천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인과만 받았을 뿐입니다. 또 좋은 데로 태어나고 싶으면 좋은 데로 태어난다는 그런 인과를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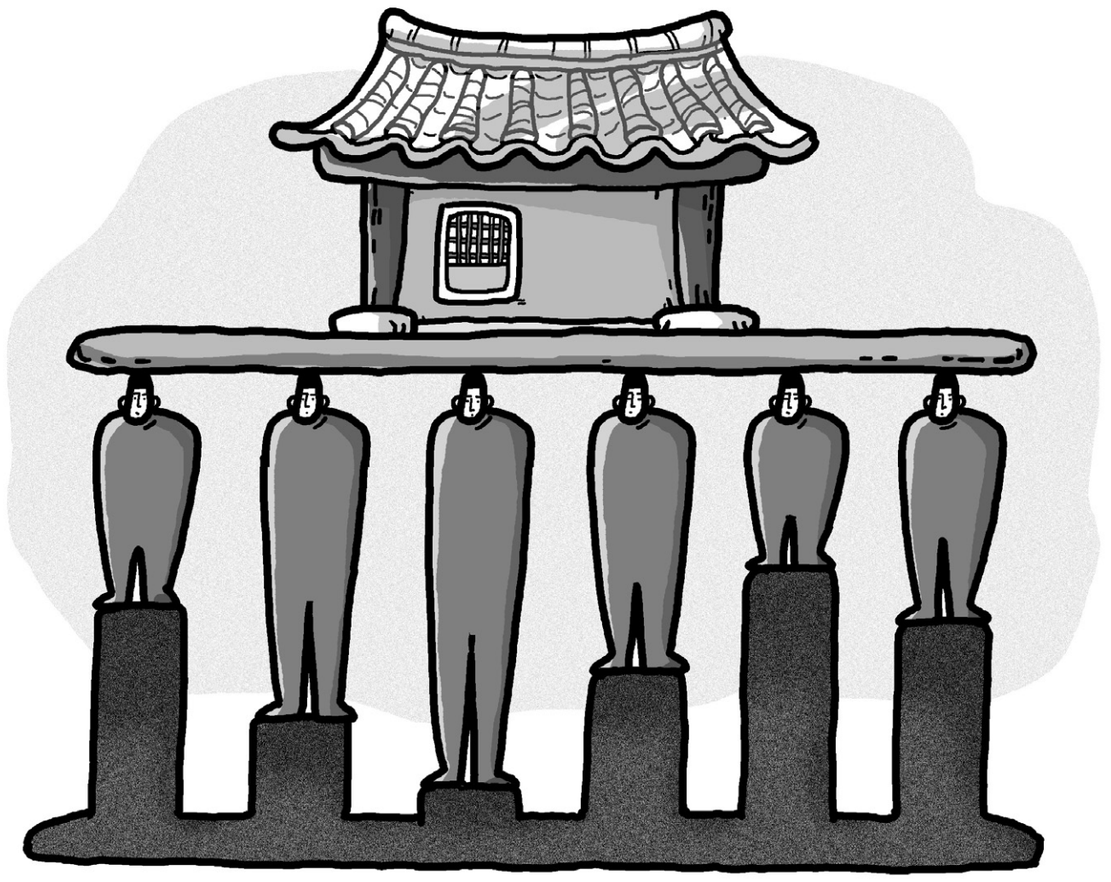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서 거기에서 또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한데 합쳐서 그냥 모든 게 그대로 돌아가는 이 진리가 그대로 평공심(平共心)이요, 평상심(平常心)이요, 바로 성품의 그 도리요, 이게 우주의 전체의 에너지이며 이게 그냥 원소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감이니라, 이게 진리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품이 같이 돌아가면서도 이 꼭두각시는 달리 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끔들 노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의식으로서 생각하는 대로, 놀려 달라는 대로 놀려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잠재해 있는 자기 실상은, 예를 들어서 차가 가는 데 기름밖에는 안 돼요. 근데 차는 운전수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겁니다. 생각하는 건 운전수요, 몸뚱이가 가는 건 차라고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면목 그 실상은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만 줬다 뿐이지, 가고 오는 거는 너 맘대로 해라 이거거든요. 에너지만 줄 뿐이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 에너지를 선의적으로 쓰지 악한 데는 쓰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에너지를 사람 죽이는 데도 쓰고 악한 데도 에너지를 쓰고 못된 일 하는 데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차를 끌고 가는데 그 기름이 안 써지나요? 착한 일 하러 가는 사람도 차를 타면은 기름이 들어가야 하고 악한 일 하러 가는 사람도 그 기름이 들어가야 차가 갑니다. 그러니깐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르다 옳다 이런 것이 없이 자기 마음이 해 달라는 대로 그냥 해 줄 뿐이지요. 그러니까 나침반을 놓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 내기 이전이 어떤 것이었던가. 무한의 능력을 줄 수 있는, 바로 불성이 같이 돌아가는, 일체 유생 무생이 같이 돌아가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도리에서 에너지는 주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 무한의 에너지가 돌아가는 이 에너지를 포착을 못하고는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살아나가면서 자기라는 겁니다, 모두. 어디서 기름이 나오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깐 사람은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못 산다 이겁니다. 사람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어요?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깐 자유인이 못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러니깐 또 사형을 받게 되는 거고 윤회에 말리는 거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윤회에 말려서 이렇게 얽매여야 되겠소? 죽음이라는 아픔을 자꾸자꾸 당해 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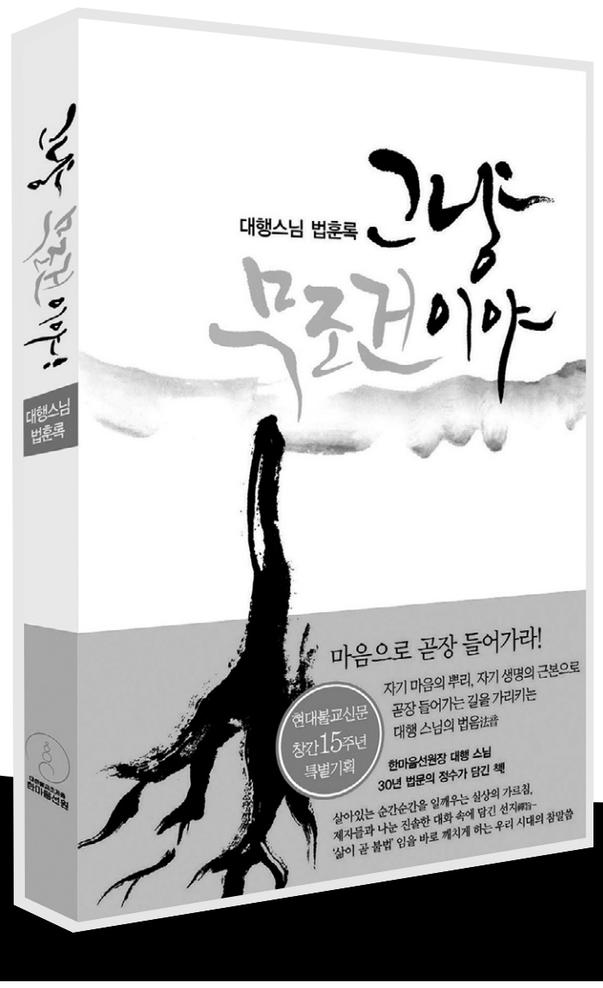
우리가 부처님 마음의 그 도리를, 부처님이 가르친 그 참성품을 알아라, 성품을 발견해라, 성품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질 게 있나. 이 육신이 고대로 무슨 영원히 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늙지 않는다거나 뭐, 아프지도 않는다거나 영원히 사는 거라면 그런 생각 할 것도 없죠. 부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관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 그런가. 뭐 그렇게 짜드리 욕심을 부려서 내 거라고 쌓아둘 필요가 있으며, 벌써 나왔다 하면은 변해지고 애가 커지면 어른 되고 어른 되면 또 늙고 늙으면 벌써 죽게 되고 이러는데 아, 구태여 뭘 그렇게 쌓을 게 있고, 그냥 남을 눌러 가면서, 못된 짓을 해 가면서 살아야만 하고, 욕을 하고 원수 짓고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모든 생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라고도 하고 원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성품이라고도 하고 이러죠. 너무 그 생명체들이 많으니까 한데 합쳐서, 생명이라는 소리는 똑같은 생명이니까, 낮은 동물이고 높은 동물이고 간에, 무정물이든 어떤 거든지 생명 없는 그 물체는 하나도 없으니까 종합해서 이것은 바로 공이니라. 멈춰 있는 공이 아니라 돌아가는 공이니라. 그래서 먼 데서 찾지 말고 너희들 사는 너한테서 찾아라. 하루 24시간 살 동안에 네 마음이 몇 가지로 변하고 네 말이 몇 가지로 달라지고 네 행이 몇 가지로 달라지나, 한번 하루 동안을 지켜봐라. 누가 그렇게 해서 시켜서 그렇게 하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지켜보면은 이 대의적인 이 시공이 없는 이 대공의 이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믿으면 편히 살 수 있나요?

문)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세상살이가 왜 이리도 고달픈 것인지요. 부처님만 믿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무조건 자기 주장자를 믿고 거기다 맡겨놓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답) 어떻게 해야 잘 살 것 같습니까? 누가 대신 마음을 내 주고 누가 대신 살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살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한생각이 여러분을 괴롭게 살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제각기 다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는 자기 주처가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을 텐데 모두 편안하게 사실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고 차원에 따라서, 분별에 따라섭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 그걸 어떡합니까.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구리는 구리하고 첨보가 되고 금은 금하고 첨보가 되고, 무쇠는 무쇠하고 첨보가 되고 철은 철대로 첨보가 되고, 이렇게 제각기 천차만별로 다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서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근본은 한군데서 나지만 그 갈래 갈개로 차원대로 끼리끼리 뭉쳐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살아나가는 이 도리를 보신다면 다 아시겠죠.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물로 죽고 불로 죽고 모두 지진이 나서 죽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마음에 따라서 그 문제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언젠가 행사가 있는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깐 비가 부슬부슬 오더군요. 근데 퍼뜩 우리 스님이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럼 진작 얘길 하지 그랬니?" 그러니깐 자기도 비 오는 줄 몰랐대요. 그래 "지금 오고 지금 보고 지금 듣고 이런 것도 모자라지 않아." 그랬어요. 이 마음은 한 찰나에 전 우주를 도니깐 말입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용해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은 따로따로 분별을 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공용이라고 그러죠. 공용을 하고 때에 따라선 공체로 공심으로 공생으로 공식을 한다는 얘깁니다. 경전엔 원식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누구나가 다 알게끔 공식이라 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 몸 하날 보더라도 공생으로 산다는 걸 아시죠. 공용으로 산다는 것도, 공심이 돼서 천차만별의 그 마음을 낼 수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러면 그거를 퍼집어서 하나로 공식으로 뭉쳐서 우리가 여여하게 해 나간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내는 게 말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것저것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면 벌써 이것은 그르다 이거는 옳다 이렇게 가면은 공법이 못 돼요. 내가 같이 살아 줄 수는 없단 얘깁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의 여러분을 어떻게 말을 해야만 옳겠느냐. 우리가 이 한 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소꿉장난 하다가 해가 지면은 하루 저녁에 다 헤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르는 분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다고도 생각 마시고 그대로 편리하게 생각하세요. 편리하게 생각하시고 무조건 그저 그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놓고 모두 편안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거기다 놓지 않으면, 그 기둥에다가, 자기 주장자에다 놓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이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가 통신처가 거기니까요.

그러니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편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이 마음은 이렇게 공심으로 살고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공용을 해서 살고 바로 공체로서의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면 그대로 이 일체 모두가 속속들이 다 연락처가 되는 거고 다 공심으로 해서 공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깐 이거 우습게 알지 마시고 자기를 진짜로 믿어라 이겁니다. 자기 껍데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처를 진짜로 믿어라 이겁니다. 지금 내면처가 아니라면 일체 부처님도 상봉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자 줄 수도 없고 먹어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고 먹고 잠자고 그래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대신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내부나 외부나 다 살고 또 여러분의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는 데에서 남이 섭섭지 않게 생각하고 유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뭐 그런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렇게 버릇을 하면 모두 습이 그렇게 된단 얘깁니다. 그렇게 해 보지 않던 분들은 그렇게, 죽어도 그렇게 안 되죠. 화가 벌컥벌컥 나는데 웃어야 할 일이 생겼다, 이럴 때에 금방 변동을 해서 그 화난 거는 다 없애 버리고 웃으면서 부드럽게 생각해 주고 부드럽게 말해 줄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금방 아빠가 되고 금방 형이 되고 금방 여보가 되고 금방 아들이 되고 이렇게 해도 여여하게 해 나가고 살지 않습니까, 걸림이 없이.

이 사람이 연기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살림살이 하는 데에 연기법이 있고 크고 작고가 없이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 나가는 대로 늘어간다 이겁니다. 이게 빛보다 더 빠르다 이런 것이 있지요. 중국이나 어디 미국이나 어디에서도 말 한마디 이렇게 왔다 하면은 그새 "알았어." 이러는 건 뭐냐. 이건 모든 걸 다 전폐하고, 모든 건 사람의 생각대로지 거기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요, 모두가. 그런데 자기 마음이 더럽게 만들고 걸리게 만들고 자기 앞발을 한발 한발 떼어 놓을 수가 없이 그냥 너저분하게 만들어 놓죠. 자기가 만들어 놓는 거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빛보다 더 빠르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력이 나오고 들어가는 거는 보이지 않아도 켜지는 거 꺼지는 거는 보이죠.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에서 켜지고 꺼지는 거는 지금 알고 그걸로 인해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전력이 오고 가는 거는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못 보고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력이 안 나온다, 못 봤다 이럴 수는 없죠.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빛보다 더 빠르다 하는 건 마음이 '알았어.' 할 때 벌써 미국이고 어디고 다 챙길 수 있단 얘깁니다. 그러니 한국이라고 해도 가깝거나 멀지도 않고 또 미국, 중국이라도 멀고 가깝고 이게 없어요. 요 문지방 너머나 마찬가지예요. 더 멀고 더 가깝고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자기를, 자기 주장자를 진짜 믿고 거기다가 맡겨 놓고, 그 마음이 편안하고 진짜로 믿어져야 그것이 그렇게 편안하게 다 도량이 풀어지죠.

인격도야와 견성해탈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문) 어떤 사람이 종신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과연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내린 결론이 인생의 목적은 인격의 도야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불가의 목적은 견성 해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인격도야하고 견성해탈 하는 거하곤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인간' 하면은 인간의 모든 만법이 인간에게 조건이 붙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도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인격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인격을 인격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도 각자 '나'인 것이요, 인격을 세우는 것도 각자 '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는다, 또 금방 지금 죽는다, 사형을 받는다 이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한생각을 넓혀서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무기징역도 또는 사형 받는 것도, 또 징역을 받는 것도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면은 요런 게 있죠. 이 도리를 알아서 인간 됨됨이에 참, 질서를 지키고 문란치 않게 하고 그 사회 상식이나 모두 또렷또렷하게 그 수행하는 것처럼 만약에 일을 잘한다면 갇혀 있으면서도 고거는 좀더 '아, 이거는 모범수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도리를 안다면 거기 들어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자기 몸을 자기가 한번 그렇게 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그렇게 갈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계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수가 있기 이전에, 하늘 천인간이 나기 이전의 우리를 바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보는 내가 전체를 바로 보았을 때에 그것은 내 한 주먹에 들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무것도…. 그 뭐, 무기징역을 받는다든가 사형 언도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그거 지금 우리가 저 문지방 하나 뛰어넘고 저 한 걸음 걷는 거밖엔 안 돼요. 이 자리가 그 자린 걸요.

그러니 그렇게 기묘한 법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상세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참 그 성실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지 애당초에 거기를 가게 만든 것도 자기요, 거기 가다가 그런 생각 하는 것도 자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을 거를 버스를 타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좀 늦어지겠지마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또 잘 어떻게 풀리겠죠.

물론 이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는 그런 생각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든 것을 자기한테 일임해 놓고, 물론 무기징역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도 그 자리, 거기도 그 자린 것을 내가 했는데 무기징역이 어딨고 갇힐 게 어딨고 그런가?' 하고선 다 놔 버리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자기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본래 불이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본래 켜졌다 꺼졌다 이런 말이 언어가 붙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참 '아, 밝구나. 아, 컴컴하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밝고 컴컴하고를 다 놔 버릴 때 비로소 모든 천지가 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건 사람의 마음이 움죽거리게 하고 법을 정해 놓고 그런 겁요, 뭐. 그런데, 아니 사람의 마음을 전체,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일체 참, 유생 무생의 모든 만물을 다 조절할 수 있고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광대무변한 내 참마음이 있다면 어찌 그런 걸 탓하리까?

그러니 대충 넘기시지 마시고, 남이 말하는 데 끄달리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모든 것은 만법귀일이라는 거를 아시고, 우리가 한번 숨쉬는 데 전체가 들어가고 한번 내쉬는 데 전체가 나온다는 그것만 아시면은,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육신을 가만히 재워 놓고도 한번 들어갔다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한번 숨쉬는 대로 들락날락한다면 우주가 들먹들먹하는 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 속에 천차만별로 가지가지 각색의 그 행이 벌어지는 문제들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말로 이루 어떻게 다 하리까?

중도로서 목적 달성이 가능할까요?

문)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하는데 과연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중도로써 가능할는지요? 그래도 목적 달성을 위한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답) 항상 얘기하지만 전자와 전자가 딱 작용을 하는 데에 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전자가 필요한 거지 불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는 것도 법 오는 것도 법이지마는 '가는 것도 법 오는 것도 법'은 대의적인 얘기지 실질적인 얘기는 못 되죠. 일을 보는 데도 가서 보는 게 있고 와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을 보시는 게 중도며 중용이며, 그것을 이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고만 한다면, 내면으로 진짜 자기 마음의 주인을 믿고 거기다 맡겨 놓고 한다면 그게 진실이요 중용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다 놓고 편안하게 사세요.
> 그 기둥에다가, 자기 주장자에다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 이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의 통신처가 거기니까요.
> 그러니까 자기 껍데기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 자기 내면처를 진짜로 믿어라 이겁니다.

*사륙배판/컬러

온가족이 함께 읽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불교만화



만화고승열전 1-5



한국 불교의 중흥조, 경허스님
정수일 글, 그림/200쪽/12,000원
조선왕조 500년 숭유억불의 암흑 속에서 선의 등불을 밝혀 선풍을 떨쳐 일으킨 한국 선의 중흥조, 경허선사의 삶과 생애를 만화로 재구성하였다.



춤추는 스님, 원효대사
정수일 글, 그림/188쪽/9,800원
해동의 성자로 불리울 정도로 뛰어난 사상가이자 세계적 저술가, 한국불교사상 가장 위대한 승려로 꼽히는 원효대사의 삶과 사상을 경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정수일 글, 그림/208쪽/9,000원
부처님은 전생에 강인한 용기와 지혜, 인내와 끈기, 자비와 희생정신 등을 보여주시는데,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간추려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만해 한용운
정수일 글, 그림/200쪽/12,000원
투철한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시인,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를 주창한 불교사상가, 만해 한용운의 치열한 삶과 숭고한 정신을 만화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왕눈이 스님
정수일 글, 그림/단도/246쪽/7,800원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흐름을 계승시킨 편양 언기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과 보살행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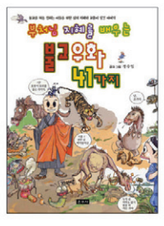
한국 사찰의 설화와 전설 1, 2
이규성 글, 그림/각 246·200쪽/각 10,000원
전국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전설을 만화로 재구성하였다. 불보살님의 가피,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행, 신비하고 기이한 이적 등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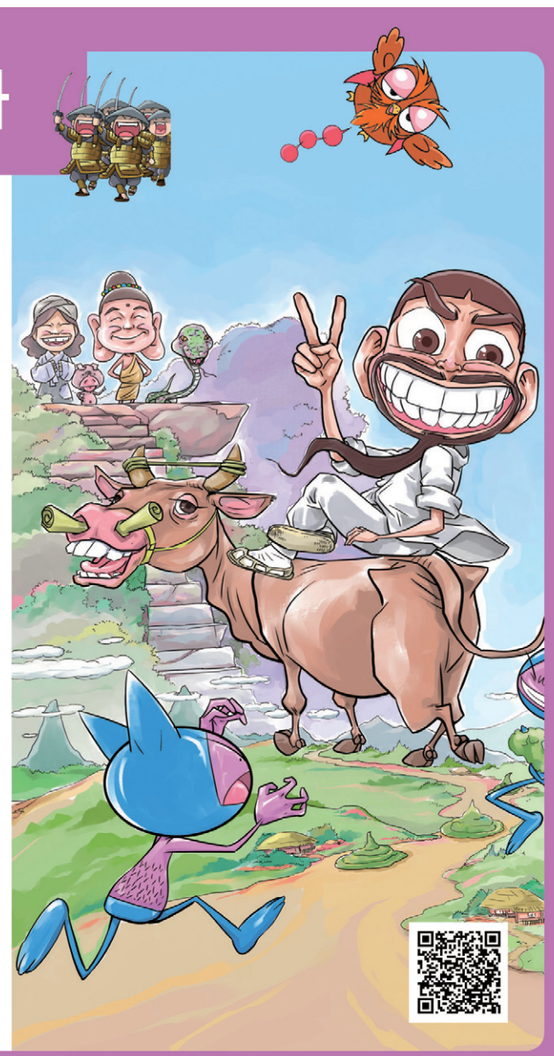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정수일 글, 그림/183쪽/10,000원
임진왜란의 참화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사명대사의 승려로서의 삶과 승병장으로서의 삶을 재미있고 유쾌하면서도 진중하게 그려냈다.



부처님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정수일 글, 그림/168쪽/9,800원
부처님께서는 재미있는 우화형식의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은 어린이들이 보고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눈높이를 고려하여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
정수일 글, 그림/206쪽/9,000원
백 가지 비유를 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고 있는 『백유경』을 어린이와 어른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발언대

선학원 이사회 결정에 대한 의견

(재)선학원이 4월 11일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이 제정한 법인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종지종통 봉대'와 '임원은 조계종 승려'의 조항을 삭제했다. 파문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교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감정적 대응할 문제 아니다



법안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착잡한 기분이다. 이번 법인법 제정은 종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의 제한됐던 권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종단이 제정한 법인법에 의해서 협의 관계가 형성된다 해도 선학원에게 돌아갈 불이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종단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무작정 문을 닫고 안 만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불교적이다.

또한 선학원을 제재하는 것이 아닌 현안 협의를 하겠다는 종단에게 '종지종통 봉대' 조항을 삭제하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옳지 않다.

선학원은 조계종의 뿌리이기도 하다. 이 시대의 출가 수행자로서 부처님 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승가의 문제를 이해관계로 풀어서는 안된다. 종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선학원, 대화 나서달라



정범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학원 이사회의 파장은 클 것이다. '종지종통 봉대' 조항 삭제라는 스스로 역사성을 져버리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정 진제 스님께서 "종단 집행부와 선학원 이사회는 사회법에 의한 쟁송 등 파승가적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중을 내렸음에도 대화를 거부하고 쟁송을 천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종단에서 다양한 채널을 열어 놓고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선학원도 구체적인 문제 사항을 수면 위로 올려 협의해야 한다. 협의하고 논의하다보면 결국 접점은 찾아지기 마련이다.

선학원은 왜색불교에 저항하고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선원 수좌에 대한재정적 지원과 선풍진작을 위해서 설립됐다. 설립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조계종 종도로서 대화에 나서주길 선학원에 바란다.

종단 · 법인 간 배려 필요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흔히들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 뿌리라고 한다. 선학원은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산실로 조계종이 탄생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선학원은 다른 여타 법인과 달리 특수한 역사성과 독자성이 있다. 그런 점은 종단에서 배려해 줘야 할 부분이다. 일반 법인과 똑같이 인식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선학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선학원도 형 · 동생을 따지기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 1960~70년대 선학원의 사찰은 20~30개에 불과했다. 당시에 선학원으로 출가한 스님들은 조계종 사찰에서 공부하고 수행정진했다. 창립 선사부터 조계종의 계맥들이었다. 현재 있는 선학원 스님들도 조계종 소속 승려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현재만을 위해 살지 말고,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는 상호 이해와 배려에서 나온다.

불자 세상보기

올바른 역사교육 절실하다



윤원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역사,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지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걱정스럽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 된 걱정거리라 새삼스러울 게 없다. 하지만 사례를 접할 때마다 새록새록 충격을 받으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상황의 의미가 워낙 무겁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에도 몇 가지 사례가 지상파 텔레비전의 뉴스시간에 보도되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일본식 선술집의 간판으로 내걸렸는데, 가게 주인은 그 문양의 의미를 몰랐더란다.

대학의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욱일승천기의 문양을 배경으로 넣어 홍보지를 제작하고 배포한 일도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그 문양을 보여주니 예쁘고 보기 좋다고 반응한다. 심지어는 그 문양의 의미를 알려주었는데도, 디자인이 보기 좋으면 그만이지 그게 전범(戰犯)의 깃발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대답하는 중고생도 있었다.

중학생이 "삼일절"을 "삼점일절"이라고 읽는 장면과 이완용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일제와 맞서 싸워 몰아낸 분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의 답변에 이르러서는 하도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턱이 빠질 지경이었다. 그런가 하면 안중근의사가 도시락폭탄을 터뜨렸고 그 와중에 손가락 하나가 잘려서 짧아졌다는, 헷갈림과 상상력이 결합된 스토리가 탄생하기도 했다.

그런 시시콜콜한 사항에 대한 무지, 그 자체는 실상 별로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배우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고, 알고 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며, 헷갈리거나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지를 두고 청소년 그 자신들을 비난할 일은 결코 아닌 것 같다. 중등교육과정에서 국사과목의 위상과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게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일 뿐이다. 충분히 배울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고 힘주어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무지하다고 청소년들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중고등학교의 교과 편성과 운영에서 국사과목에 대한 교육이 너무 소홀하고 빈약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배정되는 수업시간의 총량도 보잘 것 없고, 이른바 집중이수제에 따라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어느 학년 한 두 학기에 집중적으로 국사 수업시간을 '때우고' 나면 그만이다.

수능시험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들은 대개 모두가 그처럼 시간을 때우

욱일승천기 간판 걸고
대학 홍보지 제작
때우기식 역사교육 원인
국사교육 확대해야

면 그만인 처지에 해당한다. 문제는 국사과목도 그 반열에 들어가 버렸다는 데 있다. 어느 과목이라고 배울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을까마는, 중요성의 비중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필수와 선택을 가르고 수업시수도 차등을 두어 배정해야 하니까 모든 과목을 똑같이 취급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수능시험에서 국사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방침인지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다.

교육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사회화이고, 사회화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개인이 국가라는 조직에 사회화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꼭 필수불가결하고 바람직하며 절대적인 선이어서가 아니다. 옛날 비틀즈의 존 레논이 이매진(Imagine)이라는 곡에서 노래했듯이 "국가라는 게 없고, 따라서 누구도 국가를 위해 죽이거나 죽을 필요가 없는 상황"을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현실에서는 누구든 불가피하게 특정 국가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개인의 실존과 국가라는 사회단위가 분리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자기가 속한 국가사회의 명운이 개인의 명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공동운명체의 역사를 온전히 알고 이해하여 그 명운을 올바르게 개척하고 이끌어갈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국영수 공부보다, 아니면 백보양보해서 국영수만큼, 필수적인 교육항목이 아닌가 싶다.

社說

'조계종 · 선학원' 출가정신 잊지 말자

4월 1일 공포된 법인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재)선학원이 정관에 있었던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강수를 뒀다.

또한 선학원은 간월암, 정혜사 등 수덕사와의 문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이후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으며 법인법을 전제로 하는 조계종 선학원 대책위원회와의 회동에는 일체 응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선학원의 이 같은 결정은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종단의 사찰법에 의해 선학원 분원들은 미등록 사설사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분원장 스님들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선학원으로 출가한 스님들은 조계종 사찰의 강원이나 중앙승가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1921년 석왕사 안국동 포교당 보살계단에서 만공 스님이 주창한 "조선사람끼리 운영하는 선방을 세우자"는 기치 아래 설립된 선학원은 근대불교의 산실로서 조계종의 모체이기도 하다. 결국 조계종과 선학원은 둘이 아닌 한 뿌리라는 의미다.

원래 하나였던 종단과 법인이 세속적인 틀 안에서 갈등을 벌이는 모습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일불제자로서 같은 선맥을 이은 후학으로서 화합하고 대화해야 한다.

종단은 선학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불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경청해야 하며, 선학원은 종도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갈등은 곪아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대화와 이해 그리고 소통이다.

자재병원 10년 불사의 의미

인간에게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과제다. 그 과정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한 가치가 상실되기 쉽다.

이런 현실에서 불교계에 첫 완화의료(호스피스) 전문병원이 문을 열어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능행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에 건립 중인 자재병원이다.

능행 스님은 4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난치병과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병원, 가난해도 치료 받을 수 있 병원을 만들고 싶었다고 병원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스님의 이번 불사에 대한 원력은 10년이 넘었다. 불교계 호스피스 시설이 없어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불자들이 타종교 전문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개종 하는 현실을 목격하고부터 시작한 것이다.

자재병원이 건립되면 암을 비롯한 불치병 환자들이 재활과 치료 그리고 증상조절과 통증완화를 위한 완화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승가병동'을 통해 수행 중 질병에 걸린 스님들을 위한 적절하고 적합한 치료, 회복, 재활, 요양 등도 제공된다. 정토마을 자재병원 9천여 평 부지에 건축비 100억 원으로 건축면적 927.14㎡, 연면적 2,883.20㎡, 지하 1층, 지상 3층의 108병상 규모로 설계돼 건축 중이다.

정식 개원은 9월 29일이지만 4월 말부터는 환자들의 입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 병원에는 자원봉사자실, 열반당, 법당과 요가명상실도 마련된다.

자재병원이 완성되면 서민층 환자와 차상위계층 환자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호스피스의 인식 제고와 질병 치료로 인해 겪는 사회문제 해결에 한 몫을 할 것 같다. 아울러 복지 환경이 열악한 스님들에게도 큰 위안과 자비나눔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22-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생활속에 만나는 부처님 말씀

지혜와 깨달음을 담은 법구경
그 귀한 가르침을 법과에 담았습니다.
과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귀한 가르침.

부처님 오신 기쁜날, 신도들과 함께
그 참된 뜻을 기리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법과란?

BUDDHA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는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법과전용 포장지에 포장되어 나가며
법과안에는 법구경의 지혜로움이 적혀있는 슬립지가 있습니다.


쿠키



포장지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법과의 효과

BUDDHA

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 슬립지

BUDDHA



[앞면예시]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내용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뒷면예시]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 법구경이
각각 다른디자인으로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